

E 02-2012-02 | 2012.7 |

제14권 제2호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 목 차

## 1 포커스

- ▶ 북한의 가뭄, 현재완료형인가? ..... 3
- ▶ 향후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방향 ..... 17

## 2 2012년 특별기획

- ▶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경상남도의 사례- ..... 55

##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77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01

##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35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35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48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5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52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157
  - 3. 북중 교역 동향 ..... 164

##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171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 포커스

북한의 가뭄, 현재완료형인가?  
향후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방향



# 북한의 가뭄, 현재완료형인가?

권 태 진<sup>1)</sup>

## 1. 머리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956년 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의 식량 창고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벌써 여러 달 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안후이성은 60년 만의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가 자취를 감추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 서남부에서도 가뭄이 시작되고 있다. 구소련의 곡창지대에서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밀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기상기구는 9월까지 엘리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엘리뇨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북동부에는 가뭄이, 남미의 다른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게 된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한 동안 잠잠했던 곡물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6월 하순부터 국제곡물 선물시장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7월 들어서는 옥수수과 대두 선물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sup>2)</sup> 2012년 7월 20일 밀 선물가격은 톤당 347달러로 지난달에 비해 43.8%나 올랐다. 콩 선물가격은 톤당 646달러로 전월에 비해 23.6%나 올랐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곡물 가격 상승을 막을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기상이변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5, 6월 한국도 가뭄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다. 가뭄으로 인해 채소 농사가 타격을 받았으며 이 결과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극심한 가뭄을 맞았다.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10~20%에 불과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하였다. 이 때문에 이모작 농사를 망쳤으며 가을에 수확하는 옥수수 농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농업관측 2012년 8월호, 2012. 7.

보인다. 시장의 곡물 가격 동향도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가뭄까지 겹쳤으니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배가될 게 분명하다.

## 2. 2012년 상반기 북한의 기상 동향

지난 겨울(2011.12~2012.2)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22.3mm로 평년(46.4mm)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건조하였다.<sup>3)</sup> 동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선봉, 청진, 안주, 해주 등지는 평년의 20% 미만이었다. 눈이 내린 날도 17일로 평년의 19일에 비해 2일이나 적었다. 금년 2월의 평균 강수량은 4.5mm로 평년(15.3mm)의 30%에 불과하였다. 전 지역이 평년보다 적었으며,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장진, 혜산, 평강, 청진, 선봉), 평안남도의 일부(안주, 양덕) 지역은 평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의 금년 봄철(2012.3~2012.5) 강수량은 140.4mm로 평년(148.6mm)의 94% 수준을 보였다.<sup>4)</sup> 3월과 4월에는 많은 강수가 있었으나 5월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5월부터 가뭄의 전조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70~120%)했으나 동해안의 신포, 원산, 장전은 평년보다 많았고, 황해도의 사리원과 해주는 평년보다 적었다. 3월의 강수량은 29.1mm로 평년(25.3mm)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았다. 평안북도, 함경북도, 동해안지역(원산, 청진)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였으나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평년에 비해 적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적었는데 해주 33%, 평양 62%, 개성 65%를 기록하였다. 4월의 강수량은 81.2mm로 평년(46.8mm)에 비해 훨씬 많았다.<sup>5)</sup> 주기적인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 현상이 자주 있었으며, 특히 상순과 하순은 평년의 3배 정도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으며, 특히 함경남도 동해안의 원산, 함흥과 서해안의 용연, 남포, 개성 지역은 평년의 2배 이상 많았다. 5월 들어 북한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심한 가뭄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5월 평균 강수량은 30.1mm로 평년(76.5mm) 대비 39.4%로 적었다.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었으며 서해안의 남포, 용연, 해주, 구성, 사리원, 평양은 평년의 10% 내외로 매우 적은 비가 내렸다. 평양, 사리원, 해주는 금년 5월 강수량이 1973년 이래

3) 기상청, “북한의 겨울철(‘11.12~’12.2월) 및 금년 2월 기상특성,” 2012. 3. 6.

4) 기상청, “북한의 금년 3월 기상특성,” 2012. 4. 5.

5) 기상청, “북한의 금년 4월 기상특성,” 2012. 5. 7.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용연과 구성은 198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sup>6)</sup>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곡창지대인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의 5월 강수량이 1962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했다<sup>7)</sup>

6월 말이 되어서야 두 달간 이어진 가뭄이 해갈되었다. 6월 평균 강수량은 118.0mm로 평년(105.3mm)보다 오히려 많았다.<sup>8)</sup> 그렇지만 6월 28일까지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특히 황해도를 중심으로 평년대비 10% 내외의 매우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6월 29~30일 내린 비로 장전, 함흥, 평강, 원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졌다.

### 3. 가뭄이 북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sup>9)</sup>

#### 가. 북한의 농작물 재배 상황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79만 ha이며 이 중 텃밭 25,000ha와 경사지 30만 ha를 제외하면 146만 ha로 추정된다.<sup>10)</sup> 그 중에서도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일모작 재배면적이 86%인 126만 ha이고 가을 수확 후 또는 이른 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이모작 재배면적이 13%인 20만 ha이다.

주된 작물은 벼, 옥수수이며 감자, 콩, 잡곡 등도 식량작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일모작 벼의 경우 5월 중하순에 이앙을 하여 9월 말~10월 초순경에 수확하지만, 이모작 벼는 이모작 작물 수확이 끝난 6월 말~7월 초에 이앙을 하여 10월 중하순에 수확한다. 옥수수의 경우 직파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식재배가 일반적이다. 이식재배의 경우 3월에 파종을 하여 5월에 이식한 후 8월 말~9월 초순에 수확하는 것이 북한의 일반적인 작부체계이다. 가을에 수확하는 감자는 주로 밭에서 재배되며 대개 5월에 파종하여 9월에 수확한다. 옥수수와 감자는 지역에 따라 파종과 수확시기가 다르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난 후 이모작 재배가 확대되어 20만

6) 기상청, “북한의 지난 봄철(12.3~12.5월) 및 5월 기상특성,” 2012. 6. 7.

7) Daily NK, “북, 서해안 지역,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2012. 5. 27.

8) 기상청, “북한의 급년 6월 기상특성,” 2012. 7. 4.

9) 이 부분은 권태진·남민지, “북한의 가뭄 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22호(2012. 6. 20)를 재구성·편집하였음.

10)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25, 2011.

ha에 이르렀으며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력과 농자재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모작 작물은 감자, 밀, 보리이며 이들 작물은 가을에 벼를 수확한 후 논에서 재배하거나 이른 봄 논밭에서 재배한다. 이모작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봄감자는 3월에 파종하여 6월 말~7월 초순경 수확한다(표 1). 보리와 밀은 주로 10월에 파종하여 6월 말 경 수확하지만 2월 말~3월 초에 파종하여 6월 말~7월 초순에 수확하기도 한다. 농작물 재배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벼는 큰 변화가 없으나 옥수수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자와 콩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모작 재배면적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특히 봄감자의 재배면적은 기상이나 씨감자의 확보 정도에 따라 변동이 큰 특징이 있다.

표 1. 북한의 작물 생산 주기

작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리	---	---	---	---	---	—○					X	---
밀	---	---	---	---	---	—○					X X	---
벼					△△	—△	---	---	---	-○○○		
옥수수				△△△	---	---	---	---	-○○○			
감자			X X	---	---	—○	X	---	—○○			
고구마			X X	---	---	---	---	—○○				
수수				X X	---	---	---	---	—○○			

주: 파종 X, 이식 △, 생육 ---, 수확 ○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 25, 2011.

### 나. 가뭄이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상, 용수 공급 및 토양 수분, 비료 등 농자재, 농작물 생육 기간, 재해 등 여러 요소가 있으나 기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옥수수의 경우 생육이 왕성하여 생육기간 동안 토양습도가 70% 정도 유지되는 것이 적정하며, 60%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고 심할 경우 식물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처럼 옥수수를 이식 재배하는 경우 직파에 비해 가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모든 작물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만 어느 생육 단계에서 가뭄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금년의 경우 5월부터 가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6월 중 하순경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가뭄 피해의 양상이 상이하다. 식량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정 시기에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지만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직후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된다. 어린 식물은 다 자란 식물에 비해 물의 요구량은 적지만 환경 영향은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올해 북한 지역의 가뭄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가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물은 밀, 보리 등 이모작 작물과 이식을 했거나 이식 예정인 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모작으로 재배했던 봄감자나 파종이 막 끝난 가을감자도 가뭄 피해가 예상된다. 일모작 벼의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앙시기가 늦춰져야만 했기 때문에 가뭄의 직접적인 피해는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앙을 끝낸 벼는 작물 생육기간에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앙이 지연된 경우 생육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밀과 보리는 가뭄에 비교적 강한 작물이지만 출수를 전후하여 토양수분이 부족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된다. 밀은 보리에 비해 추위에 강하지만 보리보다 생육이 늦기 때문에 가뭄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크다. 지난겨울은 추웠던 데다 눈도 적게 왔으며 4월 초까지 기온도 낮아 가을보리는 동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가을보리는 5월 초중순경 출수를 하기 때문에 이미 가뭄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밀은 이보다 생육이 늦기 때문에 보리에 비해 더 큰 가뭄피해가 예상된다. 보리는 유숙기의 수분 요구가 높아 가뭄으로 인한 불완전 등숙이 우려된다. 봄보리의 경우 가을보리에 비해 생육이 더 늦기 때문에 가을보리에 비해 가뭄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처럼 수확기 직전까지 가뭄이 계속된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이 충분한 등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입중(알 무게)이 떨어져 수량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자는 비교적 건조에 강한 작물이지만 토양수분이 풍부해야 덩이줄기의 비대가 촉진되어 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우량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400~800mm의 수분이 필요하다. 감자는 뿌리의 영역 분포가 토심 50~80cm에 달하는 천근성 작물이며, 뿌리조직은 연약해서 딱딱한 토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건조와 과습에 매우 민감하다. 수분 부족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지만 한번 피해를 받으면 좀처럼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심각성이 있다. 봄감자 재배시 생육초기의 가뭄은 출현율을 현저히 저하시켜 많은 피해를 주며, 특히 덩이줄기 형성기 이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건조한 토양은 줄기수를 감소시키며 덩이줄기 비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가뭄은 호흡과 광합성을 저하시켜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며, 덩이줄기 내 갈변 현상이나 중심 공동과 같은 생리적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옥수수는 모든 생육시기에 걸쳐 비교적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다른 작물과는 달리 특정 시기에 토양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꽃(개꼬리)이 나오는 시기(Tasseling) 직전에는 4일 정도만 잎이 말라도 수량이 10~25% 감소하며 수정(Pollination) 이후 유숙기(Milk Stage)까지는 4일만 잎이 말라도 수량이 30% 이상 감소한다(표 2). 그러나 잎의 수가 12장 미만까지의 시기에는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일 정도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수량 감소는 10%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5월 초순경 늦게 이식한 옥수수는 가뭄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중순경 일찍 이식한 옥수수의 경우 출사가 가까워질 때까지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뭄으로 인해 아직 이식조차 하지 못한 옥수수 재배는 생육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벼의 경우 논에 물이 있어야만 이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갈 수 있으나 물 부족으로 인하여 논에 물을 댈 수 없는 곳은 이앙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겨울부터 강수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저수율이 낮아 벼 이앙을 위한 논물대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경우 충분한 벼 생육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노화된 모를 이앙할 경우 가지치기가 적고 초기생육이 불량하다. 모내기가 늦어질 경우 목도열병 등 병해충에도 취약하다. 모를 낸 논에 가뭄이 발생할 경우 벼 잎이 말라 고사하거나 뿌리의 양분 흡수력은 저하되는 데 비해 식물체의 양분 소모량은 증가하여 생장이 억제된다. 이앙을 끝낸 논이라 하더라도 금년처럼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량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표 3).

표 2. 옥수수 생육단계별 가뭄 스트레스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

생육단계 <sup>1</sup>	발아 후 소요일수(일)	1일 증발량		1일 감수율(%) (최소-평균-최대)
		mm	인치	%
발아-4일	14	1.52	0.06	-
4-8일	28	2.54	0.10	-
8-12일	42	4.57	0.18	-
12-16일	55	5.33	0.21	2.1 - 3.0 - 3.7
16일-Tasseling	55-65	8.38	0.33	2.5 - 3.2 - 4.0
Pollination(R1)	55-65	8.38	0.33	3.0 - 6.8 - 8.0
Blister(R2)	77	8.38	0.33	3.0 - 4.2 - 6.0
Milk(R3)	85	6.60	0.26	3.0 - 4.2 - 5.8
Dough(R4)	91	6.60	0.26	3.0 - 4.0 - 5.0
Dent(R5)	101	6.60	0.26	2.5 - 3.0 - 4.0
Maturity(R6)	115-120	5.84	0.23	0.0

주: 옥수수의 맨 꼭대기에 Tassel이라고 불리는 수꽃이 출현하는 시기를 Tasseling이라고 하며, 옥수수 이삭에 비단실 모양의 수염(암술)이 나와 수꽃의 꽃가루가 암술 끝에 골고루 묻게 되면 Pollination(수정)이 되어 이삭에 알갱이가 생기는데 이 시기를 Silking(출사기)라고도 함. Blister(유수형성기)는 이삭에 알갱이가 형성되는 시기, Milk(유숙기)는 옥수수 알갱이에 알이 차기 시작하는 시기, Dough(호숙기)는 본격적으로 알이 차는 시기, Dent는 말의 이 모양으로 알갱이가 여무는 시기이며 이 시기를 거쳐 마침내 알이 딱 차서 Maturity(성숙)하게 됨.

자료: University of Illinois Extension, *Effects of drought on corn physiology and yield*, 2009.

표 3. 벼의 생육 시기별 가뭄정도가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가뭄 시기 <sup>1</sup>	식물체의 가뭄피해 증상 및 토양의 건조정도	출수기 (월.일)	포기당 수수	평 균 수당립수	수량 지수 <sup>2</sup>
전생육기(무처리)	상시 담수	8. 5	12.9개	126립	100
분 얼 기 (이앙 후 20일 부터 15~30일간)	앞끝 위조·토양 약간 균열	8.12	12.7	99	100
	앞의 1/2 위조황변·토양균열	8.26	10.9	88	74
	앞 전체 위조황변·토양백건	8.31	9.2	83	65
유수형성기 (출수 전 30일부터 10~20일간)	앞끝위조·토양약간 균열	8.11	11.1	94	77
	앞의 1/2 위조황변·토양균열	8.13	11.6	88	72
	앞 전체 위조황변·토양백건	8.17	10.3	81	60
수 잉 기 (출수 전 15일부터 10~15일간)	앞끝위조·토양약간 균열	8. 7	11.9	117	58
	앞의 1/2 위조황변·토양균열	8. 8	11.4	86	48
	앞 전체 위조황변·토양백건	8.10	11.1	83	29

주 1: ( )안은 가뭄 처리시기를 표시하며 전 생육기(무처리)란 전 생육기간 동안 가뭄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말함.

2: 가뭄이 없는 정상적인 수량을 100으로 했을 때 가뭄 시기별 상대 수량 지수를 나타냄.

자료: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1977.

## 4.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 분석

가뭄으로 인한 일차적인 영향은 농작물의 수량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이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식량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이차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북한 시장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이전이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재의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도 한다. 가을 수확기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래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미리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가. 작물 생산량 감소

올해 발생한 북한의 가뭄피해는 이모작 작물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을 수확 작물의 생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모작 작물에 대한 피해는 가뭄으로 인한 생육의 부진과 그에 따른 수량의 감소도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파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다.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기구들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 북한의 이모작 재배면적은 176,375ha로 추정되어 당초 계획 면적 195,000ha와 비교하면 20,000ha 가량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sup>11)</sup> 이는 가뭄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가뭄 피해가 나타나는 면적도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의 이모작 작물이 가뭄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말까지만 해도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이모작 재배면적이 40,000ha 미만이었으나 가뭄이 지어지면서 피해면적이 크게 확산되었다.<sup>12)</sup> 북한의 대표적인 이모작 작물은 밀과 보리, 봄감자이다. 이모작 밀과 보리는 통상 벼 수확 후 가을에 파종을 하지만 이른 봄에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가을에 파종한 밀과 보리는 파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생육과정, 특히 알이 차는 시기에 가뭄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이상의 수량 감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봄보리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제대로 파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파종을 했더라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한 면적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지역은 가뭄이 극심했던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가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11) UN Team in DPRK, Quarterly Bulletin, July 10, 2012.

12) 유엔식량농업기구는 5월 말 기준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등 5개 시도에서 가뭄의 영향을 받는 이모작 작물 재배면적을 30,496ha로 추정하였으며 북한 전체 이모작 면적 중 37,221ha에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FA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ry Spell Situation, June 18, 2012.

봄감자의 경우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파종면적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뭄과는 직접 연관을 짓기는 어렵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봄감자의 파종면적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하여 감자의 추가 파종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감자는 비교적 가뭄에 강한 작물이지만 금년의 경우 봄감자 재배지역은 가뭄의 정도가 워낙 심한데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파종이 충분히 비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가뭄으로 인해 밀과 보리, 봄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 감소를 모두 합하면 20여 만 톤에 이른다(표 4).<sup>13)</sup>

표 4. 작물별 가뭄 피해 영향

구 분	피해 면적(ha)	수량 감소폭(톤/ha)	생산량 감소(톤)	비 고	
이모작	밀/보리	75,000	0.6	45,000	피해율 30%
		15,000	2.0	30,000	피해율 100%
	봄감자	100,000	1.2	120,000	피해율 40%
		5,000	3.0	15,000	피해율 100%
소계			210,000		
가을작물	벼	570,000	0.1	57,000	피해율 3%
		10,000	3.0	30,000	피해율 100%
	옥수수	150,000	0.7	105,000	피해율 20%
		330,000	0.2	66,000	피해율 5%
		20,000	3.5	70,000	피해율 100%
	감자	5,000	0.7	3,500	피해율 20%
		25,000	0.2	5,000	피해율 5%
		5,000	3.5	17,500	피해율 100%
	콩	10,000	0.4	4,000	피해율 20%
		100,000	0.1	10,000	피해율 5%
20,000		2.0	40,000	피해율 100%	
소계			408,000		
경사지	옥수수	200,000	0.5	100,000	피해율 50%
합 계			718,000		

주: 피해율을 100%로 추정된 것은 가뭄 피해가 극심하여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거나 가뭄이 심해 파종 또는 이식을 하지 못한 면적을 합한 것임.

13)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이 2012년 7월 10일 북한의 작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 발표한 ‘인도주의 보고서’(UN Team in DPRK, Quarterly Bulletin, July 10, 2012)에서 북한의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206,970톤으로 당초 예상했던 50만 톤의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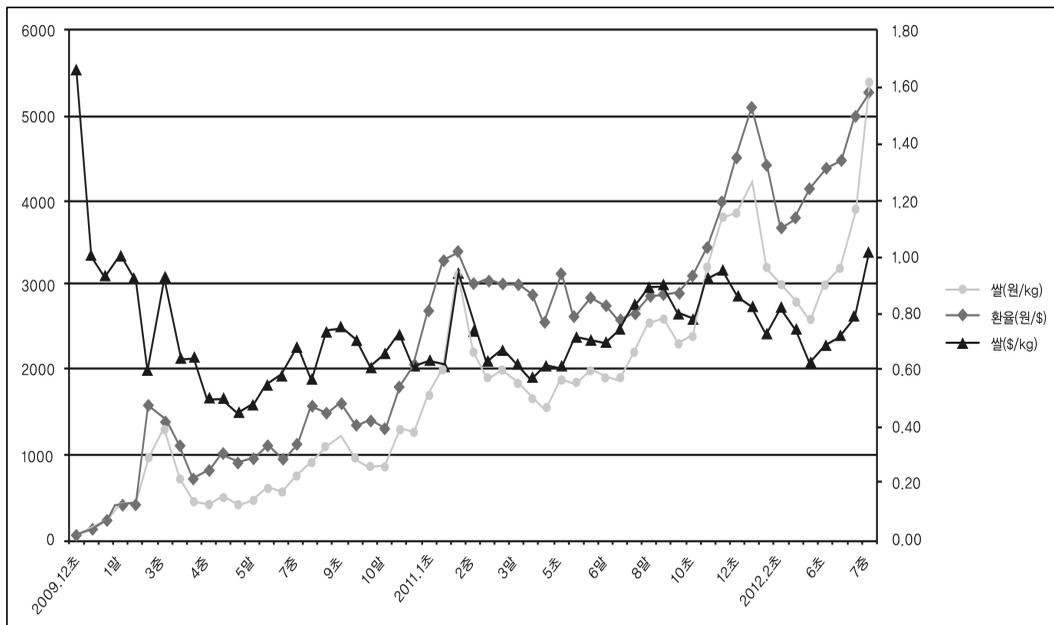
가뭄이 가을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재배중인 작물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영향과 가뭄으로 인해 벼 이앙이나 옥수수의 이식이 지연되거나 아예 파종을 할 수 없는 이차적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감자나 콩 재배지도 가뭄의 영향을 비켜갈 수는 없다. 가을에 수확하는 일모작 옥수수는 황해도 지방의 경우 대개 4월 20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금년도 북한의 가뭄 시기와 겹친다. 지역에 따라 가뭄이 6월말까지 계속된 곳도 있기 때문에 파종이 늦춰지거나 파종이 불가능한 농지도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가뭄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정도가 급격히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은 전환되는 시점에 가뭄이 나타날 경우 짧은 기간의 가뭄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는 매우 크다. 북한의 관개 특성을 고려할 때 논보다는 밭이 가뭄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 동일한 가뭄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재배지의 위치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달라진다. 특히 비탈밭은 가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물 공급이 어려운데다 인근에서 물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금년 5~6월에 걸친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감자, 콩, 벼 등 가을 수확작물이 입게 될 피해는 어림잡아 4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개인이 경작하는 비탈밭 피해까지 합하면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모작 피해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미 수확이 끝난 이모작 작물과 가을 수확 예정인 작물의 피해를 모두 합하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분은 7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연간 곡물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농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생산량 감소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2% 이상 낮출 수도 있다.

#### 나. 식량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이모작 농산물은 연중 식량사정이 가장 긴박한 7~8월의 중요한 먹거리이다. 금년과 같이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 식량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져서 시장의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번에 수확한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은 곡물로 환산해서 30만 톤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의 추정대로라면 20만 톤을 겨우 넘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이모작 수확물은 오래 보관되지 않고 수확 직후 단기간에 식용으로 배급된다. 이모작 작물의 수확기는 계절적으로 식량부족이 심할 때이며 여름철이라 수분함량이 높은 곡물을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모작 수확물 중 감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자 가공시설 부족과 함께 생 감자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이모작 수확물이 단기에 배급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모작 수확 직후 일시적으로 식량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시장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시기는 연중 식량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기여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작황이 좋은 경우에도 다른 시기에 비해 시장가격이 높다. 금년과 같이 작황이 좋은 양은 경우에는 시장의 곡물가격이 더욱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관리 방식 개편 소문까지 퍼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7월로 접어들면서 곡물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곡물가격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전형적인 시장 불안정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그림 1). 6월 중순까지만 해도 kg당 3,000원 선에 머물던 쌀 가격이 7월 들어 5,000원을 넘어섰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인 곳도 있다. 북한 원화의 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쌀 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달러로 환산하여 지금까지 쌀 1kg 가격이 0.7달러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1달러를 넘어섰다.

그림 1. 최근 북한 시장의 쌀 및 달러 가격 변화 추이



현재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곡물 가격은 가을 수확기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0일을 전후하여 태풍과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가뭄으로 인해 가을 작황마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해 최근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현물 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북한으로서 부담이다. 북한은 금년 상반기에 중국으로부터 135,000여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수입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옥수수의 수입가격은 25% 가까이 올랐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북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다른 해에 비해 영농철 주민 동원 기간이 더욱 길었다. 이는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주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때문인지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통상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의 50% 수준이다. 경험에 의하면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주민 수입이 줄면 예산 제약 때문에 필요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의 구매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줄곧 55~60%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주민 못지않게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크다. 농민들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토지 농사는 가뭄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었다. 가뭄 때문에 영농기간이 늘어난 데다 가뭄 및 홍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영농 작업도 가중되어 농민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 5. 시사점

금년에는 남북한 모두 극심한 가뭄 영향을 받았다. 어쩌면 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뭄과 폭염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주요 지역의 곡물 생산이 저조하여 국제 곡물가격은 이미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남한은 가뭄의 영향이 일부 채소류 생산에 한정되었지만 북한은 농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시장에서는 곡물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가뭄이 지나갔나 싶었더니 여름이 되면서 북한 지역 곳곳에서 물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북한의 식량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금년에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에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등 정치적으로 식량수요가 증가한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식량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지난 가을 작황이 그런대로 괜찮았던 데다 금년 들어 북한은 식량수입원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수입량도 늘렸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상당 규모에 달하는 식량 무상지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년 양곡연도에 북한이 수입 또는 지원을 통해 외부로부터 조달한 식량은 줄잡아 60만 톤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연말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금년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부족량을 74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는 금년 이모작 농사가 정상적이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가뭄으로 인한 이모작 작황 부진을 감안하면 식량부족량은 100만 여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한 곡물량을 감안하면 아직도 40여 만 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상업적 수입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이 부족량을 메울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가뭄은 끝났지만 가뭄이 뿌린 씨앗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홍수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가을 농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뭄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을 작황은 부진이 예상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은 금년 5, 6월에 걸쳐 많은 양의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통상 5, 6월은 중국에서도 비료 수요가 가장 많은 철이어서 비료 수출을 억제하는데 금년의 경우 북한에 대해 일종의 특혜를 베푼 셈이다. 지난해에 비해 비료 가격이 20~3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비료를 사들였다. 김정은은 정권을 인수받은 직후 주민생활 안정을 가장 강조하였다. 먹는 문제의 해결과 경공업 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민생이 안정되어야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최근 김정은은 농업 회복과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방식, 이른바 ‘6.28방침’을 준비하고

14)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 25, 2011.

있다고 한다.<sup>15)</sup> 시행 시기와 성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나 새로운 경제정책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6.28방침’은 내용 면에서나 자원 마련 문제 등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중장기 경제회생 대책과 더불어 식량부족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혼자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경제회생 문제까지도 함께 협의해나가는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북한의 가뭄과 홍수가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15) Daily NK, “北, 유선방송 통해 ‘김정은式 경제개방’ 언급,” 2012. 7. 23.

## 향후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는 2012년 7월 19일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신선호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박용주 통일부 남북경협과 사무관, 박희명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총괄팀장을 초청하여 “향후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 <향후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방향>

- 일시: 2012년 7월 19일(목) 15:00~18: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동 5층회의실
- 사회: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자: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
- 토론자: 이석(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신선호(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박용주(통일부 남북경협과 사무관), 박희명(한국농어촌공사 해외총괄팀장)

## 북한의 농업·식량 사정과 대응 방향

김 영 훈<sup>1)</sup>

### 1. 권력 교체기 북한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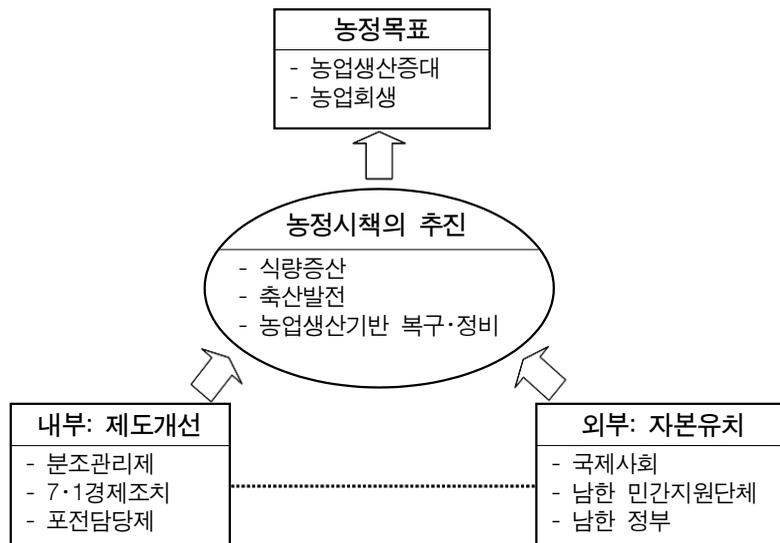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 내 동향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일 사망후 특이 동향 없었으며, 지금까지 북한 사회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권력교체기에 주변국들도 북한의 안정을 희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미국도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표명함.
- 북한 권력 교체기에 북미 접촉과 한반도 해빙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짐.
  - 김정일 사망 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24만 톤) 재개에 관한 협상 성과를 논평하며 곧이어 개최될 베이징 회담(22일)에서의 타결소식을 미리 예고했으며, 김정일 사망 후에도 미국은 조기협상과 타결 의지를 강조한 바 있음.
  - 이 상황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해빙을 점치게 할 만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과 그 후견 세력의 국내 정치 안정 회구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안정 회구
- 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식량부족 상황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권력교체기 엄혹한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경제상황이 표면화할 우려
  -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문제는 특히 중요한 부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 2000년대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 농업에 가용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부문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농기계, 에너지 등 농업생산자재 부족 (가장 중요한 농자재인 화학비료도 소요량의 30% 수준 조달)
  - 농업생산기반과 산림 황폐화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 (전체 산지의 32% 황폐화).
  - 1960년대의 후진적 농업구조가 그대로 유지 (2008년 농가인구비중 북한은 36.8%, 한국은 6.6%)
- 북한은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농정기조를 지도이념 관철에서 실천적 농정시책 추진으로 전환
  - 농업생산부문: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강조
  - 기반정비부문: 토지정리사업과 대규모 물길공사 추진
  - 축산부문: 곡물 부족을 반영하여 소가축과 초식가축 사육 강조

그림 1. 북한의 농정 목표와 전략



-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외부자본 조달을 추진했으나 실패함.
  - 경제와 농업 회생을 위해 북한 내부의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국제사회의 Big-Push 지원이 필요
  -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3. 2000년대 대북 지원과 농업협력

-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함.
  - 식량지원: 무상지원과 차관지원 이원적으로 추진(총 330만 톤)
  - 비료지원: 1999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으로 추진(총 250만 톤)
  - 식량 및 비료지원은 200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킨 주된 배경
- 2000년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NGO와 지자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이 활성화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20여 개 단체
  -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남, 제주도 등이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 북한의 해당 농촌사회에 인도적 지원 효과와 함께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및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도 제공
-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농업부문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 있음.
  -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5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 2007년 12월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에서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을 참고하여 농업 및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표 1.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년)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협력,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분야 협력 추진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 (2007년)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지원 검역 관련 협력 과수, 채소, 잡업, 축산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 2000년대 대북지원과 농업지원의 문제 : 전략적 접근 미흡
  - 식량 및 비료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상황논리에 따른 접근
  -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협력 지원: 심사, 평가, 피드백 체계 미흡
  - 당국 간 농업협력: 북한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협력사업 추진 합의, 남북 양측의 적극적 추진 의지 미약

## 4.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 4.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변화

-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지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 비료지원과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북한 국내 식량생산 호조
  -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  
(2000~07년 기간 총 776만 톤, 연평균 97만 톤 지원, WFP통계)
- 국내 생산과 외부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식량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은 2006년까지 442만 톤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 감소
  -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995~2007년까지 총 1,140만 톤, 연평균 87만여 톤을 지원했으며, 특히 2000~05년 기간에는 총 665만 톤, 연평균 110여만 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2008년부터 식량지원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됨.
  - 2006년까지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부족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08년부터 연간 70만 톤 이상으로 확대

표 2. 200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생 산 량 <sup>1)</sup>	306	416	433	442	422	414	424
지 원 량 <sup>2)</sup> (그중 한국)	126 (50)	121 (50)	88 (50)	36 (10)	33 (-)	31 (-)	8 (0.5)
소 요 량 <sup>3)</sup>	500	508	515	521	526	529	531
부 족 량	68	△29	△6	43	71	84	99

주 1) FAO Statistics, 2) WFP interfaiss, 3) FAO/WFP의 1인당 소요량, 인구

## 4.2. 올해 초 2011/12년의 식량수급 전망

### 가. 작황 결정 요인

#### □ 기상여건

- 작년 말과 올해 초 북한의 겨울 기온은 예년에 비해 낮았으며 저온 현상이 봄까지 지속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1.2미터까지 토양이 동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온도가 40일 이상 지속
  -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감자와 맥류의 종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씨감자는 보급 과정에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음. 채종포나 협동농장의 감자 보관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임.
  
- 비료 및 농약
  - 질소비료의 투입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0년 대비 55% 증가).
  - 그러나 공급된 비료의 대부분은 질소비료임. 인산 및 칼리비료와 석회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나 비료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비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종별 공급비율이 열악해져 질소비료의 증투 효과는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농약의 공급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공급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함.
  - 농약 부족으로 농업노동력이 병충해 방제와 제초 작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음.
  - 살균제 부족으로 씨감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자 작황도 낮아짐.
  
- 기계동력 및 에너지 부족
  - 경유 공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트랙터의 가동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계동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모작이나 간작, 수확 후 처리 등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 관개 상황

- 주요 관개수로 개설 공사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비중이 증가함.
- 저수지 수위는 3년 계속 목표 수위를 웃돌고 있으며 2011년에는 최근 3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함.

표 3. 북한의 비료 조달 상황 (2008~2011년)

단위: 천 톤(실중량)

연도	국내생산	도입	전년이월	사용량
2011	199,357	548,108	1,500	745,965
2010	198,066	299,250	3,000	498,816
2009	181,266	266,817	900	445,983
2008	274,640	181,157	1,400	456,297

자료: 북한농업성, FAO/WFP(2011)에서 재인용

## 나. 주요 식량작물의 작황

- 도정 전 벼 수량은 ha당 4.34 톤으로 작년 4.26 톤에 비해 약 2% 상승하여 248만 톤(쌀 161만 톤)을 기록함.
  - 벼 생산량 증가는 주로 비료 투입의 증가, 관개와 농업동력 상황의 호전 등에 기인함.
  - 다만, 춥고 건조한 봄 날씨, 황해남도를 비롯한 주요 벼농사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몇 차례의 태풍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해 투입 증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
- 옥수수의 재배 여건 역시 벼와 유사했으며, 평균 수량은 ha당 약 3.7톤으로 예년의 3.3톤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음.
  - 높아진 수량의 결과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186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약 11% 증가함.
- 곡물로 환산한 2011년 주수확기의 감자 생산량은 약 12만2천 톤으로 작년에 비해 29% 감소했으며, 2012년 조기 수확은 씨감자 부족으로 전망이 어두운 실정임.
  - 국제기구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씨감자 공급은 수요의 60% 이하에 불과함.
- 겨울밀에 관한 수치자료는 없지만 2010년에 비해 종자가 부족한 실정임.
  - 2011년 겨울밀 파종도 목표치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봄보리 종자를 수입하여 파종해야 함.

### 다. 올해 초 2011/12년 식량수급 추정(FAO/WFP)

- 생산량
  - 2010년에 비해 농용에너지, 비료 등 농자재의 공급이 증가
  - 2011년 7, 8월 일조량 감소와 곡창지대 홍수 피해 발생
  - 2012년 봄작물(밀, 보리, 감자) 종자 부족
- 소요량
  - 인구: 2,457만 명
  - 식용 곡물(가공용 포함): 1인당 174kg(1,640Kcal)
  - 종자용(243,000 톤), 사료용(75,000 톤)
  - 수확 후 손실: 15%(쌀, 옥수수, 감자), 10%(밀,보리,기타), 5%(콩)
  - 도정율: 쌀에만 해당(65%)
- 도입량
  - 상업적 수입 예정 물량 : 325,000 톤(수매양정성)

표 4.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2011/12년)

단위: 천 톤

	쌀 <sup>1)</sup>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 <sup>1)</sup>	콩 <sup>2)</sup>	총 계
국내생산(정곡)	1,610	2,032	182	49	489	294	4,657
주작물	1,610	1,857	-	49	121	294	3,932
이모작		-	182		318		500
경사지		150			-		150
텃밭		25			50		75
총소요량	1,935	2,185	390	104	502	279	5,396
식용	1,573	1,696	344	74	344	246	4,276
사료용	-	75	-	-	-	-	75
종자용 <sup>2)</sup>	56	65	13	23	78	8	243
손실	242	279	18	5	66	15	624
재고조정	66	71	14	3	14	10	178
수입 요구량	325	153	208	56	13	-16	739
수입 예상량							325
순부족 예상량							414

주 1) 벼의 정곡환산률 65%, 감자의 곡물환산률 25%, 콩의 곡물환산률 120% 각각 적용

2) 경사지와 텃밭의 종자소요량 15,000톤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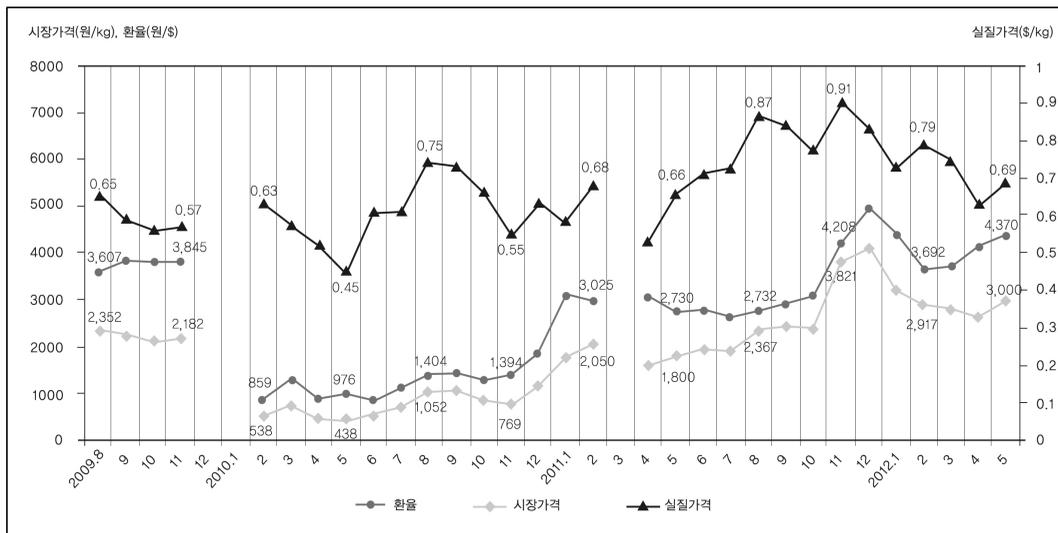
자료: FAO/WFP, 2011.11.

- 2011/12년 식량수급 물량 전망
  - 생산량은 466만 톤, 소요량은 540만 톤으로 부족량은 74만 톤으로 추정
  - 북한 수매양정성은 32만5천 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올해 식량부족량은 4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라. 기타 요소를 종합한 수급 전망

- 북한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10월 말 주곡 수확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1월에는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예년 동기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쌀의 실질가격(달러/kg, 평양)은 계절변동을 제외하면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전부터 2011년 4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 2011년 5월부터 예년에 비해 실질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주곡 수확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기현상을 보였음(평양의 11월 실질 쌀가격 0.9 달러/kg).
  - 2011년 12월부터 식량가격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어 올해 4월에는 쌀 가격이 kg당 0.63달러로 하락(그림2)

그림 2. 평양의 시장 쌀 가격 동향 (2009.8 - 2012.5)



주: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의해 기중 평균한 월평균 값임.  
 자료: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식량위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공급물량의 증가(생산증가, 2012년을 위한 식량예비 가능성 등)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김정일 사후 국제사회의 북한 안정 회구에 따른 지원 가능성
  - 김정일 사후 통제를 강화에 의한 국가 양정 기능의 회복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2012년 강성대국 진입, 태양절 100주년 기념, 새 지도체제 출범에 즈음한 식량 조달수요 증가
  - 2012년 봄 가뭄에 따른 식량공급 감소와 심리적 영향

## 5.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기구의 권고

### 5.1. 인도적 상황

- 연초 WFP는 배급계획량은 1인당 하루 평균 380g(1,314kcal)이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는 5~9월에는 200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이 경우 취약한 지역과 취약 계층부터 식량부족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 취약 지역 : 북부와 북동부지역
  - 취약 계층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등 약 300만 명
  - ※ 2011년 600만 명에 비해 개선된 상황을 전망

표 5. 2011/12년 취약계층 식량지원 필요량

취약계층	인 구 (천명)	식량지원 필요량 (톤)
5세 미만 어린이 <sup>1)</sup>	965	31,500
임산부 및 수유부	581	43,500
유치원 (5-6세)	395	21,000
국민학생 (7-10세)	856	13,000
독거 노인 <sup>2)</sup>	178	9,600
고아원 어린이	12	700
소아과 환자	13	700
합 계	3,000	120,000

주 1) 6개월 미만 유아는 제외

2) 노인 인구의 약 10%

자료: WFP/FAO, 2011. 11.

## 5.2. 국제기구(FAO, WFP)의 권고

- 식량 및 영양지원에 관한 권고
  -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에게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
  - 취약 지역의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 2012년 농업관리에 관한 권고
  - 2010년의 북한 농업생산 조사와 2011년 보완조사의 권고사항은 여전히 유효함 (씨감자 저장시설 개선, 곡물 건조 체계의 개선, 콩 생산 증대, 양식과 텃밭에 대한 지원,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양질의 종자 확보 등).
  - 봄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종자의 확보, 비닐과 농약의 공급 증대, 환경농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계 공급 확대

## 6.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방향

### 6.1.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안정화

-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분
  - 가장 커다란 차원의 구분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개발협력사업에 부수된 식량지원
  - 인도적 식량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재해나 질병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식량지원 :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소요되는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
-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 지원)
  -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
  - 프로그램 지원 물량을 국내 쌀 수요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대북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쌀 관리도 안정화 할 수 있음.
- 긴급구호지원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은 대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의 적십자 간에도 협력 경험이 있음.
  - 이 경험을 토대로 대북 긴급구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음.
- 개발협력 차원의 식량지원: 취로사업 연계 추진
- 개발지원 수원국에게는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북한의 준비상태는 미흡함.
  - 개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정치경제적 장애 제거가 우선 필요함.
  - 남북관계의 회복, 북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면 본격적인 개발원조 추진
- 민간지원단체의 역할
-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대북 식량지원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 지원식량의 분배상황 모니터링을 대행

표 6. 미국의 다양한 식량원조 프로그램

목적	P.L.480 I	P.L.480 II	P.L.480 III	Food for Progress	Food for Education & Child Nutrition	Section416
인도주의	굶주림, 영양실조, 그 요인 제거	기아, 긴급상황구호, (어린이, 산모)	굶주림, 영양실조, 그 요인 제거		산모, 영유아, 취약아동의 식량안보	P.L.480 II, III, Food for Progress
개발	농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속가능개발 촉진	경제사회개발, 환경보전정책 촉진	원조식량 판매를 통한 경제개발재원 마련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문맹퇴치, 기초교육 학업 프로그램 촉진 (여성)	P.L.480 II, III,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 참조
시장화 민주화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P.L.480 III,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 참조
수출시장 개발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사적 농기업 강화		P.L.480 II 참조
교역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P.L.480 III 참조
분쟁방지 <sup>2)</sup>	분쟁방지	분쟁방지	분쟁방지			

자료 : GAO, 2002. 6

## 6.2. 지원과 모니터링

-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는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 확보임.
  - 지원물자의 분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목적
    - 첫째, 현장조사는 당초 목표한 수혜자에게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둘째, 식량수급 상황과 취약계층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 셋째, 물자의 지원 효과를 평가해 물자지원 지속 여부와 물자지원 방법 전환 여부 등을 판단
  - 지원물자 분배 상황 현장조사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 지원물자 분배상황 조사 방법과 범위, 북한 당국의 보장 수준, 상설 사무소 설치 등
  - 한계
    - 식량지원의 반대급부로 WFP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조사활동 허용과 부가 서비스'를 남한이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협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내규, 안내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표 7. 2005년 이후 WFP의 대북 식량원조협약 사례

	합의물량 (톤)	수혜자 (백만명)	접근지역 (郡)	상주요원 (명)	한국계요원 허용 여부
2005(WFP)	504,000	6.4	158	40	no
2006-08(WFP)	150,000	1.9	50	10	no
2008 물량	730,000	7.1	156	75	yes
- WFP	630,000	6.2	131	59	
- 미국 NGOs	100,000	0.9	25	16	

자료 :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 6.3.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방향과 과제

- 중장기적으로 대북 농업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농업개발지원사업은 특정 지역과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는 등 전략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주된 목표를 설정한 후 거기에 맞는 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추진
  -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 나감.
  -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 남북 당국자 간 농업협력 협의 채널 복원 및 가동
  - 남북 간 농업협력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북한에 제시하고 적극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북한 당국이 수용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을 우선 추진
-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북한은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농정시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가 높음.
  -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치, 농업 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 등
- 패키지형 남북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
  - 접경지역이나 경제특구 인근 농촌지역에 남북공동영농단지를 조성
  - 이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가며,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

## 발표자료 2

## 대북지원 정책의 발전 과제

이종무<sup>1)</sup>

### 1. 문제 제기

#### 가. 대북지원의 공과

- 대북지원의 성과
  -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완화에 기여
  -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와 한반도 안정의 관리
  - 북한에 대한 설득력과 영향력의 형성
- 대북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 북한의 잘못된 행동의 용인과 국제원조 규범의 훼손
  - 원조 효과의 불투명성과 북한의 원조지대 추구(aid rent-seeking)

#### 나. 대북지원 정책 발전의 논의 배경<sup>2)</sup>

-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남.
-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숙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대북지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2) 이종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대북지원 분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2011년 9월 26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대북정책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p. 45.

## 2. 대북지원 정책 설계에서의 이론적 관점

### 가. 냉전적 원조 vs 탈냉전적 원조

#### □ 냉전적 원조 정책

- 냉전 시기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원조 정책이 대표적임.
- 냉전적 원조 정책의 목표는 정치, 군사적 동맹의 결성과 유지에 있으며, 원조 공여국은 강대국으로서 원조 수원국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함.
-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동맹국을 맺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예: 이집트) 원조 수원국이 양다리 외교를 통해 공여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음.
- 냉전적 원조 정책은 수원국 정부가 독재 정권인지 여부와 부패로 인한 원조 자금의 유출 문제를 도외시함.
  - 공여국의 입장에서 원조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는 정치 군사적 동맹의 유지 여부이고, 원조를 통한 사회 경제 발전 여부는 이차적인 문제임.
- 냉전적 원조는 공여국의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시기의 원조는 가장 대표적인 ‘피주기 원조’이고 ‘묻지 마 원조’라고 할 수 있음.

#### □ 탈냉전적 원조 정책

-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동맹 외교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원조 정책이 대두됨.
  - 탈냉전적 원조 정책의 원형은 냉전 시기 북유럽 국가들의 원조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원조 정책은 공여국의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발전하였음.
  - 빈곤 감축, 민주주의 발전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원조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탈냉전적 시기에 들어서면서 행정부의 원조 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 및 시민 사회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원국 정부가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수원국에 대한 원조는 큰 비판을 받게 됨.
- 탈냉전적 원조 정책에서는 원조의 선택성(aid selectivity),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원조 조정(aid coordination)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부적절한 양자지원은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점차 다자지원을 통한 원조가 강조되고 있음.

## 나. 권위주의 국가 vs 민주주의 국가

□ 탈냉전 시기의 원조 정책은 공여국이 권위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함.

### □ 권위주의 국가

- 권위주의 국가는 소수 지배 연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소수의 권력 카르텔에서만 동의를 구하면 됨.
- 행정부에 비해 의회 권한이 약하고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낮기 때문에 원조 정책의 투명성이 낮음.
- 원조 이념에 있어서 국가주의가 강하고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 □ 민주주의 국가

-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 지배 연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민사회의 발전도 많이 이뤄져 원조 정책의 투명성이 높음.
- 원조 이념에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원조 정책도 외교정책에서 점차 분리되어 독립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

### □ 대북지원에서의 사례

-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중국과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남.
-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계속 진행해서 금년 6월 초까지 약 22만 톤의 식량 지원을 완료했음. 반면 미국은 2. 29 합의에 의해 제공하기로 한 22만 톤의 영양식 지원 계획을 백지화하였음.
-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반된 정책을 취한 이유 중 하나가 공여국이 권위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것임.
  - 미국이 영양식 지원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조의 정치화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의 동의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
  - 중국과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확연하게 상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원칙에 충실하고 대북지원에서 명분과 실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잘 챙기고 있음.

### 3.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가. 대북지원에 대한 주요 논거들의 재검토

- 대북지원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상호주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국제 사회의 원칙 및 규범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임.
  - 대북지원에서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자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한 한국의 국가적 위신을 훼손하는 것임.
  - 대북지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공론 영역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임.
  
- 대북지원을 중단시켜서 북한 정권을 약화 또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
  - 전쟁불사론과 연결되는 전형적인 냉전논리로 합리적으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주장임.
  
- 대북지원의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도우려면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
  - 남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재민에 대한 지원은 피해 조사를 거쳐서 이뤄짐. 이와 마찬가지로 대북지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이왕 도와주려면 북한이 식량부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년간 화끈하게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 이른바 빅 푸시(big push)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규모 원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performance)가 매우 저조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빅 푸시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

-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이 설령 군용으로 전용되어 북한 군인이 먹게 되는 경우에도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무방함. 또는 군대에 식량이 전용된 만큼 북한 농민들의 군량미 공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발생한 당시의 논리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임.
  - 남한에서 지원한 물자가 북한 군대로 들어가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라고 말할 수 있음.
- 식량 차관은 무상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
  - 정상적인 국제금리가 적용되는 상업차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맞으나,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1% 금리의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속하는 양허성 차관임.
  - 대북 식량차관의 양허율은 75% 내외로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
- 외부 원조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 원조가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매우 취약한 것처럼 원조가 개혁개방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일반화하기 어려움.
  - 결국은 원조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이 달라질 것이고, 원조의 효과성이 증대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나. 탈냉전적·민주주의 원조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우리의 대북지원 정책은 탈냉전적·민주주의 원조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함.

## 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기본 개념<sup>3)</sup>

### □ 목적

-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해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범위

- 대북지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함.

### □ 의미

- 대북지원은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남과 북의 주민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핵심적 가치

-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여 수행함. 이는 긴급구호 또는 개발지원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규범임.

## 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 공동체의 원칙 및 기준 마련

### □ 대북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 대북지원 문제의 탈정치화와 실용주의적 정책 형성

### □ 대북지원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 □ 대북지원 활동의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

3)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행동규범 전문.

## 4. 대북지원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 가.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원칙·방식·절차·규모

#### □ 원칙

- 지원의 필요성, 투명성, 효과성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함.

#### □ 방식

-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
-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개발협력 차원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4)</sup>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방식을 준용하여 정부의 식량지원 채널을 국제기구와 국내 NGO로 이원화하여 추진함. 단, 이 경우 국내 NGO가 미국 NGO 수준의 분배 및 모니터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추진할 수 있음.<sup>5)</sup>

#### □ 절차

- 남북 고위급 대화 → 북한 현지에서의 식량 안보 평가 → 배분 및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북한과의 실무 협상 → 세계식량계획(WFP) 및 남한 NGO를 창구로 한 식량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원기구로부터의 보고 및 평가로 이어지는 지원 사이클을 구축하여 운영함.

#### □ 규모

- 식량안보 평가와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함.

### 나. 정부 지원물품(식량 등)의 분배 및 모니터링

- 남북 간 양자지원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의 필요에 대한 평가(Needs Assessment)<sup>6)</sup>, 분배 체계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4) 김영훈,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과 정부 식량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 제53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발표문(2012년 6월 21일), pp. 13~14.

5) 북민협이 지금과 같은 개별 단체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조정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조직, 정책, 집행역량을 갖춘다면 북민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같이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NGO가 모여서 별도의 한시적인 사업 추진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임.

6) 바람직한 조건과 현재 조건 사이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그 필요는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세계식량계획(WFP)의 필요평가(Needs Assessment)는, 첫째, 외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둘째, 식량지원이 적절한 것인지, 셋째, 개입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야 함. 개입의 범위

- Evaluation)가 이뤄져야 함.
- 필요평가는 피해자의 규모에 대한 추산, 부족량, 부족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함.
  - 모니터링 : 항구 및 창고, 식량공급소, 출구조사(수혜자 10명 당 1명의 무작위 인터뷰), 지역사회(배급 후 1~2주 사이), 상품 이동 및 통제시스템 모니터링)
  - 대규모 지원일 경우 지원단 사무소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임.

#### 다. 식량 차관 상환 문제

##### □ 북한의 반응

- 현재 상황은 남한의 차관 상환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해 무대응을 하고 있음.
- 북한의 최악의 반응은 식량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무상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차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북한은 상환 유예, 채무 일부 탕감, 지하자원 등의 대물 상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 국내에서의 식량 차관 상환에 대한 견해

- 차관 상환 요구
  -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입장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로 비쳐질 수 있음.
  - 상환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한 이후에 협상하자는 입장.
- 차관 상환 방식
  - 북한이 반응이 없는 경우 부채 탕감이나 상환 유예는 안 되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두자는 입장.
  - 북한이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상환 유예와 채무 탕감,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을 취하자는 입장.

---

는 필수적인 식량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역량(가계와 국가 자원)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됨. 이러한 것들은 식량의 확보 가능성, 접근성, 이용성, 위협에의 노출 정도를 고려한 식량안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함. 보다 자세한 것은 WFP, "Emergency Needs Assessment,"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Rome, 23-27 February 2004, Policy Issues Agenda item 4를 참조.

7) WFP, *Emergency Field Operations Pocketbook*, (Rome: WFP, 2002), pp. 123~138.

## □ 해결 방안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차관 상환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현재까지 차관 상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언론 보도 등에 유의해야 함.
-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한 이후 공식적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다뤄나가도록 함.
- 상환 유예를 기본 방안으로 하되 이후 보다 안정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함.
- 추후 식량 지원은 이전에 제공된 차관 상황에 대한 남북 협상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라. 양자, 다자, 다자적 양자 지원

### □ 다양한 원조의 방식의 결합

-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은 양자, 다자, 다자적 양자(multi-bi)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sup>8)</sup> 그동안 대북지원은 직접적인 양자 원조 방식에 치우쳐 있었음.
- 우리 정부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대부분은 지원국인 북한과 특정 분야 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성 양자 원조에 해당함.
- 그러나 통제 수준과 용도 지정 수준이 각기 다른데, 주로 WFP, WHO, UNICEF 등의 통상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통제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고, WHO 및 UNICEF의 영유아 지원 사업과 UNESCAP의 북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한 것은 통제 수준이 높은 편에 해당됨.

8) 다자원조는 첫째, 지원받는 기구의 모든 혹은 일부의 활동이 개발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회원국이 각국 정부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조직이거나,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기구이어야 하며, 셋째, 기여금이 기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개별 공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제기구가 그 정책 방향과 전략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다자 원조와 다자적 양자 원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여국이 제공한 자금의 통제수준(Control)과 용도 지정(Identity)이다. 공여국이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미지정 기여금(Core funding or Unearmarked Contribution)은 국제기구에 대한 정규예산에 편성되어 기구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용되므로 다자원조이다. 반면, 다자기관이 집행하지만 공여국이 수원국이나 지역, 지원분야 등의 조건을 지정한 기금의 경우, 다자성 양자 원조라고 하여 DAC 통계상 양자 원조로 계상된다. 다자기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다자성 양자 원조에 해당한다.

[http://www.odakorea.go.kr/oz/partner/04\\_02\\_01.jsp](http://www.odakorea.go.kr/oz/partner/04_02_01.jsp).

□ 개선 방안

- 대북지원에서 직접적 양자 지원과 다자성 양자 지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다자성 양자 지원에 대한 경시 때문에 우리 정부의 통제와 지정 수준이 매우 약했으나, 다자성 양자 방식을 앞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자성 양자 지원은 양자 간 협상에 기초하면서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것임. 따라서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 실행을 통해 보다 양질의 원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
- 특히 다자성 양자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인한 타격도 상대적으로 작음.

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부 방침

- 원칙 : 민간단체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북지원 활동을 보장함.
- 방향 : 지원활동 관련 법 규정을 ‘규제법’ 성격에서 ‘촉진법’ 성격의 내용으로 전환함.
- 지원제도 :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냉정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바. 정치군사적 사건 발생 시 인도적 지원 문제<sup>9)</sup>

- 원칙 : 첫째,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에 대한 방침의 분리, 둘째, 정부 대응 조치의 세분화.
- 재개 : 재개의 조건(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 등), 재개 시 지원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9) 이종무, “대북지원 논리의 재검토와 정책발전의 과제,”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12년 6월 14일), 『급변하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발전: 6.15 남북정상회담 12년의 성과와 실천 과제』, pp. 83~84.

### 주요 토론 내용

- ▶ **권태진:** 현재는 남북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대북지원의 틀이 방향 전환을 모색하던 중 남북관계가 생각되면서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기존의 사업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커다란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6.28방침이 발표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틀, 협력 추진 방식도 이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협력에서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통일부에서는 하반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 **박용주:** 현재 많은 관련 국가들이 대선정국이기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상황을 주시하는 정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부에서는 최근 통일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 ▶ **이종무:** 최근 대북지원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부가 대북지원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 물자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말에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일부가 반출을 허용한 민간단체의 지원물자가 남포에 도착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권태진:** 금년 하반기에도 별로 기대할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금방 변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세를 타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정상급 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타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쌀 30만 톤 정도를 지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올해 2월까지 중국 쌀 22만 톤이 북한에 지원됐다는 소리는 이종무 소장님을 통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쌀값이 급격히 상승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양과 지방의 쌀값 격차가 1kg당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요즘에는 다시 역전이 돼서 접경지대는 상대적으로 싸고 평양은 쌀 가격이 폭등해서 kg당 5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O에 의하면 극심한 기쁨으로 인하여 당초 50만 톤으로 기대했던 북한의 이모작 생산량이 20만 톤 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 작물인 옥수수 또한 큰 피해를 입어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곳도 꽤 많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경제관리체제 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이미 당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끝났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변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중국 위안화를 구매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이 움직이다 보니 북한 원화가 폭락하고 덩달아 물건 값은 폭등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WFP가 발표한 수치상으로도 북한의 작황이 나쁘지 않았으며 더구나 중국의 식량지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올해 초부터 황해도, 평안남도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은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식량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숫자가 크던 작던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 북한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 핵문제 등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해가 바뀌면 김정은으로서도 집권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것도 있고 해서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이고 준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할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 ▶ **이석:** 우리나라는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세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도주의(긴급구호)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이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지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세번째인 남북관계 관리차원의 지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장관급회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개최하기 위해 그에 대

한 대가로 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발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남북관계 관리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데 있어 북측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쌀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니터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쌀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박관념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남북관계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쌀 지원의 경우 굳이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는 논쟁적입니다. 다시 인도적 지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도적 지원은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단 개발지원의 경우에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식량지원을 실시할 때 조건이 매우 명확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매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종무 소장님의 글을 잘 읽었는데 여기서 단 한가지 핵심은 5.24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24조치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물론 5.24 조치를 풀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변화가 있을지, 만일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입니다. 이를 우회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 ▶ **권태진:** 5.24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건 맞는데 방법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할지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석 박사님이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해주셨는데 이석 박사님께서 주장한 이러한 분류는 기존에 없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29합의에 의해 24만 톤의 영양지원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사실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둘러싸고 굉장히 길게 북한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왜 식량지원이 아닌 영양지원이라고 했으며 모니터링에 있어 그 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24시간 전에 알리기만 하면 어떤 곳이라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 등 지금까지 모니터링에 대해 미국이 원하던 것을 다 요구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적 지원 시 확보되어야 할 수준의 모니터링을 북측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즉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자체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

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USAID 담당자를 만나 “미국은 대북지원에 있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목적이 없는 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인도주의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만을 강조하더라도 숨겨져 있는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류를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이석:** 권태진 박사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쌀을 지원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자, 선진국이고 내부에 지원과 관련한 정교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북한에 쌀 지원한다고 하면 내부적 프로세스 때문에 쉽게 주지 못합니다. 인도적 프로세스가 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어쨌든 포장에 인도주의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공여국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수여국은 공여국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북관계로 넘어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남한이 북한에 쌀을 주는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에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내부적 지원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관리라는 정치적 목적인데 불구하고 말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며 모니터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종무:** 쟁점은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분배 투명성 등을 관철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수준 정도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북지원이 중단된 이후 다시 대북지원을 시작하게 될 때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 간의 현안들인 핵문제, 군사문제, 경협문제, 이산가족 문제, 대북지원 문제들을 상호 연계시키지 않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영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도 그것에 따라야 하니까,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편의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우리의 내부적 프로세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김영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 박사님 말씀대로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은 대부분 정치적입니다. 남북, 북미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정치관계에 의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종잡을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치에서 탈피하여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프로그램, 법,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북한에게 이런 프로그램, 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통일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경색국면이나 5.24 조치를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를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한 후 협력을 시작할 것인지 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에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는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용환:** 저는 특별한 명분 없이 이번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 맞게 되는 변화를 북한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대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을 한번 거쳐가는 것도 남북관계 발전 단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식량 차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진 힘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24조치 또한 정상 회담정도의 빅 이벤트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 정권에서는 힘들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1,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석 박사님 말씀대로 5.24조치는 살아 있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초기에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중소기업, 혹은 개인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빅 프로젝트

를 만들어서 조건부 지원을 하며 북한을 이끄는 것과 야금야금 조금씩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에 있어서는 민간, 변경무역, 보따리 장사들의 힘이 어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빅 프로젝트 역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북한의 변화를 외부의 프로그램만으로 추동하기 힘들겠지만 거칠게나마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이석:** 저의 의견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 모니터링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량지원이니 다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5.24조치를 정치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지원이 가는 게 맞다면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5.24조치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다자적 지원인데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년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 우리가 WFP, FAO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영유아 지원 등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채널을 넓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영훈:**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딱 막혀 있는 것을 푸는 건 정치이지만 정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딱 막힌 상황을 만드는 것이 또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정치적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실무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과 관련 법규를 만든다면 이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북한 또한 우리를 대하는 행동규범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북 협력 정책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무:** 식량지원에서 긴급구호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모니터링을 확고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거래의 성격을 갖는 지원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시장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원한 식량을 북한이 시장에서 팔고 그 거래 대금을 독립적 계정에 적립해서 남북 간 합의한 사업에 쓰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화지원 프로그램은 모니터링이 수반하지 않는 것

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인데 거부감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판매대금을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사용되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혁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협동농장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어디서나 그 성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농장의 개혁을 전제로 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있게 되면 협동농장은 좀 더 안심하고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협동농장의 개혁의 단계를 세부화 시키고, 각각의 단계에 맞게 식량 및 농자재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24 조치는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단체, 지자체의 지원을 완전히 풀어주는 한편 다자적 양자(multi-bi)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는 UN과 한국의 MOU를 이유로 유엔기구와의 신뢰문제로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경협 및 교역에 대한 제제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24 조치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한 다음 남북대화가 재개될 즈음에 공식적으로 해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 **박희명:** 524조치와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은 박용환 박사님처럼 현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농어촌공사는 노무현 정부때까지만 해도 북한 연구실이 있어 농촌지역개발, 생활환경수준 개선 부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연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민간단체들과 같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우선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법 등이 없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4-5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남북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힘들어도 가야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훨씬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공사와 같은 실무 단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 **신선호:** 5.24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정부, 민간 차원의 모든 교류가 끊기는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북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우리의 사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위주로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북한의 수용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과 같이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농업분야의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면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속가능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정부 혼자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민간교류까지 중단된 상태지만, 민간차원의 사업이 활발해지면 수용성이 높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사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남북간 농업교류가 활발해지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초반에는 출혈이 크긴 하겠지만 농업분야는 100년 먹을 거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24조치를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남남갈등이 더 커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권태진:** 사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각 부처와의 관계를 잘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산하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큼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대북사업을 위하여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부처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용주:** 권태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측의 수용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때 미국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남측의 프

로그래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지원에 있어 이석 박사님 의견과 같이 이를 국민들에게 오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북한의 농촌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며 역할분담을 하여 그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권태진:** 대북 지원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특수성입니다. 이 특수성 때문에 ODA 틀 속에서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당분간은 분리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ODA와 분리시켜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무 소장님께서서는 정치적 목적의 대북 물자 지원 시 시장화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형태의 지원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와 방법만 분명하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모니터링이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제규범보다는 완화된 틀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최용환:** 식량이나 인도지원 모니터링의 경우는 오히려 지원 조건을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발지원의 경우입니다. 제3세계 개발지원의 경험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국가에 양질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이 존재하면,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아도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개발지원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조건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의 거버넌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반도에 적용시킨다면 북한의 경우는 개발지원이 성공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비록 효과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이종무:** 대북지원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지원에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패배주

의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는 모니터링이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지원의 경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화지원 프로그램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협력 지원의 경우에는 수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일럿 개념에서 시작해서 작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개혁에 나서게 되면 본격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지원 목적에 따라 거기에 따른 원칙, 추진 절차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석:** 우선 대북 지원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대북 지원은 민족적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ODA를 제공함으로써 추구하는 목적과 북한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규칙을 후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큼은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적용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논쟁적이라는 점입니다.
- ▶ **권태진:** 국제적인 규범에 의하면 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관계보다는 오히려 내부적 갈등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 ▶ **김경미:** 원조를 하는 이유가 원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원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측에서는 물자지원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이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남북협력이나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분단에서 멀어질수록 남한에 살고 있는 나에게 가져다줄 이해득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북사업을 둘러싼 내부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또는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행위자끼리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남북협력이라고 봅니다.

- ▣ 권태진: 오늘 토론에서는 식량문제를 포함한 농업분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게 결론지은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논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 얘기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나왔던 이야기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통일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김영훈 박사님, 이종무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 2012년 특별기획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경상남도의 사례-



##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경상남도의 사례-

황재성<sup>1)</sup>

### 1. 들어가며

1999년 1월, 제주도의 대북 감귤 지원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덧 13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10년 초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사업 초기 단순 물자지원에서 다년도의 개발 협력사업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교류협력 분야 역시 농업, 축산, 보건의료,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사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NGO에 비해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였고, 법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NGO에 비해 풍부한 재원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이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고, 오늘날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남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원사업팀 부장. jaesung.hwang@gmail.com

2) 1999년 10월 27일 제정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를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 주민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그간 6번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9년 9월 21일 개정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또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사업 추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09년 개정 당시 ‘대북지원사업자’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사업 추진 조항이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북교류협력사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향후 남북협력사업이 다시금 재개될 때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북지원의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의 유형과 방법 등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장기의 로드맵과 발전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가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경상남도의 사례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농업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농업 협력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상남도가 진행한 농업협력사업의 진행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배경

### 가. 북한의 농업 현황 : 식량난과 농업위기

현재 북한의 농업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지난 30년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5년 심각한 자연 재해로 인해 악화된 북한의 식량 상황은 거의 2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농자재 공급의 부족과 농업기반의 낙후는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농업생산을 증대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 하에서 ‘농업의 집단화’를 기조로 하는 농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3)</sup> 당의 통제 하에서 내각의 농업성이 각 시도별로 농촌 경리위원회와 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의 90%는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농장들은 경작지의 운영 형태에

3) 북한은 농촌지역의 김일성동지력명사상연구실을 거점으로 당 조직의 지도하에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진행하였고, 김일성은 일찍이 “농민들을 다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522.

따라 국가의 소유에 기초한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 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그리고 협동적 소유의 협동농장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농업 거점 단위는 군<sup>4)</sup>이지만, 실질적으로 리단위 협동농장이 북한의 농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단위라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약 3,300개소<sup>6)</sup>의 협동농장이 있으며, 각 농장은 평균 300호의 농가로 구성되어 약 500ha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농장 내에는 5~10개의 작업반이 있고, 각 작업반은 50~100명의 농장원이 배속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반은 다시 3~4개 분조로 구성되며, 분조당 15~20명의 소속되어 있다. 각 작업반은 대체로 단일 부분에 종사하며, 생산을 담당하는 작물에 따라 곡물반, 야채반, 과수반, 공예작물반 등으로 구분된다.<sup>7)</sup>

북한은 1970년대부터 밀식재배 방식인 ‘주체농법’을 통해 경지면적 대비 생산량 증대를 추구해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연개조정책을 추진하여 무리하게 관개면적과 경지면적을 증가시켜왔다. 이는 결국 농지의 지역 약화와 함께 수해 등에 쉽게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 사회주의의 특징인 농업의 집단화는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면서 북한의 주체농법은 식량생산량의 측면에서 사실상 실패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농업 정책의 실패와 함께 탈냉전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로 대표되는 심각한 기근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sup>8)</sup>

북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농법의 과학화’, 우수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자의 증식과 보급의 ‘종자혁명’, 이모작의 확대, 분조관리제의 개선<sup>9)</sup>

4) 『김일성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44.

5)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군을 지역적 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리는 말단행정구역단위이다. 이러한 리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으로 불합리하다. 규모가 너무 작다.” 『우리나라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485.

6) 1965년도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협동농장이 3,800여개, 국영농목장이 190여개로, 협동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협동농장의 형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적고 있다.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p. 479.

그러나 북한의 협동농장은 리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2011년 12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행정구역상 리는 총 3,230여개로 약 3,300여개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7) 김운근, “북한의 농업현황”, 북한경제연구포럼편, 『남북한 경제통합론』(서울: 오름, 1999), p. 57.

8) 통일연구원, 『2007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53.

9) 1965년 5월 김일성의 지시로 1966년부터 모든 협동농장에서 실시된 농업관리운영방식이다. 노동의 성과에 따라 분배에 차이를 두는 기초적인 성과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였고,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여 유통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2004년에 들어서는 외부의 원조를 통해 협동농장내에 실험적으로 개인 영농제를 실시하기도 했다.<sup>10)</sup>

## 나. 남북농업협력 개관

현재 북한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업생산력을 높여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북한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너진 농업 인프라를 재건하고, 농업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스스로 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지원, 특히 남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남북 농업협력 및 식량지원은 탈냉전시기 북한의 농업여건이 악화되고 심각한 기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식량 지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초기의 지원과 협력은 주로 민간단체들 위주의 사업이었으나 점차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남한 정부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위기 상황이 그 정점에 다다랐던 1995년부터 공식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비공식 지원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매년 40만 톤의 식량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중후반까지 시급한 식량과 구호물품 위주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농업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영농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양, 농기계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면서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대규모의 비료지원을 시작하여 연간 20~30만 톤의 비료를 제공하는 한편, FAO와 UNDP를 통해서도 농업시설과 영농자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비료지원 및 농자재 지원은 북한의 식량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이 적극 추진 중이던 이모작 및 감자농사 확대 등 농업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농자재의 지원은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변화에도 일정부분

초로 실시된 주체적 농업관리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리복희 편, 『협동농장관리운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 140.

10) 이금순·권태진·김수암·이종무·황나미, 『대북지원10년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민간정책협의회, 2005), p. 98. ; 김성민, “북한의 식량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의 정책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제38권 3호 (2004), p. 68.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 북한은 농업정책의 변화를 피하면서 북한의 협동농장 내외부에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려하였으나, 농자재 부족 현상으로 인해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남한정부의 농자재 지원은 북한의 농업관리체계내 일정 부분 경쟁의식을 키우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sup>11)</sup>

2005년 6월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열린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남과 북이 북한 지역내 협동농장을 시범협력농장으로 선정하고 농업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남북은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을 교류하고, 종자의 생산 및 처리 지원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다. 그밖에도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전시킬 것,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에 함께 협력할 것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다. 이렇게 정부차원의 남북농업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의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3.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

#### 가.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9년이지만, 초창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인도적인 차원의 단순 물자지원에 그쳤다.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 있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시도된다. 지자체의 대북 농업 지원사업은 2003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이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경상남도는 2005년 4월 7일 도의회 제226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sup>12)</sup>함으로써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7번째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1) 위의 책, p. 122.

12) 경상남도내 기초지자체중 자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양산시(2009. 03. 04 조례 제 639호)가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2.7.2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북한 연구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 경상남도내 각계 인사 30여 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함께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하였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농수산 분야와 농기계 분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던 경상남도는 같은 해 11월 금강산 북고성군의 채소 및 양돈장 등을 방문하면서 북고성군을 농업협력사업 유력한 대상지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북고성군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게 된다.

한편 2005년 9월 25일, 경남지역의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통일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풀뿌리 NGO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이하 경통협)가 창립되었다. 경통협은 2004년 밀양육묘연합회 회원들이 북한 고추모종보내기운동을 통해 모인 경남지역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농업전문의 순수 민간단체로<sup>13)</sup> 경상남도에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제안한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내 지역 기반을 둔 경통협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사업 초기 안정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대북인도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던 중앙 NGO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대북 협상 창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에 2005년 11월 5일,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합의한다. 이 합의는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단순 농업물자 지원을 넘어서, 협동농장 단위에서 본격적인 개발지원 성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경상남도는 2006년 1월 11일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당시 이주영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정덕기 북한 민화협 부회장, 그리고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 북한-지자체-NGO가 공동 서명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3) 최대석·이종무·박희진·강승희,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서울: 통일부, 2009), p. 107.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06년부터 벼육묘공장 건설, 농기계협력사업, 남새(채소)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딸기묘 생산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남과 북이 공동 추진하며, 둘째, 북측은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부지를 제공하고, 지원 물자의 통관과 관련인사의 방문 및 각종편의를 보장키로 한다. 세 번째로, 남과 북은 북측 평양시 강남군 지역의 협동농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향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근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속합의서에서는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딸기묘 생산사업과 관련하여 남측에서 무바이러스 딸기묘 생산을 위해 벼육묘공장을 이용하여 재배할 경우, 북측에서 생산된 딸기묘를 남측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항은 추후 북한 현지에서 생산된 딸기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업 초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창구 역할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결산 보고를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는 경통협이 실질적인 대북 협상 창구 및 사업 실행과 기금 집행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협력 체계는 지자체와 중앙NGO, 그리고 지역 기반의 풀뿌리 NGO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나.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 경과

2006년부터 경상남도는 장교리협동농장에서 본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강남군 장교리는 행정구역상 평양특별시에 속한다.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강남군은 2010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잠시 황해북도에 편입되었으나, 2011년 다시 평양시로 편입된 바 있다.<sup>14)</sup> 강남군은 군소재지인 강남읍과 18개 리(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는 69,279명<sup>15)</sup>이다. 강남군에는 18개 협동농장이 있으며, 이밖에 각 1개 광산(석호리 백운광산), 양어장(마정리), 고치농장과 수산협동조합(유포리), 시멘트공장(용곡리), 건재공장(동정리), 자동차부품공장(고읍리) 등이 있다.<sup>16)</sup>

14)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 『연합뉴스』, 2012년 2월 29일.

15) 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p. 22.

16) 북한지역정보넷 <www.cybernk.net> (검색일: 2012.7.20.)

장교리의 전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640ha(192만평)로, 이중 농경지는 390ha(117만평)이다. 장교리 전체 주민은 932세대, 3,728여명으로, 이중 협동농장에는 490세대,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교리협동농장은 12개 작업반(벼농사 7, 채소 3, 축산 1, 기계화 1)을 두고 있다. 협동농장내 각 가구가 개별적으로 경작하여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텃밭은 평균 20~30㎡ 규모로 주로 마늘을 재배하며, 일부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있다.<sup>17)</sup>

경상남도가 장교리협동농장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던 2005년 말은 남측의 지자체와 여러 NGO들이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와 남측의 NGO들은 협동농장에서의 농업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 역시 그간 농업과학원 및 여러 지역의 시험 포전에서 소규모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남측 방식의 농법을 실제 협동농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협동농장에서의 농업협력사업 및 다양한 협력사업들에 대한 협의는 급진전을 맞게 된다.

2006년과 2007년 북한은 남측과 진행하던 상당수의 협력사업을 강남군에 집중한다. 이는 남측의 사업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6년부터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장교리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였고,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곡리에서 농업협력사업을 비롯한 농촌현대화사업을, NGO인 어린이어깨동무(당시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굿네이버스는 장교리에서 각각 인민병원과 탁아소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강남군의 읍 소재지인 강남읍에서는 나눔인터네셔널이 강남군 인민병원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장교리협동농장을 매개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되, 남측의 선진농업기술을 북측에 전수하는 한편 농업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

2006년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에 7회에 걸쳐 총 9억 3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하였다. 먼저 133ha(40만평) 규모의 남북 공동

17) 2006년 3월 4일 부터 7일까지 방북시 이현철 장교리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장교리협동농장의 현황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료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약간의 이견이 있다. 경통협은 장교리 전체 면적을 826ha(250만평), 농경지 면적은 462~528ha(140~160만평), 전체주민수는 700세대에 3,000명, 협동농장 주민수는 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 상토 등 각종 농자재와 함께 이앙기 250대, 경운기 5대, 트랙터 2대, 바인더 15대, 탈곡기 3대, 농약분사기 7대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벼 육묘 및 딸기 모종을 재배할 수 있는 육묘공장(3연동, 1,983㎡, 600평)과 채소비닐온실(7,000㎡, 2,000평)을 건립하였다. 특히 경통협은 2006년 한 해 동안 총 14회에 걸쳐 60명의 농사 경험이 풍부한 자체 인력을 현장에 수시로 방문시켜 남북 공동 벼농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육묘공장에서 딸기 모종을 생산하며, 비닐온실에서 각종 채소를 재배함으로써 남측의 농업기술과 농법을 전수하였다.<sup>18)</sup>

2006년 당시 장교리는 벼물바구미<sup>19)</sup>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경통협의 농업기술 지도와 농약 지원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장교리협동농장의 주민들은 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의 채소를 평양시 통일거리 '남새시장'에 판매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해 작물 재배에 임하였다. 딸기 모종의 경우 처음 모종을 육묘하는 북측 재배 인력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50%정도의 손실을 보였으나, 방북 인력의 현지 기술 지도로 북측은 곧 재배 기술을 습득하였다.<sup>20)</sup>

벼농사와 관련하여 장교리협동농장에서는 평도 15호<sup>21)</sup>, 서해찰벼를 각각 20~30% 정도씩 심고, 이외에 면적에 평양 43호 및 기타 품종을 재배하였다. 경통협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가을 남북 공동 벼농사 경작 부지 132ha에서 530톤의 쌀을 수확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증산된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소온실(1ha)에서 재배한 시설채소의 수익이 전체 390ha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과 경통협은 2006년 1월 11일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장교리협동농장에서 재배한 딸기모종 1만주를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경상남도내 농가에서 재배케 하는 새로운 농업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경상남도는 이렇게 생산된 딸기를 '경남통일딸기'라 이름 붙였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딸기 모종을 대체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201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북에서 재배된 딸기 모종을

18) 김진근,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 2006), p. 16.

19) 북한에서는 '벼 코끼리'라 부른다.

20) 2006년 4월과 7월의 방북보고서.

21) 평도 15호는 중간 육종으로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삭이 나오는 품종으로 남한 품종으로 조생종인 오대벼보다 추수시기가 늦다.

국내로 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경남통일딸기 모종의 국내 반입은 경남 농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며 호혜적 성격의 남북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매우 활발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탄치 못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10월 제 1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된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이 전면 보류되었고, 도의회에서도 기금 전액이 삭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다행히 지역 언론과 여론에 힘입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추정예산이 확보되었고, 2007년 초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맞게 되면서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2007년 2월 북한이 통일딸기 2만 5천주와 장교리협동농장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생산한 쌀 1톤을 남측에 보내왔고, 같은 해 4월 97명의 경상남도 방북 대표단이 김해-평양 직항로로 북한을 방문다.

2007년 경상남도는 200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한 264ha(약 80만평)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온실 10동을 신축하는 한편 13,300m<sup>2</sup> 규모의 농기계 보관 창고 1동과 함께 벼파종기 1대, 관리기 2대, 육묘상자 12,000개, 상토 5,260포(40L), 비료 6,620포(50L) 등의 농기자재와 플라타너스 등 나무 묘목 5,000주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6억 원 상당의 퇴비사와 관리사 등 농업용 시설 건립과 트랙터, 콤파인 등 농기계 지원사업도 병행하였다. 이 밖에 농업협력사업은 아니지만 2007년 수해피해를 입은 농장원들의 살림집 복구사업지원에도 나서, 20가구분의 복구 건설자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8년 경상남도 농업협력사업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상남도의 북한측 파트너인 민화협으로부터 장교리협동농장 사업을 정리하고 평양시 삼석구역 삼석리에 위치한 국영농장인 삼석농장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는다.<sup>22)</sup>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경남통일딸기 모종의 재배를 삼석농장에서 진행키로 한다.

이시기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거창군이 경통협을 통해 평양시 삼석농장에 거창 사과나무를 심어 '키낮은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

22) 이시기 북한은 지역 협동농장에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2007년 12월부터 협동농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남측단체들에 더 이상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온다. 이는 비단 민화협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2008년 1월 민경련을 파트너로 하였던 월드비전 역시 평양시 중화군 협동농장 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시 2008년 1월 당곡리 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진하였다.<sup>23)</sup> 이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광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보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sup>24)</sup>

한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을 맞게 되고,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예정되었던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과 콩우유 공장 착공식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북에서 반입된 딸기묘 5만주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딸기묘는 2008년 4월 15일 경상남도에서 무균 배양된 모주 6,000주를 삼석농장에서 육묘한 딸기묘로, 같은 해 9월 1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으나, 검역과정에서 담배괴저바이러스(Tabacco necrosis virus)가 발생되어 전량 폐기된다.

2009년 경상남도는 삼석농장에서 다시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국영농장인 천동농장으로 사업대상지를 이전하여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는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통일딸기사업을 위한 모종은 적기에 북한 현지로 반출되어 식재되었고, 국내 반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10만주의 모종이 국내로 반입되었다.

한편 천동농장에는 경남통일딸기 모종 재배를 위한 육묘장용 하우스 5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고, 과수원 조성사업(사과 3.5ha, 배 1ha), 오이, 고추, 토마토 등 남새온실조성사업(하우스 10동, 0.8ha 정도) 등 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로 인해 현지 농장에서의 모니터링 활동과 기술이전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과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5·24 조치,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총 1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중 경남통일딸기사업과 시설 채소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만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남통일딸기사업은 확대되어 역대 최고수량인 15만주를 국내에 반입하여 농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역시 현지에서의 기술

23) 거창군은 총 3ha에 부사, 홍로, 시나노트위스트 등 3개 품종, 총 4,400주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24) 최대석 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p. 109.

25) 조병욱,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남북농업 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77.

이전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4. 경상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성과

지자체는 독일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통합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sup>26)</sup> 그간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대북농업지원 분야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경상남도의 남북농업협력사업에서의 성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와 지역 기반의 풀뿌리NGO, 그리고 중앙NGO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는 경상남도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되던 2005년과 2006년 사업 초기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사업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지역 기반의 풀뿌리 NGO는 전문 농업 역량을, 그리고 중앙 NGO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협상 창구로서 협상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북측과의 협의 채널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막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사를 북한의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그러한 의사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할 있는 안정적인 통로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자칫 사업의 추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북측과 얼마만큼 안정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느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남도는 사업 초기 오랜 대북지원사업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협상력을 갖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구로 북한과의 접촉 및 협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는 단기간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26)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07년 8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07) p. 3.

한편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풀뿌리 NGO는 실제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이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2006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경통협은 북한의 협상창구인 민화협과 실제 사업지역인 장교리협동농장과 신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통협은 2007년 이후 경상남도의 민간 파트너로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지자체-지역 기반의 풀뿌리NGO-중앙NGO의 3자간 협력 모델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타 지자체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둘째, 북한 농업의 기본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에서 북의 현실에 맞는 다년도 농업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먼저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실질적인 증산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북한의 단위 정보당 생산량은 3.2톤 정도로 남한의 단위 정보당 생산량 4.9톤에 비해 약 65% 정도 수준이었다.<sup>27)</sup> 2006년 장교리협동농장은 1ha당 4톤의 쌀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2005년 장교리협동농장의 쌀 생산량이 북한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1ha당 3.2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의 증산을 거둔 것이다.<sup>28)</sup> 아울러 남새(채소) 온실 재배 기술 이전을 통해 사계절 채소 공급을 가능케 하였고, 잉여 시설채소를 평양 통일거리 남새상점 및 호텔 등에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남측의 농지자재 지원이 증산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기자재 지원을 넘어서서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농업 및 경영 관리 기술 이전 역시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협동농장 농장원들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통협 소속의 전문 농업인들은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과정에서 현지 농장원들의 남측 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거부감과 배타적인 태도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유사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던 타 지자체의 경우 전문 농업인 보다는 해당 지자체 산하의 농업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농업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는데, 북한 현지 농장원들은 이를 다소 어렵게 느끼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연구자들은 농업 기술지도 과정에서 북한 농장원들

27) 통계청, “농업 생산성 지표,” (<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2.7.20.)

28) 경통협 제공 자료 재구성.

에게 1a 당 200g의 비료를 살포하라는 식의 설명을 한다면, 전문 농업인들은 1ha 당 한포씩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현지 농장원들의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농업인의 입장에서 서로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북 현지 농장원들과 단기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기술 지도와 농업 기술 이전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량 증산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은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흔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로 꼽는 화해와 협력, 평화 증진 등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앞에서 지원되는 대북지원 만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즉 북한은 대북지원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반면 남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이익과 비교하여 매우 추상적인 형태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업 모델을 가시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남통일딸기 모종생산사업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남북협력사업이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있어 일방적인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특히 남한에서 생산한 딸기 모주를 북한에 보내 북한 협동농장에서 이를 배양하고,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농업협력사업의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05년까지 북한은 리단위 협동농장의 공개를 꺼려왔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평양 등 대도시를 벗어나 북한 내부의 현실을 투영하는 농촌지역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또한 남북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남측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협력사업의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 농촌지역, 특히 리단위 협동농장에서의 사업은 매력적인 것이었다.

경상남도과 경통협은 3년간 장교리협동농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경통협은 방북 시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자 지원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상남도가 남북협력 사업에서 추구하는 공개성·투명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협력사업 모니터

29) 최대석 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p. 213.

링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에 지원된 식량 등의 물품에 대한 군사적 전용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가운데에서, 경상남도가 지원한 물품들이 사용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 5. 결론 : 한계와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남도는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있어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계점과 과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이는 경상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며 중앙 정부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남북간 중앙 정부 차원의 경색 국면에서도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상남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위기 발생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면 보류 및 기금 지원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지자체 수준에서의 확고한 '정경분리원칙'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경상남도는 그간의 남북농업협력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농업협력과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확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농업기술 이전과 함께 종자, 비료·농약, 및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협동농장의 기본적인 생산성을 유지·확대해 왔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기계와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종자 증식 및 보급체계 강화 등 북한이 농업분야의 자립적 기반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 남북농업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북 개발지원 모델의 개발은 앞으로 재개될 남북농업협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그간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공유하면서, 상호 경쟁보다는 사업 및 지원 대상 분야와 지원을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및 기업의 역할을 설정하고 협력 방향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개발지원이 재개되면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곡물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대를 통해 다른 협동농장과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있어 남측과의 협력

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측면에서 남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북한을 설득하면서 북한 협동농장의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리더십 협동농장 사업 중단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농업협력 및 농촌현대화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남측의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농업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에 대한 북한 내부의 역작용이 나타났다. 남측의 지원을 받은 협동농장과 그렇지 않은 협동농장 간의 격차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발생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측과의 농업협력에 대한 속도를 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개발로의 확대 없이 단순한 인도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대외관계 제한은 농업자재, 기술, 생산, 관리 등 모든 농업발전분야에 있어 그 한계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북한은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농업협력사업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북한농업생산력 복구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가능한 인적교류를 적게 유발하는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물적 지원을 선호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발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상남도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담부서의 신설이다. 현재 경상남도는 자치행정과내 1명의 담당자만을 두고 대부분의 사업 추진을 NGO인 경통협에 의존하고 있다. 유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1개 과 체제를,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1개 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내 전문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두고 있다. 농업사업의 경우 경남농업기술원이 몇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토양조사나 수질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나, 사

업에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과거의 답습이 아닌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접촉이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접촉의 전략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다시금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접촉하고 협력할 것 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초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일지(2004~2006년)

일 자		주요 내용
2004	11. 3~5	금강산 남북농업협력세미나 참석
	3. 6~8.	금강산 북고성 남새 및 양돈장 방문 (29명) - 패화석 비료 공급 협의
	4. 7.	남·북 교류협력조례 제정(조례 제3092호) - 조례: 목적, 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 설치 - 규칙: 기금 및 위원회 세부사항을 규정
2005	7. 12.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8. 12.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 회의 개최 - 기금 조성 협의(2년간 20억, 도·시·군 참여)
	11. 5~8	농업협력사업 협의 방북(평양) -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 농업사업 협의 및 현지 부지 선정 및 확인 작업 진행
	11.21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1. 11.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개성 자남산 려관)
	1. 23.	2006년 남북농업협력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 (경상남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6	1. 21.~24.	농업협력사업 협의 방북(평양) -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 현지 부지 선정 작업 및 세부 계획 협의 <sup>30)</sup>
	4. 5.~8.	경상남도 대표단 방북(평양) - 이양기 250대 전달식 및 장교리 벼 육묘장 준공식 행사
	10. 19.	북측 현지 생산 딸기묘종 1만주 남측 반입

자료 : 저자 직접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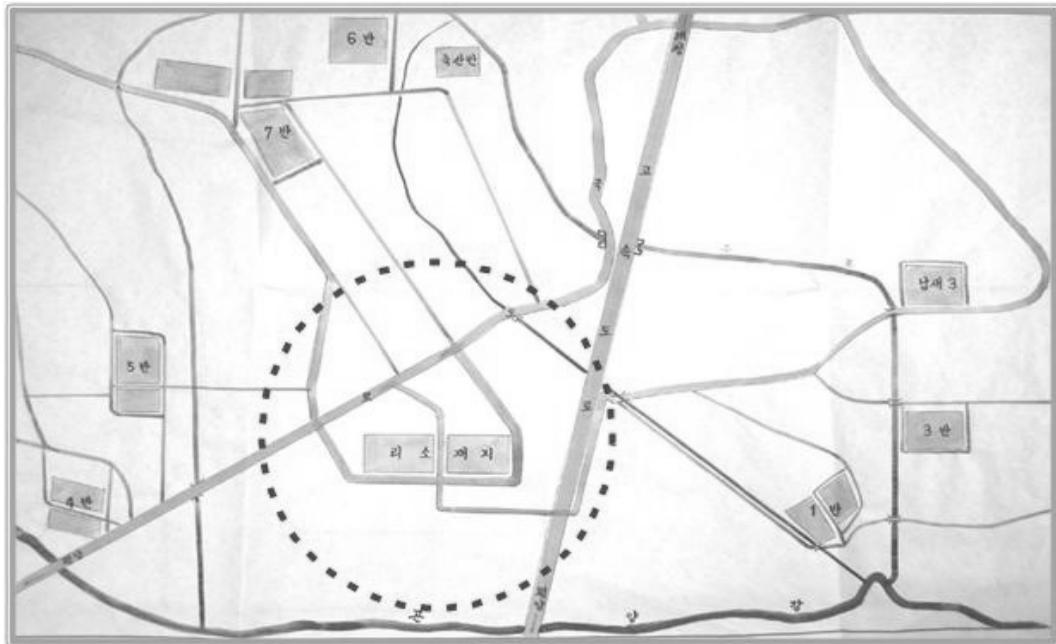
30) 이 방북을 시작으로 경상남도와 경통협은 2006년 1년간 총 14회에 걸쳐 60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육묘 기술 이전 등의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한다.

표 2. 장교리 기본현황

사업대상지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
전체면적	640ha (192만평, 여의도의 약 2.2배)
농경지	390ha (논농사 320ha, 채소 60ha, 과수 10ha) ※ 축산 면적 제외
리전체주민수	932세대, 3,728명
협동농장주민수	490세대, 1,300명
협동농장 구성	12개 작업반(벼농사 7, 채소 3, 축산 1, 기계화 1)
자연조건	강수량 : 연 1500mm 최저온도 : 영하 24도 ※ 12월 -1월 사이의 최저온도는 평균 영하 15내외
토양 조건	토양은 석회암 지대로 약산성(PH 7.3)을 띠고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위치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부근, 개성 방향 고속도로변에 인접

자료 : 저자직접작성

그림 1. 장교리협동농장 사업 부지도 및 작업반 배치도



자료 : 장교리협동농장 제공 (2006년)

표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

연도	사업내용	금액 (백만원)	관련 민간단체
2005	·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식량증산, 기술 교류	105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본부
2006	· 벼 육묘장 및 시설채소 온실 건립 · 벼 육묘사업(133ha) · 농기자재 지원 및 경남 통일딸기 사업	932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2007	· 남북 공동 벼농사 및 시설채소 온실 지원 · 농기자재 지원 및 경남 통일딸기 사업	988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2008	· 남북 공동 벼농사 및 시설채소 온실 지원 · 과수원 조성 · 수해 피해 복구자재 지원 등	836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2009	· 경남 통일딸기 사업 및 과수원 조성 · 시설채소 온실 지원 · 병원환경개선 사업	406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2010	· 경남 통일딸기 사업 및 과수원 조성 · 시설채소 온실 지원	147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총 계		3,414	

자료 : 2006년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정산서.

이종무, 강동완, 김동진, 황재성, 한다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경기도, 2012), p.343.

김영표, “경상남도 대북농업 지원사업 평가와 정책방향,” 『분권화 시대의 남북협력』(한겨레-경남 포럼 주최 발표 자료집, 2011. 9. 11.), p. 60.

표 4. 경남통일딸기 반입 및 반출 현황(2006~20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모주 반출(주)	2,500	5,000	6,000	10,000	15,000	-
북한 반출일	5/19	3/28	4/2	4/20	5/1	-
모종 반입(주)	10,000	25,000	50,000	100,000	150,000	-
국내 반입일	10/17	9/26	9/28	9/23	9/4	-
품종	매향	매향	매향	설향	설향, 매향	-
식재지역	밀양, 하남	밀양, 삼량진		밀양, 사천	밀양, 사천	-
식재면적(m <sup>2</sup> )	660	1,320		9,405	14,214	-
생산량(톤)	1.2	4		37	54.8	-
사업완료후 활용	홍보/시식	홍보/시식/ 판매		홍보/시식/ 판매/체험 활동/기부	홍보/시식/ 판매/체험 활동/기부	-
비고			폐기			

자료 : 조병옥,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남·북농업 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7.

표 5. 지자체-NGO간 협력체계

형태	특징	주요 기관 및 단체	
제1유형 (반관반민)	지자체가 직접 NGO 설립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제2유형 (지역NGO +지자체)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와 특별한 협력관계	NGO	지자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상남도 제주도
제3유형 (전국NGO +지자체)	서울에 근거를 둔 전국적 단위의 NGO	NGO	지자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경기도 서울시 등

자료 : 이종무, 강동완, 김동진, 황재성, 한다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경기도, 2012), p.51.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 농업정책

#### □ 농업정책

- 성과를 내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로동신문 5.15)
  - 김정일은 “산간지대나 별방지대나 할것없이 모든 농장에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화대군 송동협동농장에서는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농사를 잘하고 있으며 군의 각 협동농장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송동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는 연간 10여 톤의 돼지고기와 200여 마리의 새끼 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달 질 좋은 거름과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논과 밭에 대고 있음.
- 농업전선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자 (로동신문 5.20)
  - 농근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농근맹조직에 함남의 불길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지휘부가 조직됨.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벌어지는 사회주의경쟁은 도, 시, 군농근맹조직과 협동농장, 그 아래 작업반 분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의 작업반간에 진행되는 경쟁임.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경쟁참가단체를 실정에 맞게 구성함. 농산작업에 특성에 맞게 알곡생산부문, 축산부문, 과수부문, 잠업부문, 남새 및 공예부문,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함.
  - 본보기농장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현실성 있게 세운 목표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실시함.

-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농업근로자들은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로동신문 6.11)
  -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발휘할 때 농장원의 집단주의정신이 높아져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음. 경쟁이 분조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증한 일군들은 실리있는 경쟁방법을 찾아 실천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또한 보여주기사업은 분조 사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거름생산에 있어 질적수준이 높은 분조와 그렇지 못한 분조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동시에 조직하여 질적수준이 떨어진 분조가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해 분발하도록 함.
  - 분조장이 먼저 앞장서 대중을 이끌면서 농장원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 분조장이 포전의 상태와 작업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노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위력한 화선식정치사업 (로동신문 6.13)
  - 각지 당조직에서는 당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김매기사업과 가뭄과의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화선식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음.
  - 동림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김매기와 가뭄과의 투쟁 현장에 나가 현장조건에 맞게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면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킴.
  - 김책시당위원회에서는 강냉이밭후치질(옥수수 중경계초)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부림소 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그 영양관리를 시급기관 일군들이 맡아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실천적 모범을 보이도록 함.
  - 함흥시당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분조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함.
  - 온천군, 고산군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와 포전방송기재를 통한 선전사업을 잘하여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이 영농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함.
-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자 (로동신문 6.14)
  - 개천시 협동농장에서 우렁이를 김잡이(김매기)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 지난해에 봉화, 룡진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자체로 길러낸 우렁이를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어 정보당 평균 수백kg의 알곡을 더 생산하게 됨.
  - 이 성과에 기초하여 시에서는 올해 농장에서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는 종자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농장에서는 종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일군들은 농장에서 우렁이를 확보한 현황을 매주 보고하면서 기술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한편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수 있는 적지를 바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토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로동신문 6.29)
- 유기농법은 토양의 지력을 높여 깨끗한 토양에서 깨끗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농법은 생태계에서 영양물질의 자연적순환에 기초한 것으로서 화학농약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의의가 부각됨.
  - 유기농법에서는 토양을 생명체, 살아있는 유기체로 봄. 토양관리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력평가의 요소들인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성질에 대한 관리임. 따라서 유기농법에서는 토양의 생물학적성질에 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함.
  - 유기농법에서 토양관리는 주로 유기질비료주기와 토양갈이를 통하여 진행됨. 유기질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장해줄뿐 아니라 토양의 지력을 높여주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함.
  - 농업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유기농법의 요구에 맞게 토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해야 함.

## 2. 벼농사

### □ 봄갈이

- 봄갈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 (로동신문 5.11)
  - 평안북도에서 기본면적의 논밭갈이가 성과적으로 끝남.
  - 평양시에서는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트랙터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봄갈이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만경대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다른 구역, 군에서도 논밭갈이를 짧은 기간에 끝냄.

- 이미 3월말까지 밭갈이를 끝낸 황해북도 농촌에서도 논갈이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연탄군, 신평군, 상원군에서는 논갈이가 이미 끝난 상태이며 승호군, 송림시, 연산군이 그 뒤를 바짝 따름.
-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농촌에서는 마감단계에 이른 봄갈이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 모내기

-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안고 (로동신문 5.11)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됨.
  - 이곳 일군,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어려운 기상조건 하에서도 벼랭상모관만들기, 씨뿌리기, 모관관리 등 봄철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자연흐름식물길을 이용하여 수백정보의 논에 단물이 흘러들게 함.
  - 또한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의 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논갈이와 씨레치기(씨레질)를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 청산벌에서 모내기 시작 (로동신문 5.13)
  - 청산벌에서 모내기가 시작됨. 트랙터운전수들은 논갈이를 4월말까지 전부 끝냈으며 모관관리공들은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모를 실하게 키워냄. 기계화작업반원은 모내는기계를 모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완수함.
  - 일군들은 토양조건과 벼품종의 특성에 맞게 필지별 씨레치기 시작날짜와 평당 포기수 및 포기당 대수를 과학적으로 정함. 그리고 벼이삭패기 적기에 기초하여 작업반별, 분조별, 필지별 모내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
  - 모내는기계운전공, 모공급수들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해내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완수해내기 위한 열의로 모내기를 시작함.
-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로동신문 5.16)
  - 한해 농사에서 모내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황해남도와 강원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모관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남도 협동농장 일꾼들은 모관관리공의 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모두가 모관관리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협동농장의 경험을 살려 모든 농장에 벼모의 생육상태와 일기조건에 맞게 모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 문천시 남창, 룡정, 룡탄협동농장의 모관관리공은 종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자연기후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벼모내기에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로동신문 5.18)
- 벼모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데 있어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평당 포기수는 지대적특성과 지력조건, 품종적 특성, 모내는시기, 비료주는 양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 기준평당 포기수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하고 그보다 많을 때 밀식재배, 적을 때 소식재배로 해야 함.
  - 소식재배는 평균기온, 낮과 밤의 기온차, 해비침률을 비롯한 기상조건이 유리하여 아지를 잘 치는 지대에서 건논과 모관자리논, 터논 등과 같은 지력이 높은 논에 적용해야 함.
  - 밀식재배에서는 소출형성의 기초는 출발대수를 늘려 원대를 위주로 하여 이삭수와 알수를 확보하는데 있음.
  - 포기당 대수는 2~3대를 기본으로 하며 모내는 시기가 늦을수록 1~2대 더 늘리는 원칙에서 해야 함.
-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자면 (로동신문 5.19)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야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최적기에 모를 낼수 있음.
  -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함.

- 또한 모내기의 선행공정인 논관물대기, 써레치기, 모뜨기를 확고히 앞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 군농기계작업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현실조건에 맞게 기술적지도를 추진해야 (로동신문 5.19)
  -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써뿌리기철에는 봄날씨가 왔지만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예상외로 높아져 모가 자라는 기간이 짧아진 현실적 조건에 맞게 실속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
  - 농장에서는 먼저 트랙터를 집중하여 마른논써레치기를 하고 뒤따라 분조별로 논두렁짓기를 경쟁적으로 함. 그리고 논두렁짓기를 끝낸 포전 순위로 물을 대면서 물논써레치기를 실시함.
  - 이와 함께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고 양수동력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양수기운정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줌.
  - 또한 균일꾼들은 모를 내면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바로 세움.
- 모내기에 모든 힘을 집중 (로동신문 5.22)
  - 황해남도 농촌에서 모내기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도에서는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이들은 토양의 특성에 맞게 써레치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정성껏 모를 내고 있음. 또한 기계화비율을 높여 일정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배천군, 연안군의 농촌에서도 노동력조직을 바로하고 농기계이용률을 높여 그날 모내기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해주시의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의 먹는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음.
-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협동별 (로동신문 5.27)

- 황해북도에서는 모내기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리원시에서는 본보기농장인 미곡협동농장의 모내기경험을 모든 농장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같이 보장하도록 함.
  - 은파군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농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군과 농장원이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군에서는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내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기술적 대책을 제때에 세워 (로동신문 5.29)
- 가을걷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종류별에 따라 모내기날짜를 바로 정하고 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올품종과 늦품종에 따라 모기르기방법을 달리하여 모기르는 기간이 오랜 품종부터 씨뿌리기를 하고 모내기도 생육기일이 오랜 품종부터 먼저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더불어 기사장이 마른씨레치기방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논에 물을 깊이 대주었다가 일정하게 뽑고 씨레를 쳐서 속도와 질을 모두 보장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예상했던대로 모내기시작부터 모든 작업반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모내기를 빨리 끝낼 기세로 (로동신문 6.2)
- 함경남도에서는 매일 평균 모내기계획을 115%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 단천시 쌍룡, 룡잠, 룡덕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이 지난 5월 31일 현재 모내기를 끝냄.
  - 당조직의 지도밑에 다른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 근로자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지원하고 있음.
  - 단천시 협동농장에서는 정성껏 키운 튼튼한 벼모를 질적으로 내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영광군 협동농장에서는 기계화비중을 높여 매일 모내기실적을 150% 이상 기록하면서 앞서나가고 있음.

- 전국적인 모내기실적 87% (로동신문 6.6)
  -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월 4일 현재 전국적인 모내기실적이 87% 계선을 넘어섬.
  - 광산군에서는 벼모를 튼튼히 키우고 기계모내기비중을 높여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도적으로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둠. 신의주시, 박천군, 운전군을 비롯한 대다수 시, 군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냄.
  - 서해곡창 황해남도 농촌에서도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5월 24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냈으며 안악군에서는 5월 29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둠.
  - 길주, 명간군을 비롯한 함경북도 농촌에서도 5월 말까지 모내기를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단천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여러 시, 군에서도 모내기가 끝남.
-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않고 (로동신문 6.18)
  - 강남군에서는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실한 모를 키워낸데 맞게 기계화 비중을 높여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 성과를 거둠.
  - 영진협동농장에서는 군적으로 제일 먼저 모내기를 끝내고 다른 농장을 성의껏 도와주고 있음. 군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데 맞게 김매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군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논벼의 성장에 좋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카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료와 성장촉진제를 제때에 구색이 맞게 시비하기 위한 사업도 잘 추진해나가고 있음.
  - 군당위원회에서는 가뭄에 대응하여 양수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물원천을 모두 찾아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

## □ 두벌농사

- 뒤그루큰모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 (로동신문 6.25)
  - 우선 적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함. 원그루큰모는 6월 중순경에, 뒤그루큰모는 6월 하순에 내야 함.
  - 모뜨기와 운반을 잘해야 함. 모판에서 모춤은 반드시 곧추세워놓아야 하며 운

반할 때에는 모가 상하지 않도록 모함에 눕혀쌓아야 함. 또한 모층을 논판에 멀리 던져 모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해야 함.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큰모 모내기대수계산도표에 따라 정확히 정하여 해당 필지의 목표이삭아 지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포전에서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해야 함. 비료를 여러번 나누어주지 말고 모내기할 때 전층과 표층에 규정된 양을 한번에 주어야 함.

### 3. 밭농사

#### □ 보리

- 보리농사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6.17)
  - 두벌농사에서 소출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앞그루작물로 심은 보리 생육상태가 좋아야 함. 가을보리는 앞그루작물로 적합함. 겨울나이률이 높고 안전하면서 소출이 높으며 결실이 좋음.
  - 두벌농사를 위해서는 지력을 높여야 함. 해마다 두벌농사포전에 정보당 질 좋은 유기질비료 30톤, 흙보산비료 5톤 이상씩 무조건 실어내어 앞그루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 마련됨.
  - 밭관수에도 힘을 넣음. 우선 적지를 밭관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포전에 정하고 강우기관수를 위한 준비도 갖추. 이 덕을 가뭄이 지속되던 지난 5월 보리밭에 10일정도 관수를 함으로서 봄.
  - 앞그루작물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뒤그루콩심기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해야 함.

#### □ 강냉이

- 강냉이심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5.17)
  - 각 농촌에서 강냉이심기가 마감단계에 이름.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내 농촌에서 강냉이심기가 이미 끝남.
  - 특히 만경대, 락랑구역, 강남군을 비롯한 평양시 주변 농촌에서 일기조건에 맞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심기에 들어가 날마다 계획을 1.5배 이상 수해함

로써 일정보다 5일 앞당겨 파종을 결속함.

- 해주시, 재령,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날짜별, 포전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동력을 집중하여 15일까지 앞그루 강냉이심기를 마무리함.
- 자연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자강도에서도 이랑짓기 등의 공정에서 매일 7~8%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강냉이밭 세벌김매기에 진입 (로동신문 6.1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안의 많은 농장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 아래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감.
- 동림군에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잘 해나가고 있음. 월곡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제일 먼저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이곳에서는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역량을 강냉이밭 김매기에 집중시키고 있음.
- 염주군, 운전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당조직 지도밑에 역량을 집중하여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감. 학소, 서림협동농장에서는 모살이가 시작된 포전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강냉이밭 세벌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김매기

○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7.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농촌에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여러번 진행하고 많은 면적의 논에벌김매기를 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안악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김매기작전에 따라 날짜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세를 올리고 있음. 여기에는 룡산, 오국협동농장이 앞장서고 있음.
- 청단군 남촌협동농장을 비롯한 연백별 안의 협동농장일군,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수단을 최대한 동원이용하는 것과 함께 논벼의 뿌리주변흙을 잘 긁어주어 뿌리썩음병을 철저히 막도록 하고 있음.
- 봉천군과 은률, 송화군을 비롯한 중간지대 농촌에서 강냉이밭의 김을 여러번 돌려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김매기 성과 계속 확대 (로동신문 7.1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논세벌김매기와 강냉이밭네벌김매기를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당면한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있음.
- 신의주시의 협동농장에서는 장마철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논세벌김매기와 강냉이밭네벌김매기를 실시하고 있음.
- 구장군과 태천군, 정주시의 협동농장에서는 분조별, 작업반별 경쟁을 벌리면서 당면한 논세벌김매기, 강냉이밭네벌김매기를 실시하며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음.

#### 4. 감자농사

##### □ 감자농사

- 감자심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5.21)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 감자심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 감자농사경쟁단위인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 부전군, 장진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대홍단군이 올해에도 감자심기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둬. 군에서는 트랙터와 감자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가동시켜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심기를 질적으로 수행함.
  - 무산군이 지난 5월 15일까지 감자심기를 끝낸데 이어 연사군에서도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냄. 그리하여 함경북도에서는 고산지대 감자심기가 전부 끝남.
  - 양강도 갑산군에서는 감자심기가 90% 계선을 넘어섰으며 풍서군, 김형권군, 삼수군, 보천군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음.
- 감자농사를 열의에 넘쳐 (로동신문 5.27)
  - 삼지연군에서는 농기계, 비료를 비롯하여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함.

- 군 농장에서는 감자종자싹틔우기와 트랙터, 농기계수리 등 모든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끝낸데 맞게 일제히 감자심기에 들어감.
  - 농장 농업근로자들은 감자과종기를 이용하면서 거름과 비료를 잘 섞어 포전에 골고루 뿌린 다음 씨레를 쳐서 수평을 잘 보장함.
  - 흥계수농장 일군들은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면서 자체의 힘으로 트랙터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여 종합적기계화수단들이 큰 성과를 내도록 함.
  - 감자심기를 끝낸 흥계수, 포태, 소백산, 중흥농장의 뒤를 이어 다른 농장에서도 감자심기를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둬.
- 감자산지를 적극 지원 (로동신문 6.10)
- 당의 감자농사방침에 따라 성, 중앙기관에서 양강도의 감자산지를 힘껏 돕고 있음.
  - 대흥단군 삼덕농장 제5작업반을 찾은 최고재판소의 일군들은 영농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올해농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음.
  - 수많은 물자를 자동차에 싣고온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와 함께 감자심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벌려 사기를 높여주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많은 양의 영농물자를 농업근로자에게 넘겨주어 열의를 북돋아줌.
  - 잠업비단지도국, 재정성에서도 감자산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대규모의 감자산지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6.2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감자산지건설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살림집과 포전도로, 돼지목장건설이 총공사량의 50%를 넘어섬.
  - 백암군에서는 수백정보의 방풍림을 조성하고 수백km의 포전도로를 건설함. 또한 포전을 정리하여 영농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혜산시와 여러 군에서는 수백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을 세운데 이어 지금 수백동의 살림집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성, 중앙기관에서는 돼지목장과 감자종자저장고, 농기구, 농기계창고를 포함한 농업생산건물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5. 축 산

### □ 축산동향

- 풀관조성에 힘을 넣자 (로동신문 6.20)
  - 당의 축산정책에 따라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풀관조성을 잘해야 함. 인민들의 먹는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풀관을 잘 조성하고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함.
  - 축산부문의 일군, 근로자들은 풀관조성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함.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지역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풀을 많이 심고 가꾸는 방법으로 풀관을 조성해야 함.
  - 풀관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그루터기까지 다 뽑아버리면서 지대정리를 하고 좋은 풀종자를 심어야 함. 바람을 막고 사태가 나지 않게 하자면 풀관을 조성할 때 나무를 띠모양으로 심어야 함.
  - 땅의 지력을 높이고 한포기의 풀이라도 헛자라지 않게 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어야 함. 앞선 풀관조성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어느 한 지역에 본보기풀관을 만들고 일반화해야 함.
- 더 많은 토끼를 (로동신문 6.20)
  -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의 토끼작업반원들은 올해 더 높은 축산물 생산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관리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집짐승사양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토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여 농장원세대에 나눠주는 성과를 이룩함.
-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로동신문 7.2)
  - 강계오리공장에서는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오리고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 종금작업반에서는 오리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

나가고 있음. 알깨우기작업반에서는 현대적인 알깨우기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새끼오리생산을 늘리고 있음.

- 생산 1, 2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우리 소독, 먹이주기, 물주기 등 오리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육성률과 오리 마리당 증체률을 높이고 있음.
- 관리공들은 먹이기준표대로 배합먹이와 함께 동물성단백먹이, 먹이풀을 잘 섞어주어 오리가 빨리 자라도록 하고 있음.

## 6. 농업기반

###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3천여m의 방조제가 뺏어나갔다 (로동신문 5.19)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수십만 m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함.
  -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뜻에 따라 연합기업소에서는 방조제를 쌓기 쉽고 부침땅으로 쓸 수 있는 6구역에 힘을 집중하여 빠른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청단간석지건설사업소, 양화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6배나 되는 실적을 올림.

###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황해남도 자연흐름식물길건설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5.18)
  - 황해남도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완공되면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강령, 웅진군을 비롯한 여러군의 수만정보의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줄 수 있게 됨.
  -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물길굴공사와 흙물길, 저수지연제, 잠관, 물다리건설 등을 입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공사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려단의 건설자들은 물길굴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북도려단의 건설자들은 잠관건설을 비롯한 맑은 대상공사를 제때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자강도려단, 량강도려단, 남포시려단의 건설자들도 잠관을 비롯한 구조물공사에 헌신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물길공사건설 힘있게 지원 (로동신문 6.25)
  - 전국 각지에서 황해남도 물길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음.
  -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물길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와 여러 종류의 생활필수품, 후방물자를 보냄. 결과 함경북도려단에서는 맡은 대상에 대한 준비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냄.
  - 자강도에서는 목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와 안전모, 장화 등의 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 도안의 사기를 높임.
  - 평안남도에서는 물길건설에 필요한 전동기,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와 자재,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내줌.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도 물길건설을 힘있게 지원함.

## 7. 산림

### □ 통나무 생산

- 연간 통나무 생산계획 완수 (로동신문 5.11)
  - 룡하림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들이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함.
  - 일꾼들은 공정별 작업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업소에서는 산판에서 통나무생산사업이 벌어지는데 맞게 사이나르기를 따라 세우는데 힘을 집중함.
  - 이와 함께 공무원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함.
  - 벌목공과 불도저운전수, 자동차운전수들은 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하여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에 열중하여 성과를 거둠.
-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수행 (로동신문 5.22)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임업성 아래 100여개의 임산작업소들이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기록함.
  - 임업성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통나무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킬 목표 아래 능력있는 일꾼을 각지 립산, 갱목생산사업소에 내려보내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
  - 각 도임업관리국에서는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앞장선 단위의 경험을 널리 일반

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의미있게 진행하여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함.

- 자강도임업관리국에서는 일군이 한 개 단위씩 맡고 산판에 올라 노동자에게 산지통나무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별사업에 앞장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이 이룩되게 함.
- 함경남도임업관리국 아래 단천갱목생산사업소의 석우, 쌍룡작업소와 도안림산사업소의 산수, 문암작업소에서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튼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 나무심기

### ○ 수역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로동신문 4.3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역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올해에 수역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조국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음.
-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는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수천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일꾼,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매일 나무심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적지를 바로 정하고 잣나무,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음. 강원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봄철나무심기에서 성과를 거둠.

### ○ 봄철나무심기 (로동신문 5.8)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량강도에서 4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에서는 올해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량강도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사업을 추진함.
- 혜산시에서는 원림조성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가로수를 심을 위치를 비롯하여 원림설계를 여러차례 토의하고 현장에 나가 기술적지도를 추진함.
- 대흥단군에서는 80여 정보의 방풍림을 새로 조성하고 이미 있는 방풍림의 빈공간에 많은 나무를 심음.

- 산림조성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6.4)
  - 연탄군에서는 산림조성에서 무엇보다 적지적수의 원칙을 중시하여 군 여러 지역에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수유나무, 비타민나무, 단나무, 혼성림 등을 조성함.
  - 군에서는 산림조성실태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게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기 위한 대책을 세움.
  - 또한 산림조성에 있어 나무모발을 잘 꾸러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우는 것을 중시함. 이를 위해 군안의 기관, 기업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배움.
- 창성이깔나무의 덕을 본다 (로동신문 7.1)
  - 덕천시에서는 나무 한 대를 베고 100대를 심는 원칙에서 창성이깔나무심기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음.
  - 덕천시 산림경영소에서는 무창리에 있는 모체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해마다 나무모를 충분히 생산공급함. 모체양묘장과 영웅, 상덕지구의 양묘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60여 정보나 되는 양묘장에서 한해에 수백만 그루의 창성이깔나무모가 생산되고 있음.
  - 또한 시에서는 나무를 심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심은 나무의 관리와 산림보호 사업을 실시하여 푸른 숲을 계속 늘려나감.
  - 근 9,000정보의 창성이깔나무림을 조성하여 한해에 1만 수천㎡나 되는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탄광에 보내주고 있음.

## □ 나무모 생산

- 수많은 나무모온실을 건설 (로동신문 6.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근 200동의 나무모온실이 건설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릴수 있는 전망이 열림.
  - 정주시, 동림군, 평원군, 덕천시, 신양군, 룡성구역, 순안구역, 형제산구역의 일군, 기술자, 근로자들이 나무모온실적지와 면적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내부에 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설비, 도구를 갖추어놓아 해마다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함.
  -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남포시에서도 나무모온실건설에 역량을 집중함.

정평군, 회령시, 어랑군, 연사군을 비롯한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에서도 나무모온실을 건설하여 스트로브스소나무, 이깔나무, 새로운 품종의 포플러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할 수 있게 함.

- 나무모온실에서는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음. 나무모온실에서는 적은 종자와 토지, 노동력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나무모 생산기일을 앞당길 수 있음.

○ 나무모생산에 큰 힘을 (로동신문 6.26)

- 자강도에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산림관리처에서는 성간군산림경영소 신청조림작업소의 나무모밭을 본보기로 꾸리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 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
- 산림관리처에서는 2년 남짓한 기간에 나무모영양단지생산공정과 태양열온실, 과학기술지식선전실, 회전식분무장치를 설치한 원형나무모재배장을 설립함. 또한 나무모밭에 자연흐름식관수시설을 갖추어놓고 수백 톤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도 생산함.
- 시, 군산림경영소에서는 푸른 숲은 나무모생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무모생산을 늘리도록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8. 기타 작물

### □ 과수

○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 확립 (로동신문 7.4)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건설되어 생산을 시작한 결과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가 확립되어 과일과 고기생산을 다같이 늘릴 수 있는 전망이 열림.
- 이 공장에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장과 컴퓨터조종실, 문화후생시설, 야외건조장, 침전지, 단백질추출식장 및 양어장, 지렁이식장이 꾸려져 있음.
- 공장에서는 한해에 1만 수천 톤의 물거름과 수천 톤의 유기질복합비료가 생산되어 정보당 과일수확고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됨. 지난 5월에만도 8,000여 톤의 물거름과 수백 톤의 유기질복합비료가 과수원에 나감.

- 돼지공장의 물거름은 과일생산에, 과일가공품찌꺼기들은 돼지먹이로 이용되는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결과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됨.

## □ 남새

- 태양열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5.30)
  - 함경북도 청진시 직하지구에 큰 태양열남새온실이 건설됨. 15개 호동으로 되어 있는 남새온실은 연건평이 만 수천㎡에 달함.
  - 산기슭을 깎아 막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1,000㎡에 달하는 돌쌓기를 해야하는 방대한 건설을 도에서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둬.
  - 도에서는 앞으로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수 있게 여러 단위의 온실을 더 확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유채

- 많은 면적의 밭에 유채를 심었다 (로동신문 5.15)
  - 강원도에서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원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 일꾼들은 유채농사를 잘하는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였음.
  -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과 문천시 룡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많은 면적의 밭에 유채를 심었음.
  - 고성, 평강, 철원, 판교, 법동군을 비롯한 도의 모든 군에서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유채심기를 빠르게 끝내었음.
-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 기름을 더 많이 (로동신문 6.17)
  - 강령군에서는 현재 가을유채와 봄유채를 다같이 재배하고 있음. 뒤그루농사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심은 유채를 6월에 수확한 다음 그 포전에 사이그루재배 방법으로 강냉이와 콩을 심음.
  - 올해 봄에 심은 유채는 7월 초에 수확을 하고 뒤그루로 들깨와 남새, 감자를 심음.

- 유채를 심어 기름은 기름대로 생산하면서 알곡과 남새작물을 심어 소출을 낼 수 있는 이 경험은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증명함.

## 9. 기타 보도 동향

### □ 비료, 거름

- 큰 덕을 보게 될 환경보호형 비료와 농약 (로동신문 5.18)
  - 얼마전 진행된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는 생태환경보호형비료와 농약제품의 공업적인 생산도입과 국가적인 농약제품의 질검정체계의 과학화 실현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님.
  - 이곳 과학자들은 지방별 특성에 맞는 유기질재료와 집짐승배설물, 적은 양의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을 확립함.
  -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어쓰면 화학비료의 이용률이 훨씬 높아져 그대로 이용할 때 비하여 정보당 150kg의 질소비료를 절약할 수 있음을 밝힘.
  - 이곳 연구집단의 성과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지력을 보존하여 유기농법으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효능높은 여러 가지 비료를 생산 (로동신문 5.19)
  - 안악군 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효능높은 티오균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을 늘려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생물비료인 티오균비료는 농작물의 뿌리활성을 높여줌. 이 비료는 벼모를 키우는데 사용되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뿌리기도 함.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농작물의 뿌리발육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병을 막는데 효과가 큼. 티오균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생산원가가 적게 들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음.
  - 공장에서는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 이 비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데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비료생산공정에 따르는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보통강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로동신문 6.24)

-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공장에서는 모내기철에 많은 유기질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보장한데 이어 가을남새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얼마전 공장에서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기지를 건립하고 생산에 들어감.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복합비료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공장에서는 유리한 생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더 많은 유기질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농장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살림집

- 두단동지구 살림집건설 마감단계 (로동신문 5.13)
  -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두단동지구에 벌써 많은 살림집이 건설됨. 또한 소학교와 편의봉사시설도 새로 세워짐.
  - 살림집건설에 나선 시 구역, 군일꾼, 돌격대원들은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살림집골조공사를 시작함. 공사지휘부일꾼들은 대동강이 얼어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천 톤의 골재원천을 찾아내어 공사 돌파구를 찾아냄.
  - 만경대구역당책임일군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 신작칙의 모범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내며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감.
  - 만경대구역에 이어 모든 구역의 일군, 건설자들이 골조공사를 끝내고 내부공사에 들어감. 서성구역과 대성구역이 지난 4월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내부공사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 가뭄

- 가뭄피해를 막자 (로동신문 5.25)
  - 올해 이상기후현상으로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 적은 비가 내려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음.
  - 한해 농사에서 지금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모내기에 지장을 받고 있음. 또한 이미 심은 밀, 보리, 감자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피해를 받기 시작함.
  - 가뭄피해를 막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기존의 관계체계와 기술적토대

를 바탕으로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가뭄이 심한 강냉이, 감자, 밀, 보리포전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뭄피해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 양수 설비, 발관수시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함.
- 모내기와 강냉이, 콩, 감자 등 농작물심기를 질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가뭄피해를 막지 못하면 가을에 가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모든 일군,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은 가뭄피해를 막는데 일어서야 함.

○ 가뭄과의 투쟁을 힘있게 (로동신문 5.27)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가뭄이 계속되고 있음.
-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4월 27일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음. 특히 은천, 안악, 태탄, 삼천군과 사리원시, 강남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음.
- 4월 30일부터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아 고온현상이 지속됨. 대부분 지방의 토양습도는 6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의 기본원인은 올해 봄철의 대기순환체계가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남부지역의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로 흘러드는데 있음.
-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가뭄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모든 가능성을 동원 (로동신문 5.30)

- 개성시에서 예년에 보기 드문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기상 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군들은 포전에 나가 필지별, 품종별로 가뭄피해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 가뭄피해가 제일 심한 협동농장에 나가 양수기, 강우기를 비롯한 관수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함.
- 도시건설사업소와 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에서는 물차를 비롯한 료전기재와 양수기를 농촌에 보내주어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성과가 나도록 하고 있음.

- 가뭄과의 투쟁에서 한사람같이 (로동신문 6.12)
  - 배천군에서는 가뭄과의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기상조건에 맞게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에서는 물원천을 최대한 찾아내며 강우기, 양수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음. 농장에서는 물원천이 마련되는게 맞게 강우기를 비롯한 관수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군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김매기와 복주기를 질적으로 하여 토양의 물기증발을 줄이도록 하고 물길가시기(수로 청소작업)도 책임적으로 하여 한방울의 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있음.
-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역량 집중 (로동신문 6.13)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뭄과의 투쟁이 시작된 지난 5월 하순부터 도적으로 매일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관수설비를 수리정비하고 물주기를 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밭에서 가뭄피해를 막음.
  - 지난 5월 하순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뭄피해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수 있는 면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사업에 농장원만이 아니라 노동자, 사무원, 가두인 민반원들까지 나서도록 사업을 추진함.
  - 특히 물기증발이 적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노동력을 집중하여 가뭄피해가 심한 포전부터 물을 주도록 사업을 실시하여 5월 23일 하루동안에만도 도적으로 수십만명이 동원되어 수천정보의 감자, 강냉이, 밀, 보리, 남새포전에 물주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둠.
- 방울식 관수가 성과를 낸다 (로동신문 6.24)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현대적인 방울식관수설비를 만가동시켜 물주기를 함으로써 과일나무밭에서 가뭄피해를 막고 있음.
  - 방울식관수는 작은 구멍이 뚫린 관을 땅위로 늘리고 매 과일나무마다에 물을 주는 방법임. 한 개의 작은 구멍에서 시간당 2L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 시설은 물낭비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효과가 높음.
  - 농장에서는 방울식관수체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정비와 물잡

이, 물길가시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일 작업상태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

- 농장일군들은 과일나무밭에 물을 넉넉히 댈 수 있도록 수천m 구간의 물길가 시기도 해놓아 애써 키운 과일나무가 가뭄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 □ 현지도

- 연안군과 배천군의 농사실태 현지도 (로동신문 5.27)
  - 최영림 내각총리는 25일 황해남도의 연안군과 배천군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함.
  - 총리는 오현협동농장과 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봄. 수확이 높은 종자의 도입, 모내는 기계의 만가동 보장, 비료의 원만한 공급 등에 대해 강조함.
  - 또한 구암호와 레의저수지의 물저장 및 보장정형에 대하여 료해하면서 현재 비가 오지 않는 조건에 맞게 논과 밭에 물을 충분히 대줌으로써 가뭄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함.
- 신천군 새날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현지도 (로동신문 5.28)
  - 최영림 내각총리는 26일 신천군 새날농장과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함.
  -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가뭄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총리는 농장에서 씨레치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며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 경제일반

#### 1분기 북-중 교역 사상최대 또 경신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13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1일 보도함.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의 9억 7,200만 달러보다 40%나 늘어난 것임.
-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5억 6,800만 달러로 작년(4억 200만 달러)보다 40% 증가했고, 수입도 전년(5억 7,100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8억 달러에 달함.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으로 작년보다 106%나 증가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함. 이어 철광석(4,900만 달러), 비합금 선철(1,500만 달러), 남성용 합성섬유 재킷(1,250만 달러) 등 순으로 집계됨.
- 수입품은 원유가 전체의 28%인 1억 6,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톤 이상 화물차(3,100만 달러), 콩기름(1,850만 달러), 섬유(1,200만 달러), 밀가루(1,100만 달러) 등 순이었음.

연합뉴스, "1분기 북-중 교역 사상최대 또 경신", 2012.5.1

#### 北 5월초 평양서 식량난 해결 '국토대회'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해진 식량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초 평양에서 '국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3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 중앙기관은 물론 각 도·시·군당 일꾼, 국토환경부문 일꾼들에게 평양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해 대회 규모가 지난달 11일 열린 당대표자회에

버금갈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이 대회에서 주로 농경지 부족 해소를 위한 산간지 및 유희지 개간과 식량 증산 방안, 농사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앙당의 한 간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식량생산을 위한 좋은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함. 주민들도 이번에는 뭔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닐까 하며 당 지도부에 조금씩 호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연합뉴스, "北 5월초 평양서 식량난 해결 '국토대회'", 2012.5.2

#### □ 北, "비료수입 급감..."농사 차질 우려"

- 북한이 2012년 1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양이 2011년보다 크게 줄어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 부족현상이 예상됨.
- 미국의 소리 방송은 8일 중국 해관통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양이 6,500톤으로 2011년 2만 5천 톤의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곡물 가격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 측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북한에서 한 해에 필요한 비료는 중량 기준으로 155만 톤 정도지만 실제 사용량은 필요량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북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0만 톤에서 35만 톤 까지 해마다 한국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아왔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수입해 왔음.

연합뉴스, "北, "비료수입 급감..."농사 차질 우려", 2012.5.8

#### □ 경기경찰, 탈북자 대상 '찾아가는 귀농교육'

- 경기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영농 정착과 신규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8일 밝힘.
- 농촌진흥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될 이번 교육은 이날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부천, 김포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7월 11일까지 7개 권역 별로 나눠 진행됨.

-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 교육과 작목재배 실습,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귀농 노하우 등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 도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인 점을 감안, 소규모창업 등 여성들이 쉽게 적용하고 시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음.
- 경기경찰청과 농진청은 이번 권역별 기초교육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화된 전문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연합뉴스, "경기경찰, 탈북자 대상 '찾아가는 귀농교육'", 2012.5.8

#### □ 北,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 북한이 지난 1월 8일과 2월 16일 당중앙 내부회의를 통해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새좋은벗들이 9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4호)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 금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체 식량은 물론이고 수산물과 과일 등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해 당중앙 내부회의를 거쳐 4월부터 이루어짐.
- 수출금지 결정과정에 참여한 간부들은 식량난이 완화되고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수출금지 조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일러도 1~2년은 지나야 풀릴 것 같다"고 내다봄.
- 한편 주민들은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외국에 내보낼 것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수출 못하게 한 것은 백번 잘 한 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소식지는 전함.

연합뉴스, "北,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2012.5.9

#### □ 美, "올 1분기 대북 교역액 5백만 달러"

- 2012년 1분기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5백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식량과 의약품 지원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상무부가 10일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미-북 간 교역액이 5백만 달러로 2011년 1분기 교역액 70만 달러의 7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밝힘.
- 북한이 수출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으로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  
노컷뉴스, "美, "을 1분기 대북 교역액 5백만 달러", 2012.5.11

#### □ 北, "무역기관들이 장마당 장악"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해 유통되는 외화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관들을 통해 직접 장마당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통은 14일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지난 2월 초부터 각 무역기관들의 장마당 진출을 허용했다”며 “무역기관들이 직접 식량과 생필품을 들여와 장마당 장사꾼들과 중국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이처럼 무역기관들이 장마당 장사꾼들과 직접 거래하면서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가 고갈되고 이로 인해 장마당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소식통은 “최근 장마당 통제도 대폭 완화됐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지만, 철도에는 전기를 우선 공급해 열차운행도 비교적 좋아졌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北, "무역기관들이 장마당 장악", 2012.5.17

#### □ 北나진항, 중국산 석탄운송 전용항만?

-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 지린성 훈춘 일대에서 생산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동부로 운송된 석탄의 양이 10만 여 톤으로 지난해 전체 반출량 10만 톤을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훈춘시는 나진항을 통해 훈춘산 석탄을 상하이, Ningbo 등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이 이미 일반화했다고 밝혀 지난해 나진항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시작한 석탄 남방운송이 본격도에 올랐음을 시사함.

- RFA는 그동안 석탄 수송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열악했던 북한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의 장애물이 일부 제거돼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 남방운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함. 훈춘시는 올해도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 남방운송 목표량을 50만 톤으로 잡고 있음.

연합뉴스, "北나진항, 중국산 석탄운송 전용항만?", 2012.5.16

#### □ 국제적십자, 북한에 270만 그루 묘목 심어

- 국제적십자사(IFRC)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북한 평안남북도 등 30여 곳의 산간 지역에 270만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북한 내 홍수 취약지역에 심은 나무의 수종은 아카시, 잣나무, 소나무, 미루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2만여 명의 북한 농민, 자원봉사자들이 묘목 심기에 동원됨.
- IFRC 베이징사무소는 북한 국가과학원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산간과 나무를 이용하는 '산림 농업'에 대한 특별연수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했음.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북한에 270만 그루 묘목 심어", 2012.5.16

#### □ 1~4월 남북교역액 전년比 18% 증가

- 남북관계 경색에도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은 6억 277만 2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 1,144만 7천 달러에 비해 17.9%인 9,132만 5천 달러 증가함.
-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교역액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인 것으로 보임.
- 4월까지 남북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반출 품목은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 등이며 반입 품목은 여성의류 등 가공된 완제품임.

연합뉴스, "1~4월 남북교역액 전년比 18% 증가", 2012.5.16

## □ 北, 금지 사치품 수입 계속

- 북한이 유엔이 정한 금지 사치품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소위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밝혔다.
- 유엔 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수입되는 금지 사치품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인데 중국 다롄(大連)의 무역회사 DGUSA가 주요 중개 통로가 되고 있음.
- 북한으로 수입된 일본산 금지 사치품들은 1만 개비의 담배와 12명의 정종, 20만엔 상당의 화장품, 수백대의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중고 벤츠 3대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함.
- 이들 제품의 거래를 맡은 북한측은 능라도무역, 신평무역, 상명2 등이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일본의 소기업과 재일 북한 교포 등은 돈세탁에 관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연합뉴스, "北, 금지 사치품 수입 계속", 2012.5.17

## □ 北인구 26%만 가정서 전력 혜택

-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최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 전함.
- UNDP의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개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수준임.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들보다 전력공급 수준이 낮다고 지적함.
-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도 1990년 이래 감소해 1990년 북한 주민 1명이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력량은 1,246kWh였지만 2000년에는 713kWh로 급감했고 2008년에도 809kWh에 불과함. 2008년 북한에서 생산된 전력의 60.6%는 수력발전, 36%는 석탄 화력발전, 3.4%는 석유 화력발전이었음.

연합뉴스, "北인구 26%만 가정서 전력 혜택", 2012.5.18

## □ 인구 50만 명 이상 北도시 평양 등 4곳

- 북한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평양을 비롯해 4곳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의 민간기구 ‘데모그래피아’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데모그래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양의 인구는 286만 5천명으로 추산돼 전 세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850곳 가운데 147위를 차지했고 함흥 75만 명, 청진 70만 명, 남포 60만 명으로 집계됨.
- 북한의 대도시들의 인구밀도를 보면 남포가 km<sup>2</sup>당 1만 7,800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중 33위에 오름. 평양은 km<sup>2</sup>당 1만 3,800명으로 89위, 함흥이 6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인구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인구 50만 명 이상 北도시 평양 등 4곳", 2012.5.22

## □ 中 두만강 지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

-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두만강 지역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훈춘 국제합작시범구’(이하 시범구)가 정식 착공됐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30일 보도함.
- 훈춘 서북쪽에 있는 시범구는 전체 면적이 90km<sup>2</sup>에 이르며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북·중훈춘경제합작구역, 중·러훈춘경제합작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됨.
-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이 시범구 건설을 승인하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통관, 토지이용,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함.
- 나선특구와 연계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훈춘 시범구가 중국의 의도대로 초국경 경제협력지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북한, 러시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남·북한과 북·일 관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 "中 두만강 지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 2012.5.30

## □ 작년 북한 대외무역 63억 달러..사상 최대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은 제외)이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인 6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
- 코트라가 31일 발표한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84.2% 증가한 27억 9천만 달러, 수입은 32.6% 늘어난 35억 3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규모가 51.3% 커진 것으로 나타남. 무역적자는 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됨.
-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짐. 대중국 무역은 56억 3천만 달러(수출 24억 6천만 달러, 수입 31억 7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62.4% 증가함.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9.1%에 달함.
- 중국과는 큰 격차이지만 러시아, 독일, 인도,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음.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2% 증가한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독일, 인도와의 무역액은 감소함.
-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등 연료(8억1천만 달러, 56.9% 증가), 기계류(3억 달러, 15.0% 증가), 전기기기류(2억7천만 달러, 29.6% 증가)였음. 수출품은 석탄(11억7천만 달러, 193.2% 증가), 광물(4억 달러, 61.3% 증가), 의류제품(3억9천만 달러, 110.4% 증가) 등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작년 북한 대외무역 63억 달러..사상 최대", 2012.5.31

## □ 北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순항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일 보도함.
-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함. 훈춘~나진항 53km 구간 중 원정리~나진항 도로는 50.3km임.
- 방송은 지난해 4월 착공된 이 도로 공사가 1차로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돼 노반공사 48km, 포장공사 33km, 소형교량 2개 건설, 중·소형 교량 8개 교각 건설 등을 끝냈다고 전함.

- 올해 4월 재개된 공사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의 시공인원 900여명이 투입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北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순항", 2012.6.1

#### □ 김정일 사후 5개월간 日서 현금 56억원 복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5개월간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낸 현금이 신고된 금액만 3억 7천 760만엔(56억 8천 800만원)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 재무성이 중의원(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집계 결과를 공개했으며, 건수로는 348건이었음.
- 3월까지의 매달 3천만~6천만엔 정도였지만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린 4월에는 2억 1천 470만엔(32억원)이 북한으로 넘어갔음. 일본은 10만엔(150만원)을 넘는 현금을 북한에 보낼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 "김정일 사후 5개월간 日서 현금 56억원 복송", 2012.6.2

#### □ 北, 협동농장 제한적 개혁 검토

- 북한이 현재의 협동농장 체제를 소규모 농장 체제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북한 고위간부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조선족 대북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검토하면서도 중국식으로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규모 협동농장을 소단위로 쪼개 규모를 소형화하려고 한다”고 전함.
-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개혁’ 등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 발언 이후 협동농장 개혁 시도를 일단 접었다고 조선족 사업가는 주장함.
- 중국의 또다른 대북 소식통도 “협동농장에 대한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북한 관료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농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北, 협동농장 제한적 개혁 검토", 2012.6.5

## □ 中,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 중국 당국이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현지업자에 내렸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함. 또한 지난달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어민을 북한이 나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함.
- 랴오닝(遼寧)성 북한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관련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착한 중국 정부의 지시는 북한산 수산물을 6월 1일부터 당분간 들여오지 말라는 내용임.
- 다만, 북한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일부나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북한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수산물은 큰 가리비와 바다참게 등이 주종으로 북한군 산하 기업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음. 앞서 북한의 핵실험 실시 등에 대한 제재로 일본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자 최근 그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했음.

연합뉴스, "中,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2012.6.10

## □ 北 어린이 영양실조 심각

- 수백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 발육에 필요한 음식, 의료 및 건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12일 밝힘.
- 유엔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인권 상황 최신 보고서를 통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식량 부족난이 심각한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함.
- 또 맑은 물 부족에서 비롯된 이질로 어린이 다수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위생 시설과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북한 정권은 또한 전체 2,400만여 명의 인구를 먹여살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 외부 세계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이에 따라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해 1억 9,800만 달러(한화 2,318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함.

연합뉴스, "北 어린이 영양실조 심각", 2012.6.12

## □ 北, 중국 수입관세 대폭 인상..."거래중단"

- 중국 단둥의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21일 “북한 당국이 최근 관세를 올렸지만, 중국 단둥의 대북상인들은 아직 관세인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몰라 상황을 파악 하느라 분주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소식통은 “관세를 올린 시점이 이번주 초라고 알려졌을 뿐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한 날짜도 파악 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상인들로 북적이던 단둥 시내 상점들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한가한 모습”이라고 전함.
- 단둥의 한 무역상인은 “현재 중국에서 들여가려던 물건들을 북한 화주들이 통관을 보류하는 바람에 신의주 세관 창고가 포화상태”라고 말함. 소식통은 “단둥의 지역적 특성상 신의주 세관의 관세인상 소식만 전해졌지만 중국과 인접한 모든 세관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사정에 밝은 단둥의 한 무역상은 “북한 당국의 관세인상조치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해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풀이함.

연합뉴스, "北, 중국 수입관세 대폭 인상..."거래중단", 2012.6.22

## □ 中,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

-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투먼(圖們)과 북한 청진항 간 화물운송을 위한 전용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중국은 이미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석탄 등 각종 화물을 남동부지역으로 운송하고 있어 청진항에 물류운송 전용열차가 운행되면 북-중간 경제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 주정부는 동북지역의 석탄 등을 청진항을 통해 상하이(上海) 등 남동부 지역과 인근 국가로 운송하는 것이 최적의 물류방안이라며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 청진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열차 개통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

연합뉴스, "中,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 2012.6.27

## □ 5월 北中교역 7억 달러…사상 최대

- 북한과 중국 간의 지난 5월 교역액이 7억 달러로 월 교역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6일 보도함.
- 중국 상무부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음. 중국의 대북 수출액 역시 4억 3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37% 증가함.
- 방송은 “올해 1~5월 북중 교역액은 25억 9,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었다”며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북한의 무역 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억 5천만 달러 늘어난 4억 8,200만 달러가 됐다”고 전함.

연합뉴스, "5월 北中교역 7억 달러…사상 최대", 2012.7.6

## □ 북한경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 북한경제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음. 한국은행은 8일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8% 늘었다고 밝힘.
- 한은 관계자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성장에 힘입어 북한의 전체 국내총생산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함. 농림어업의 경우 일조량 증가 등 양호한 기상여건, 비료 투입량 증대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확대돼 전년보다 5.3% 늘었음. 전년 성장률(-2.1%)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변화임.
- 2011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2조 4천억 원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3만 원으로 남한(2천492만 원)의 19분의 1 수준임.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63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1억 4천만 달러 늘었음.

연합뉴스, "북한경제 3년 만에‘플러스’성장 전환", 2012.7.8

## □ 北 진출 중국 기업, '조선중국상회' 조직 강화

-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조직한 '조선중국상회'가 이익대변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지난 4월 말 '조선중국상회'를 결성한데 이어 지난 5월17일 평양의 북한주재중국대사관에서 1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중국기업의 연합체인 '조선중국상회'에 가입한 기업들은 북한에 직접 투자했거나 교역 중인 중국기업들로 무역업을 비롯한 광산업, 서비스업, 자동차, 자전거 생산 등 50여 개 업체로 알려짐.
-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번 보고회는 북한과 교역 또는 투자를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권익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노컷뉴스, "北 진출 중국 기업, '조선중국상회' 조직 강화", 2012.7.7

## □ 北 경제특구관리 2백명, 작년 11월부터 중서 교육 중

- 북한 경제특구 관계자 2백여 명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지린과 다롄에서 경제개발구 건설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중국 상무부 초청으로 진행 중인 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린과 다롄에서 2개조로 나눠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3월부터 재개된 것이라고 중국 상하이 동방조보가 9일 보도함.
- 중국에서 연수 중인 북한인들은 모두 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관리들인 것으로 알려짐. 지린시에서는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이 북한 나선경제무역구 소속 관리들을, 다롄시에서는 다롄행정학원이 황금평과 위화도경제구 소속 관리들의 교육연수를 담당하고 있음.
- 연수는 지린과 다롄에서 각각 1백명씩이 5기로 나눠 각 기별로 19~20명씩 기수별로 20일 정도 연수교육이 이뤄짐.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지린시 1기 연수에서는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회 계획국 안일광과장을 대표로 나선경제무역구 관리간부 19명이 참여했으며 11월 26일까지 17일간 교육을 받았음.

- 수업은 정부기관과 기업 등 각계 인사 초청강의를 포함한 이론수업과 현장수업이 병행됨.

노컷뉴스, "北 경제특구관리 2백명, 작년 11월부터 中서 교육 중", 2012.7.9

#### □ 최근 8년간 北투자 외국기업 351개

-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합작 형태로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351개이며 국적이 확인된 269개 외국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205개(76%)로 가장 많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를 인용해 보도함.
- 351개 외국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확인된 기업이 88개이고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은 2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됨. 무산광산의 철광석 채굴권을 얻은 중국의 연변천지공업무역회사의 투자액이 8억 6,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음.
-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텔레콤이 4억 달러를 투자해 뒤를 이었으며, 중국의 물류업체인 훈춘동린경제교역회사가 1억5,700만 달러, 상원시멘트를 설립한 오라스콤건설이 1억 1,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함.
- 오픈소스센터는 북한이 발행한 ‘대외교역 현황’ 자료와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각국 언론 보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최근 8년간 北투자 외국기업 351개", 2012.7.12

#### □ 싱가포르, "北과의 교역 재개...담배 등 사치품 포함"

-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은 11일 싱가포르 국제무역청 자료를 인용해 “싱가포르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로 2011년부터 교역을 전면 중단한지 1년 만에 교역을 다시 시작해 담배류 등 사치품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가 2012년 5월까지 북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을 보면 종이류가 468만 2천 달러(싱가포르), 담배 90만 5천 달러,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가 34만 달러, 전기기기 26만 7천 달러 등 모두 2,087만 9천 달러(미화 1,650만 달러)로 집계됨.
- 코트라는 “싱가포르가 2010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북 수출 재개로 유엔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힘.

노컷뉴스, "최근 8년간 北투자 외국기업 351개", 2012.7.12

#### □ 탈북자 정착, 영농지원으로 돕는다

-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는 13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난해부터 영농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8농가에 6억 4천만원, 올해 상반기 12농가에 3억 4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힘.
- 지원재단은 또 이들 영농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목기술, 영농계획, 판로개척 등 영농컨설팅 서비스도 해주고 있음.
- 지원재단 측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북에 있을 때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면서 “가장 친숙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판단해 영농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탈북자 정착, 영농지원으로 돕는다", 2012.7.13

#### □ 北 차관상환 침묵.."채무불이행 선언 사유 발생"

- 상환 만기가 지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채권자인 우리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함.
- 정부 당국자는 “차관계약서에는 북한이 상환 통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일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북측이 오늘까지 답변이 없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당장 북한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짐. 정부가 북측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도 채무상환을 강제할 현실적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이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 차관상환 침묵.."채무불이행 선언 사유 발생", 2012.7.15

## □ 北, 중국과 근로자 4만명 파견 합의

- 북한이 중국의 동북 지방에 4만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 합의로 북-중 국경지대인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에 2만명, 지린성 투먼과 훈춘에 2만명의 근로자 파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미 근로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근로자들은 의류 공장이나 정보기술(IT) 관련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급여는 월평균 170달러 정도인 것을 전해짐. 북한은 중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北, 중국과 근로자 4만명 파견 합의", 2012.7.16

## □ 北, "무역대금 현금 대신 쌀로 결제해 달라"

- 북-중간의 무역거래 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현금 대신 쌀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무역회사들이 북한 무역회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소식통은 "북한 무역회사들이 결제대금을 쌀로 바꿔 보내줄 경우 무역대금 일부를 감해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의 대방(무역상)들이 쌀 대신 중국당국이 수출을 허용하는 옥수수나 밀가루 등으로 결제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쌀로만 결제할 것을 고집한다"고 덧붙임.
- 소식통은 특히 "북한과 무역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일부 무역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쌀을 북한으로 밀반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눈치 챈 중국 해관 당국이 북-중 변경 지역에서의 쌀 밀반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노컷뉴스, "北, "무역대금 현금 대신 쌀로 결제해 달라"", 2012.7.17

## □ 북중무역 28% 증가... "北 무연탄 팔아 생필품 수입"

- 지난해 급증했던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이 올해 상반기에도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1~5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증가한 10억 4,950만 달러, 수입은 27.1% 늘어난 14억 5,950만 달러였음. 무역액으로는 27.9% 늘었음.

- 올해 대중 수출은 무연탄이 주도했음. 1~5월에 6억 1,376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2% 증가했음. 대중 수출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2010년 초 4%도 안됐지만, 같은 해 4월 이후 늘기 시작해 40% 안팎으로 불어난데 이어 올해엔 지난 4월 64%를 넘는 등 줄곧 50%를 웃돌았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상기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구잡이식 지하자원 수출에 제동을 걸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같은 대외환경이 계속된다면 지하자원 수출로 외화부족을 해결한다는 처방이 당분간 지속하고 북중 무역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북중무역 28% 증가...北 무연탄 팔아 생필품 수입", 2012.7.20

#### □ 北 흥남비료공장, 2014년까지 배로 증설

- 북한 최대 화학비료공장인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2014년까지 생산능력을 배로 늘리는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갈탄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해 비료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가스화 1공정 건설을 지난해 11월 17일 마무리하고 연간 35만 톤의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갖췄음. 이어 현재 진행 중인 2공정 건설을 2014년까지 끝내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연간 70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임.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관계자는 신화통신 특파원에게 석탄 가스화 공정의 원료와 설비는 대부분 북한 자체에서 조달하고, 일부 자동화설비와 특수재료, 기술만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함.
- 신화통신은 북한의 전체 화학비료 수요가 연간 100만 톤가량인데 현재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생산량을 합쳐도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전함. 이어 북한의 계획대로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2014년 증설을 끝내고 연간 생산량 70만 톤을 확보하면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北 흥남비료공장, 2014년까지 배로 증설", 2012.7.20

## □ 연평도 포격 이후 北수산물 첫 반입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내 반입이 끊겼던 북한산 수산물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달 중순 강원도 속초항을 통해 북한산 가리비 조개 40여 톤이 국내로 들어왔다”며 “금액으로는 미화 10만 달러 어치”라고 밝힘.
- 이번에 반입된 북한산 가리비는 북한 측으로부터 투자금이나 물품을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기업이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측과 협상해 받아낸 것임.
- 당국자는 “북한의 공급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업체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북한 측과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많이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추가반입 허용 가능성을 시사함.  
연합뉴스, "연평도 포격 이후 北수산물 첫 반입", 2012.7.22

## □ 북한, 신경제정책 10월 시행 전망

-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등이 북한 노동당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힘.
- 신문은 ‘6.28 방침’으로 불리는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국가 투자와 시장 가격 등의 도입 등으로 표면상 개혁개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전함.
- 북한은 비료와 원료, 기계 등이 부족해 황폐한 농지와 생산이 중단된 공장이 많음. 여기에 국가 투자로 자금을 돌려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국가가 매입하고, 상품 매입시 고정 가격이 아닌 가변 가격(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것임.
- 이 신경제정책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권을 잡고 있던 군부의 반발로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가 돌연 해임된 배경에도 경제 노선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연합뉴스, "북한, 신경제정책 10월 시행 전망", 2012.7.22

## □ 北, 변경지역에 자유시장 적극 개설

- 23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김정일 시대 이후, 중국의 북한정책은 변화하는가 아니면 계속되는가’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한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중 변경지역에 중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유시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이 경제권을 내각으로 집중시키려 하고 중국·싱가포르 등지에 공무원, 학자를 대거 파견하는 것 등도 변화의 징조로 주 교수는 해석했음.
  - 주 교수는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설 때처럼 군대는 군대일 뿐 경제적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며 “김정은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리영호를 숙청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의 신호”라고 강조함.
  - 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의 전제로 혹은 과정에서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이 어떻게 전략적 이해를 조정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연합뉴스, "北, 변경지역에 자유시장 적극 개설", 2012.7.23

## 2. 식량 사정

### □ 北 '4월 축제'에도 식량배급은 종전 수준

- 북한의 식량배급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의 축제기간인 4월에도 3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WFP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4월에 주민 한 명당 배급한 식량은 하루 400g으로 3월의 395g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이 같은 식량 배급량은 WFP의 필수 권장량인 하루 600g의 66% 수준에 불과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지원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분배한 식량은 쌀과 옥수수를 섞은 혼합식으로, 지역에 따라 쌀과 옥수수를 2대 8 또는 3대 7 비율로 섞은 것”이라고 RFA에 전함.

- 한편 WFP는 4월 한 달 동안 북한 주민 약 210만 명에게 4,300톤의 식량을 분배, 약 1만 3천 톤을 지원한 3월에 비해 지원 규모가 33%로 줄었음.

연합뉴스, "北 '4월 축제'에도 식량배급은 종전 수준", 2012.5.8

#### □ 北 올해 쌀 확보량 30만 톤 증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 확보량이 작년보다 3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FAO는 7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200만 톤의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봄. 이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160만 톤과 수입 예정인 30만 톤, 그 외 외부원조 양을 합산한 수치로, 작년의 쌀 확보량 170만 톤보다 30만 톤 많은 양이다.
-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82개 군에서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2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이는 WFP가 현재 북한 107개 군에서 350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급 식량지원사업'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7월부터 노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연합뉴스, "北 올해 쌀 확보량 30만 톤 증가", 2012.5.9

#### □ 北 곡창지대 황해도에 아사자 발생 이유는?

-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최근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대북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 황해남 북도와 함경북도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이는 단순한 식량부족 현상이 아니고 2011년 발생한 홍수와 균량미와 평양지역에 공급하는 수도미 등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황해도에 사는 40대 여성은 "현재 황해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며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도 힘든 상황으로 사리원역 대합실은 남녀노소의 꽃제비(걸인)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도 4월 초 소식지에서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지역에 농작물 수확량이 전년보다 급감한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100일 애도기간에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돼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함.

노컷뉴스, "北 곡창지대 황해도에 아사자 발생 이유는?", 2012.5.14

#### □ 北, 대량 아사 '군량미 공출이 원인' 인정

-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무역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3월 중순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대량 아사가 군을 위한 과도한 식량 공출이 원인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1일 보도함.
- 황해남도의 연안과 백천, 청단 외에 황해북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도 연초 집단농장의 노동자와 가족 등이 다수 굶어 죽었음.
- 조선노동당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는 “황해남도가 수해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농장원들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어려운 세대가 증가했다”, “농장 세대가 군량미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해 식량난이 흉작뿐 아니라 과도한 군량미 공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은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를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면서 “군으로의 식량공출을 우선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를 내부 문서에 기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北, 대량 아사 '군량미 공출이 원인' 인정", 2012.6.1

#### □ 유엔, "北 식량부족 국가 재지정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다시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했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2년 3월에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변함이 없다”며 “지난 가을 수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확보한 곡

물은 외부 지원 4만 3천 톤과 수입 33만 3,300톤 등 모두 37만 6,3백00톤으로, 올해 부족한 식량 75만 1천 톤의 절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함. 외부에서 지원한 4만 3천 톤은 브라질과 스웨덴이 옥수수를, 호주는 밀을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지원했음.

- FAO에서 북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키산 군잘 박사는 13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 20만 8천 톤을 수입하고,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유럽연합으로부터 옥수수 11만 4천 톤을 수입했다”고 밝힘.

노컷뉴스, "유엔, "北 식량부족 국가 재지정", 2012.6.14

#### □ 北 식량난…"보안당국도 배급 제대로 못해"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19일 소식지에서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보안 일군 당사자에게만 배급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보위부원이나 보안원 등 보안 일군들의 식량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전함.
-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보안원은 “중전에는 6개월 정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었지만, 이제는 한 달 살기도 바쁘다”고 말함. 한편, 황해남도의 식량난이 심각한 가운데 해주시의 한 간부는 “절망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함.
- 이 간부는 “중앙당에서 당의 배려 차원에서 긴급히 몇 백 톤의 식량을 풀었지만, 도저히 해갈이 안 된다”며 “누구에게든 직접 보여주고,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덧붙임.

노컷뉴스, "北 식량난…"보안당국도 배급 제대로 못해"", 2012.6.20

#### □ 北, 러시아서 식량 2만 톤 수입

- 북한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밀과 콩 각각 1만 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짐.
-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에 따르면 이달 6일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 지역에서 열린 아무르주정부와 북한 국제무역진흥위원회간 회의에서 북한 측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함.
-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은 2012년 5월 중순까지 북한이 수입한 곡물 규

모는 약 33만 톤이며, 국제사회가 지원한 곡물은 8만 5천 여 톤으로 집계됨.  
 노컷뉴스, "北, 러시아서 식량 2만톤 수입", 2012.6.26

#### □ 北주민 6월 식량배급 감소…권장량의 63%

- 북한 당국이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4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 당국의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95g을 유지하다가 4월에 400g으로 약간 늘었지만 5월 395g, 6월 380g으로 최근 두 달간 계속 줄었음. 6월 배급량 380g은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함.
- 북한 당국이 배급한 식량은 쌀과 옥수수를 2대 8이나 4대 6의 비율로 섞은 혼합식임.

연합뉴스, "北주민 6월 식량배급 감소…권장량의 63%", 2012.7.4

#### □ 北 봄가뭄 식량난 우려…"보리 감자 40% 감소"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평양주재 유엔 기구들이 10일 북한 내 작황 전망과 주민 영양 실태 등에 대한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봄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유엔 기구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북한의 봄 가뭄으로 인해 보리와 감자, 밀 등 여름에 추수하는 이모작 작물 작황이 예상치 50만 톤의 40%인 20만 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 유엔은 "북한의 이모작 작황은 한 해 전체 수확량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모작 수확량 감소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또 "쌀과 옥수수와 같은 가을 작물의 경우 봄 가뭄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북한 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양 등 5개 지역의 농지 28만 7천 ha가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됨.
- 유엔은 "이모작 작황이 나빠 당국의 공공배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 9월까지 식량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밝힘. 또 "추수가 시작되

도 처리와 분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까지 식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연합뉴스, "北 봄가뭄 식량난 우려..."보리 감자 40% 감소", 2012.7.14

#### □ WFP "北 식량 상황 '대기근' 수준 아니다"

- 세계식량계획(WFP)의 클라우디아 본 톨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쁘지만, 1990년대의 대기근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규모가 90년대 말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함.
- 그는 식량 분배 감시 체계에 대해 “북한에 상주해 있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북한 전역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집집마다 방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말함.
- 세계식량계획은 평양을 포함해 원산, 청진, 함흥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3개 도시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해 분배 대상 주민에게 지원할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

연합뉴스, "WFP "北 식량 상황 '대기근' 수준 아니다", 2012.7.21

### 3. 가격 추이

#### □ 北 해산시장 쌀1kg=5천원..."쌀값이 금값"

- 10일 양강도 해산의 쌀가격(1kg)이 드디어 5,000원을 기록함.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김정일 사망 직후 시장을 폐쇄하면서 한 때 5,000원(kg)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시장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선 처음임.
- 데일리NK가 최근 내부소식통들을 통해 파악한 타지역 쌀가격도 상승 추세임. 함경북도 무산은 지난 5일 4,500원을 기록했고, 같은날 강원도 문천의 경우는 이미 5,000원을 넘어섰음.
- 이번 쌀 가격도 환율 상승과 같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환율 상승이 시장 물가 인상을 끌고 가는 모양새임. 5일 중국 위안화(元)는 800원, 9일에는 810~820원, 10일에는 850~860원에 거래되고 있음.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환율 상승은 북한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며 “5, 6월 춘궁기 공급부족 심화로 북한의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물가와 환율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데일리NK, "北 혜산시장 쌀1kg=5천원..."쌀값이 금값"", 2012.7.10

#### 4. 가뭄

##### 北 "서해안 가뭄...6월 상순까지 계속"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서해안 지방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4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일 이상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함.
- 낮 기온은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18일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대부분지방의 토양습도는 6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 통신은 현재 주요 관개용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55.4%밖에 안 된다며 특히 금성호의 저수율은 0.5%라고 밝힘.
- 통신은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봄철에는 자주 지나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올봄의 대기순환체계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위도 대륙의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고 있는 것이 가뭄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함.
- 통신은 “6월 상순까지 이처럼 대기순환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봄.

연합뉴스, "北 "서해안 가뭄...6월 상순까지 계속"", 2012.5.21

##### 北 50년만의 가뭄...피해 줄이려 안간힘

- 최근 모내기를 시작한 북한이 50년 만에 찾아온 봄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들어 두 차례 내놓은 ‘노작(勞作)’에서 식

량 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올해 농사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북한 당국이 피하려는 체제안정까지 해칠 수 있어 북한매체들은 가뭄 극복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란 글에서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내기 전투가 한창”이라며 “가뭄(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주철규 농업성 국장은 24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가뭄피해를 심하게 받는 강냉이나 밀, 보리밭부터 역량을 총집중해 포기마다 땅을 파고 물을 준 다음 물어주면서 물주기를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서해안 지방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50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힘. 중앙통신은 4월2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해안 지방에서 30일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매일 평균 증발량은 4~8mm, 토양습도는 6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가뭄 실태를 전함.  
연합뉴스, “北 50년만의 가뭄…피해 줄이려 안간힘”, 2012.5.27

#### □ 北가뭄 쌀농사 영향 미미…6월 강수량 변수

- 북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올해 식량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0여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고 전함.
- 통신은 지난 25일 “서해안 지방에 30일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서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밝힘. 노동신문도 이날 “가뭄은 강냉이 영양단지 옮겨심기와 모내기에 지장을 받고 있고 이미 심은 밀, 보리, 감자 등 여러 농작물이 피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평양은 2mm, 해주는 5mm, 신의주는 1mm의 강우량을 기록함. 매일 평균 증발량은 4~8mm, 토양습도는 6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뭄이 주식인 쌀 작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5월에는 옥수수, 밀 등을 옮겨 심는 기간이어서 이번 가뭄에 영향을 받지만 모내기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6

월 강수량을 봐야 한다는 설명임. 보통 북한에선 5월 말부터 6월까지가 본격적인 모내기철임.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뭄이 북한의 전체적인 작황에 영향을 미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비가 좀 오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데일리NK, "北가뭄 쌀농사 영향 미미...6월 강수량 변수", 2012.5.27

#### □ 北, 심각한 가뭄..외부 지원 기대 어려워

- 북한에 지난 4월 27일 이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AP통신이 북한의 남포발로 28일 전함.
- 이번 가뭄으로 북한의 서부 해안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AP통신은 북한 기상당국을 인용해 보도함. 남포지역의 한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안송민이라는 농부는 “여기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번 같은 가뭄은 처음 겪는다”고 AP 취재진에 전함.
- 북한은 자연재해 등으로 그동안 식량부족에 시달려왔고,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연합뉴스, "北, 심각한 가뭄..외부 지원 기대 어려워", 2012.5.29

#### □ FAO, "북 가뭄 계속되면 수확량 급감"

- 북한의 봄 가뭄이 2~3주 더 지속될 경우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힘.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중국·북한·몽골 사무소 피시 미시카 대표는 30일 “북한의 이번 가뭄이 계속될 경우 벼농사와 옥수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또한 “이모작으로 여름에 수확하는 밀과 보리, 감자도 가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함.
- 미시카 대표는 “가뭄 피해 실태를 조사를 위해 실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승인이 나면 평양의 FAO 관계자가 가뭄이 가장 심한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 지역에 대한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노컷뉴스, "FAO, "북 가뭄 계속되면 수확량 급감"", 2012.5.31

#### □ FAO, "북한 가뭄실태 조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조사단이 다음주까지 북한의 가뭄 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1일 “평양의 식량농업기구 요원들이 이번 주말부터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 등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서해 남부에 모내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가뭄이 북한의 올해 작황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황해남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4월 중순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계속 오르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감자와 밀, 보리뿐만 아니라 강냉이, 콩, 남새(채소) 등 모든 발작물들이 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함.

노컷뉴스, "FAO, "북한 가뭄실태 조사"", 2012.6.2

#### □ 北, "가뭄 피해 방지 전력"

- 북한에서 가뭄이 심한 평안북도 지역에 매일 수십 만 명의 근로자들이 동원돼 관수설비를 수리정비하고 물주기에 나섰다”고 노동신문이 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평안북도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하순부터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농장원들만이 아니라 노동자, 사무원, 가두인민반원들까지 물주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중국·북한·몽골 사무소 펠리 미시카 대표도 12일 “평양에 주재한 FAO 관계자들이 북한 내 가뭄이 심각한 2개 도의 5개 국영농장을 방문한 결과 현지 농민들은 새벽 5시부터 물통과 물뿌리개 등 각종 도구를 동원해 논과 밭에 열심히 물을 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함.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은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과 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이라고 밝힘.

노컷뉴스, "北, "가뭄 피해 방지 전력"", 2012.6.13

#### □ 北 황해북도, 60년 來 최대가뭄

- 중국중앙(CC)TV는 북한 전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황해북도는 대부분 논밭의 농작물이 고사해가고 있고 피해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북한의 황해북도가 6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최근 집계로는 황해북도의 옥수수 재배지역 15%에 물 공급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 2천여 정보(19.834km<sup>2</sup>)에서는 옥수수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말라죽었다고 전함. 아울러 밀과 보리, 감자 등의 작물 수확 가능성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임.
- CCTV는 황해북도 내 황주(黃州)·서흥(瑞興)·연탄(燕灘)·수안(遂安)군, 송림시의 가뭄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함. CCTV는 북한 내에서 물부족으로 말라 죽은 농작물, 갈라진 논바닥, 마른 저수지 등을 화면을 집중적으로 찍어 비추면서 가뭄 피해를 생생하게 전함.

연합뉴스, "北 황해북도, 60년 來 최대가뭄", 2012.6.17

#### □ 평양 105년, 황해도 60년만의 가뭄..피해 극심

- 북한이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평양에서는 105년 만에 가장 적은 비가 내렸으며 황해북도는 6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북한 매체를 인용해 17일 밤에 보도함.
- 황해북도의 옥수수 재배지역 가운데 15%가 물 공급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 2,000여 정보(600만평, 19.834km<sup>2</sup>)에서는 옥수수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말라죽었다고 전함. 밀과 보리, 감자 등의 작물 수확 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황해북도의 황주(黃州), 서흥(瑞興), 연탄(燕灘), 수안(遂安)군과 송림시의 가뭄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중화군, 남포시와 용강군과 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보도함.
- 이 기간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내린 비는 1~5mm로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임. 이달 들어 북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20mm 이상의 비가 내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지만 여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머니투데이, "평양 105년, 황해도 60년만의 가뭄..피해 극심", 2012.6.18

#### □ 농촌경제연구원 "北가뭄 계속 땀 7~8월 식량난 심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북한의 가뭄 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7~8월에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함.
- 보리와 밀은 낱알 무게가 떨어져 수량이 20% 정도 줄어들고 감자 수확량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됨. 가을걷이 후 논에서 재배해 6월 말 수확하는 감자, 밀, 보리 등 이모작 작물은 가뭄 탓에 애초 전망치보다 생산량이 5만~10만t(15% 내외)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옥수수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됨.
- 벼농사는 아직 가뭄 피해가 크지 않지만,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이앙작업이 늦어져 초기 생육이 불량하고 병해충 발생도 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는 가뭄이 북한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가뭄이 더 이어지면 가을 작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함. 특히 가뭄 영향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순조롭지 못하면 7~8월에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함.

연합뉴스, "농촌경제연구원 "北가뭄 계속 땀 7~8월 식량난 심각"", 2012.6.20

## □ 북한 가뭄..."옥수수 수확에 큰 타격"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8일 “5월31일부터 이틀 동안 황해남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가뭄실태를 조사한 결과 옥수수 수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보고서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이식해 길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해 2백만 톤을 기록하면서 전체 곡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함.
  - 식량농업기구는 또 “6~7월 사이에 거둬들이는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재배 작물도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진 게 없다”고 밝힘.
  - 또 “현재 모내기 중인 논작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이식 작업과 물대기 과정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평양의 농경지대 일대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고 밝힘.
- 노컷뉴스, "북한 가뭄..."옥수수 수확에 큰 타격", 2012.6.20

## □ 北, 가뭄으로 식량난 재연 가능성

- 북한에 가뭄이 계속돼 또 다시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원조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함.
  - 비정부단체 벨트홍거힐페 책임자로 약 1주일간 북한을 돌아보고 중국에 도착한 볼프강 야만은 중국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방문 기간에 남쪽 2개 도에서 아이들이 병이나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농작물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전함.
  - 그는 “지난 60년 래 최악의 가뭄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면서 “북한이 주요 작물인 벼와 양배추, 옥수수를 심는 철이지만 가뭄으로 농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함.
- 연합뉴스, "北, 가뭄으로 식량난 재연 가능성", 2012.6.23

## 5. 홍수

### □ 北 “태풍 ‘카눈’으로 7명 사망…농지 침수”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주민 7명이 사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통신은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서 7명이 사망하고 해주시와 재령군에서는 가옥 다수가 파괴됐고 은천군에서는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음.
-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함경북도 김책시, 강원도 문천시·천내군, 함경남도 수동구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음.
- 김책시에서는 오후 3시~오후 6시와 오후 9시~자정에 각각 66mm, 64mm, 천내군에서는 오전 10시~오전 11시와 낮 12시~오후 3시 각각 54mm, 72mm, 수동구에서는 오전 9시20분~오전 11시50분, 낮 12시~오후 3시 각각 52mm, 69mm의 폭우가 쏟아졌음.

연합뉴스, "北 "태풍 '카눈'으로 7명 사망…농지 침수", 2012.7.20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4,328만 달러로 전년 동월 12,900만 달러에 비해 11.1% 증가(전월 16,474만 달러 대비 13.0% 감소)
- 반입은 8,28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047만 달러에 비해 17.6% 증가(전월 9,148만 달러 대비 9.4%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8.4%, 전자전기제품 29.9%, 생활용품 8.2%, 기계류 6.6%, 화학공업제품 3.2% 등임.
- 반출은 6,04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853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전월 7,326만 달러 대비 17.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9%, 전자전기제품 28.9%, 화학공업제품 8.8%, 기계류 7.4%, 생활용품 6.8%, 등임.

####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3.6만 달러로 전월 42.0만 달러 대비 3.8% 증가하고 4월 전체 반입액 8,286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1.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07.0만 달러로 전월 291.1만 달러 대비

28.9% 감소하고 4월 전체 반출액 6,042만 달러의 3.4%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74.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 분유 등 축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합관 등 임산물이 7.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3.7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5월 중 남북교역액은 16,8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919만 달러에 비해 13.2% 증가(전월 14,328만 달러 대비 17.8% 증가)
- 반입은 9,33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128만 달러에 비해 14.9% 증가(전월 8,286만 달러 대비 12.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4.1%, 전자전기제품 32.4%, 생활용품 9.1%, 기계류 6.9%, 화학공업제품 3.1% 등임.
- 반출은 7,54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791만 달러에 비해 11.8% 증가(전월 6,042만 달러 대비 24.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0%, 전자전기제품 26.2%, 기계류 8.0%, 철강금속제품 7.2%, 생활용품 6.8% 등임.

####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4.6만 달러로 전월 35.8만 달러 대비 52.5% 증가하고 5월 전체 반입액 9,336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5.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8.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75.8만 달러로 전월 189.6만 달러 대비 98.2% 증가하고 5월 전체 반출액 7,546만 달러의 5.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35.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 분유 등 축산물이 35.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 합관 등 임산물이

76.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 어패류 등 수산물이 28.5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16,33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860만 달러에 비해 9.9% 증가(전월 16,881만 달러 대비 3.2% 감소)
- 반입은 8,40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620만 달러에 비해 10.4% 증가(전월 9,336만 달러 대비 9.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7%, 전자전기제품 36.6%, 생활용품 9.2%, 기계류 6.3%, 화학공업제품 3.8% 등임.
- 반출은 7,92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241만 달러에 비해 9.4% 증가(전월 7,546만 달러 대비 5.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8%, 전자전기제품 28.6%, 생활용품 8.4%, 기계류 8.3%, 화학공업제품 7.4% 등임.

####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63.8만 달러로 전월 54.6만 달러 대비 16.8% 증가하고 6월 전체 반입액 8,409만 달러의 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2.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30.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3.8만 달러로 전월 375.8만 달러 대비 40.4% 감소하고 6월 전체 반출액 7,924만 달러의 2.8%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97.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5%), 분유 등 축산물이 7.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관 등 임산물이 1.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7.0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표 1. 2012년 4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3,769	311	0.4	농산물	673,524	1,742	2.9
참깨	41,270	104		쌀	3,630	6	
들깨	20,990	53		밀가루	6,157	4	
고추	2,780	7		참깨	60,040	110	
밤	18,800	60		들깨	29,030	52	
참기름	20,777	63		사과	9	0	
들기름	5,022	8		바나나	9	0	
기타유지가공품	8,730	16		배추	4	0	
박류	15,400	1		토마토	3,484	2	
				고추	1,020	2	
				기타채소	8	0	
				밤	32,800	49	
				기타산식물	4,121	17	
				기타식물성유지	45	1	
				식물성액즙	34	1	
				기타소스류	800	2	
				향신료	361	1	
				커피	5	0	
				커피조제품	4,100	24	
				녹차	17	0	
				제조담배	260	12	
				소주	990	1	
				맥주	2,400	2	
				위스키	4	12	
				기타주류	138	1	
				정당	128	0	
				물	2,260	2	
				기타음료	25	0	
				비스킷	65	0	
				곡류가공품	104	0	
				빵	200,951	692	
				면류	88,541	250	
				기타농산가공품	231,384	466	
				견	600	3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4,436	22	0.04
				소시지	2,846	10	
				로얄제리	706	9	
				분유	1	0	
				기타낙농품	703	2	
				난류	180	0	
임산물	10	0	0.0	임산물	12,165	12	0.1
기타목재류	10	0	-	합판	51,106	40	
				섬유판	5,200	5	
				건축용목제품	15,230	14	
				젓가락	1	0	
				기타목재생활용품	51	0	
				기타목재류	21	0	
				수목류	18,378	11	
수산물	155,040	124	0.1	수산물	473,320	237	0.4
미역	155,040	124		미역	473,320	237	
합 계	288,819	436	0.5	합 계	1,241,267	2,070	3.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0호(2012.4.1~4.30)

표 2. 2012년 5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7,381	359	0.4	농산물	921,852	2,352	3.1
참깨	40,906	144		쌀	4,018	7	
들깨	13,680	34		기타곡류	2	0	
기타채유종실	240	1		밀가루	3,088	2	
고추	3,886	22		참깨	69,960	163	
밤	22,000	70		들깨	23,350	51	
참기름	9,117	40		타채유종실	13,000	20	
들기름	4,320	10		오렌지	9	0	
기타유자가공품	14,582	34		포도	5	0	
박류	8,400	0		멜론	11	0	
기타소스류	120	0		토마토	9	0	
빵	130	2		고추	10,540	21	
				기타채소	7	0	
				기타화초	2,670	1	
				밤	53,600	80	
				기타산식물	4,000	7	
				대두유	23,976	36	
				들기름	1,650	4	
				기타소스류	500	0	
				향신료	358	1	
				커피조제품	9,272	34	
				초코렛	8	1	
				녹차	3	0	
				제조담배	300	10	
				인삼류	215	28	
				소주	2,270	3	
				맥주	3,560	4	
				위스키	216	10	
				기타주류	345	1	
				정당	160	0	
				물	10,341	6	
				과일주스	18	0	
				기타음료	102,170	251	
				비스킷	120	0	
				곡류가공품	10	0	
				빵	241,559	851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면류	95,138	245	
				빙과류	210	0	
				기타농산가공품	244,855	498	
				총자류	29	0	
				견	300	15	
축산물	-	-	-	축산물	75,519	353	0.5
				소시지	14,335	59	
				로얄제리	15,370	48	
				분유	34,000	190	
				기타낙농품	11,588	57	
				난류	226	1	
임산물	-	-	-	임산물	64,330	767	1.0
				합판	25,098	714	
				단판	1,493	5	
				섬유판	7,800	6	
				건축용목제품	9,780	12	
				기타목재생활용품	52	0	
				기타목재류	1,655	1	
				수목류	18,452	29	
수산물	232,086	187	0.2	수산물	574,005	285	0.4
미역	232,086	187		미역	573,990	285	
				어육	15	1	
합 계	349,467	546	0.6	합 계	1,635,706	3,758	5.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1호(2012.5.1~5.31).

표 3. 2012년 6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3,080	326	0.4	농산물	696,027	1,979	2.5
참깨	31,800	111		쌀	2,958	6	
들깨	15,620	51		밀가루	3,088	2	
밤	26,700	85		참깨	49,580	121	
참기름	5,751	27		들깨	26,800	64	
들기름	4,578	20		오렌지	9	0	
기타유지가공품	8,631	22		멜론	9	0	
박류	6,000	0		토마토	38	0	
기타소스류	4,000	10		기타채소	4	0	
				국화	50	0	
				기타화초	1,100	2	
				밤	40,000	60	
				기타산식물	18,800	5	
				들기름	1,650	11	
				기타식물성유지	990	2	
				기타유지가공품	13	0	
				향신료	299	1	
				커피	5	0	
				커피조제품	9,790	46	
				녹차	1	0	
				홍차	6	0	
				제조담배	3,780	74	
				소주	2,670	4	
				맥주	7,760	8	
				위스키	1,218	101	
				기타주류	603	6	
				정당	305	0	
				물	2,892	2	
				곡류가공품	55	0	
				빵	207,808	676	
				면류	89,807	274	
				빙과류	280	0	
				기타농산가공품	221,058	460	
				종자류	1	0	
				견	600	29	
				면	2,000	26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16,139	72	0.1
				소시지	13,020	58	
				로얄제리	840	8	
				기타낙농품	2,279	7	
임산물	2,850	5	0.0	임산물	16,278	17	0.02
건축용목제품	2,850	5		합판	5,492	4	
				단판	83	1	
				섬유판	9,609	9	
				건축용목제품	92	0	
				기타목재류	1,002	3	
수산물	219,774	307	0.4	수산물	347,080	170	0.2
기타조개	41,652	151		미역	347,080	170	
미역	178,122	156					
합 계	325,704	638	0.8	합 계	1,075,524	2,238	2.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2호(2012.6.1~6.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소 계	230,452	803	8,062,841	252,166	1,090	8,258,261	16,321,102	195,420
2012.1	2,743	188	77,575	3,382	410	65,857	143,432	△11,718
2012.2	2,809	179	81,106	3,519	414	69,507	150,613	△11,599
2012.3	3,147	203	91,478	3,746	412	73,259	164,737	△18,219
2012.4	2,719	193	82,861	3,249	408	60,422	143,283	△22,439
2012.5	3,081	207	93,358	3,835	431	75,456	168,814	△17,902
2012.6	2,965	201	84,086	3,819	442	79,244	163,330	△4,842
소 계	17,464	319	510,463	21,550	613	423,745	934,207	△86,718
총 계	247,916	810	8,573,304	273,739	1,095	8,682,005	17,255,309	108,701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2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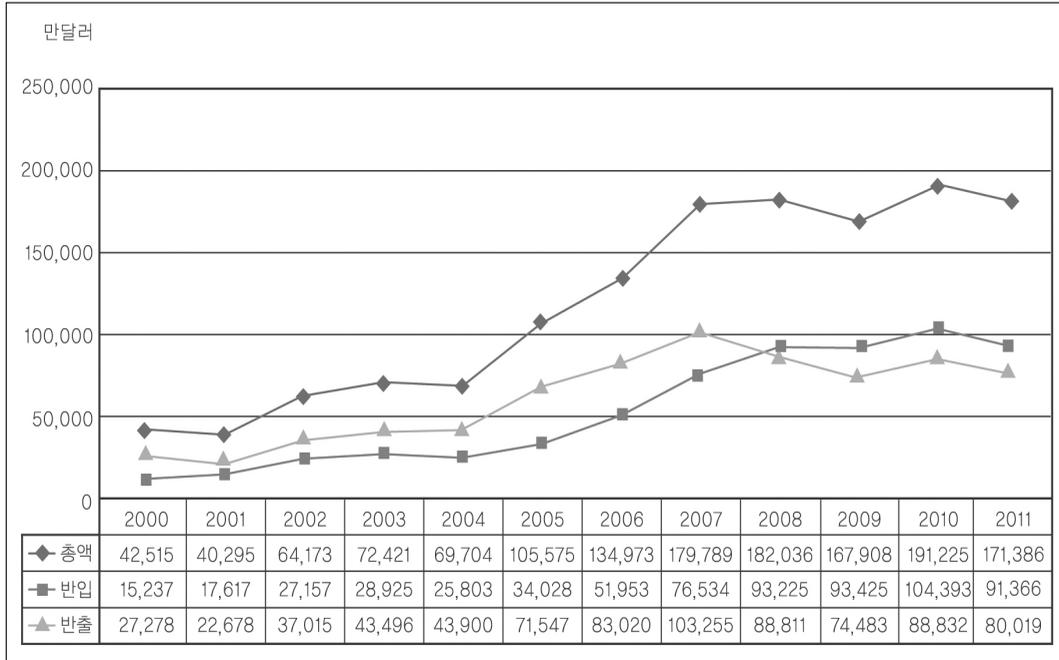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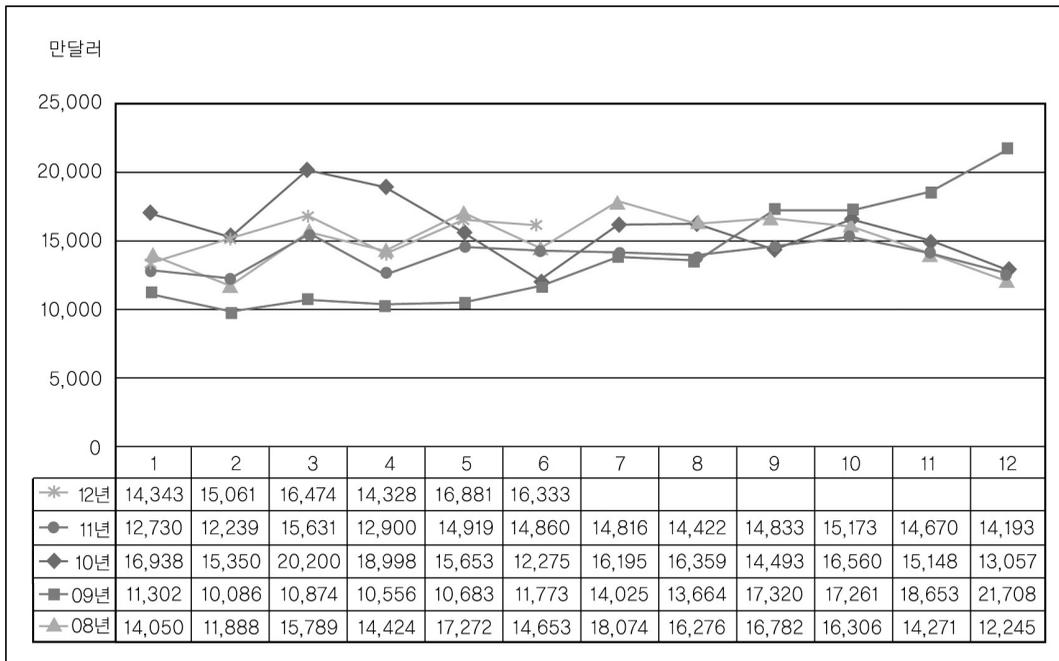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Δ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Δ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Δ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Δ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Δ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Δ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Δ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Δ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Δ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Δ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Δ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Δ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Δ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Δ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Δ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Δ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Δ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Δ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Δ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Δ46,963
2011	3,343	-	0	2,770	8,418	31,931	641	318	2,167	27,467	35,885	19,049
소 계	517,879	3,317	51,145	1,023,544	1,598,210	969,558	26,662	29,742	27,642	1,046,103	2,644,313	Δ399,565
2012.1	321	-	-	71	392	1,948	12	12	25	1,997	2,389	1,605
2012.2	273	-	-	26	299	1,754	37	42	263	2,097	2,396	1,798
2012.3	295	-	-	125	420	2,500	31	62	318	2,911	3,331	2,491
2012.4	311	-	0	124	436	1,742	22	70	237	2,070	2,506	1,634
2012.5	359	-	0	187	546	2,352	353	767	285	3,758	4,304	4,304
2012.6	326	-	5	307	638	1,979	72	17	170	2,238	2,876	1,600
소 계	1,885	-	5	840	2,731	12,275	527	970	1,298	15,071	17,802	12,340
총 계	519,764	-	51,150	1,024,384	1,600,941	981,833	27,189	30,712	28,940	1,061,174	2,662,115	Δ387,22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0~252,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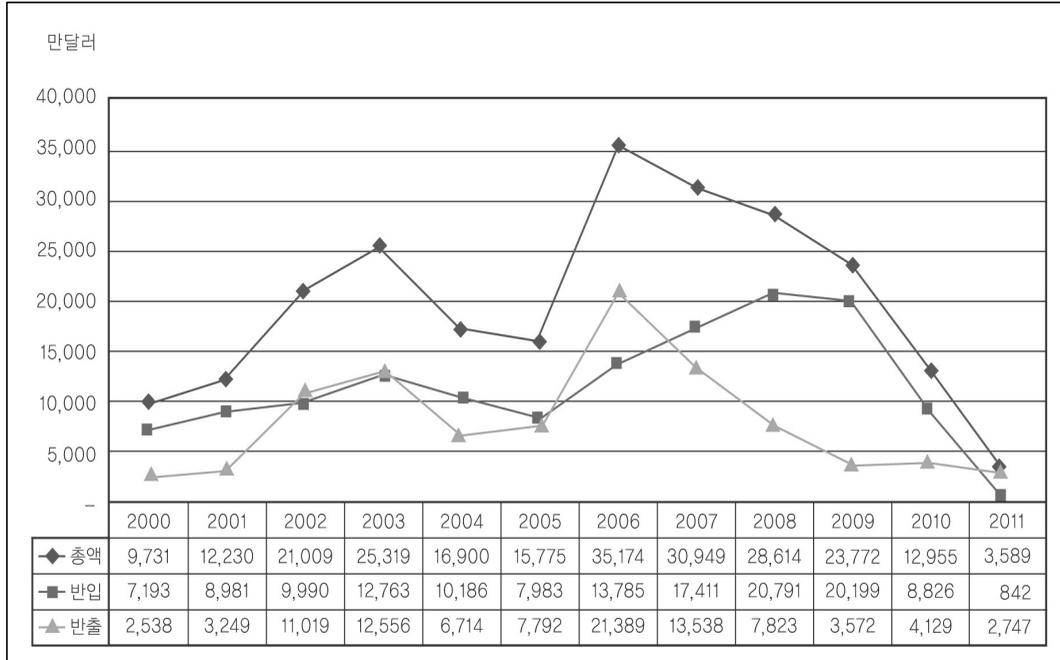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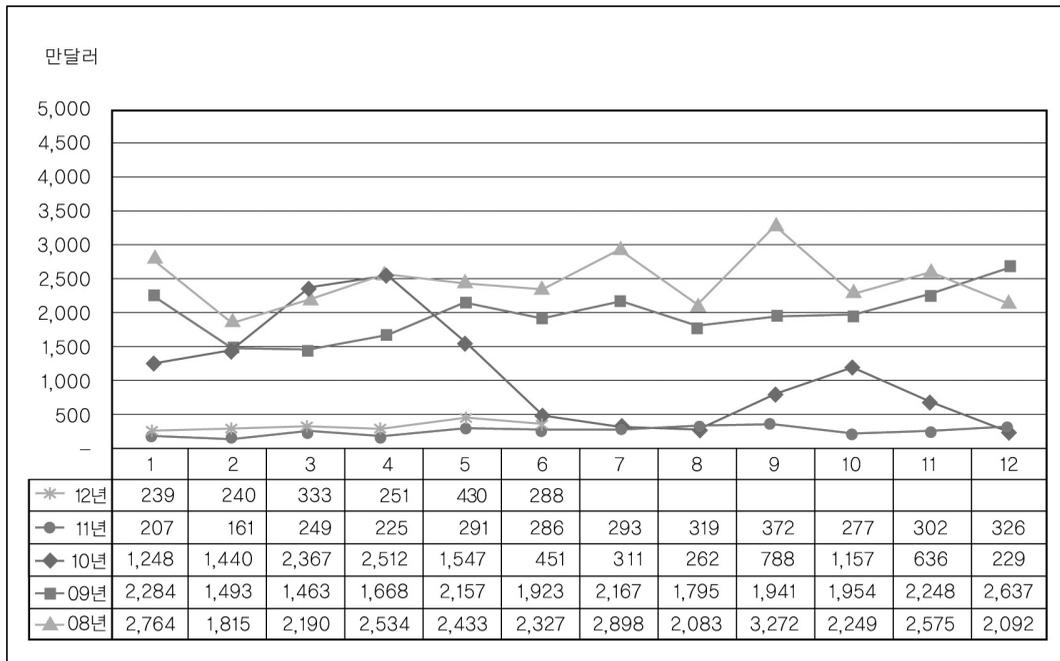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2012.5.16, 8.7)

- 지난 5월 16일 입법 예고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번 개정 법률안은 통일 직후 1년간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재원을 통일계정에 적립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① 법률 제명 변경
    - 종전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
  - ②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 ③ 통일계정 설치
    -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 남북협력계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 \* 통일계정 : 한반도 통합 지원
    -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으로 구성
  - ④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근거 마련
    - 통일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근거 신설

### 통일부, 5.24조치 2주년 설명

(통일부, 2012. 5. 24)

- 정부는 5월 24일 5.24조치 2주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그 조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함.

#### 1. 5.24조치

- 5.24조치 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항해를 금지

하는 것이었음.

-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약 3억 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5.24조치 지속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입각한 것임.
- 5.24조치 당시 우리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있음.
- 또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음.

### 2. 5.24조치에 따른 국내 교역·경협기업의 피해 구제

- 5.24조치 당시 진행사업 마무리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10.6.1~11.2.28)
  - 위탁가공 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반출과 완제품 반입 허용
  - 대북 선불금 기지급 기업에 대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승인
- 기타 교역·경협기업 대상 우대 조치
  - 교역·경협기업 대상 특별대출 실시( 2차에 걸쳐 214개 기업에게 546억원 대출)
  - 171개 기업에게 대출금 365억원 상환 유예
  - 2011년 6월 이후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 3.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 개방

-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개방할 것임.
- 북한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제의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오는 선택을 할 경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것을 천명함.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12. 6. 11)

-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011.10.28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제19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임.

- 이번에 입법예고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절차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
- 민간대북사업 관련 안내, 상담 및 지원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②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

-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
- 금전이동을 원칙적 승인대상으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승인 면제

③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 대상 명확화

- 남북교역 사업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등 규정이 없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
-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교역사업 등록제 도입
  - ※ 등록제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등록 요건은 2가지로 한정(사업자 등록 보유, 1년 이내 교류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④ 기타

-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북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 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상환 관련 대북 통지

(수출입은행, 2012.5.4, 6.8, 7.16)

-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5월 4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다음달(6월)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을 통지하였음.
  - 실무적 차원에서 상환기일, 상환금액 등을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고지한 것임.
  -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2012년 6월 7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6월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6월 8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식량차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연체 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함.

#### □ 2012년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모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 1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정착을 장려하고 농촌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함(공고 제 2012-77호).
-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 2009. 12. 31 이전 사회진출자 중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우대자격
  - 사회진출 후 농업에 만 1년 이상 직접 종사한자
  - 해당 지자체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자
  - 귀농귀촌 또는 농업 관련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자
  -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지도 경력자
  - 가족단위 귀농자(3인 이상인 경우)
  - 지자체장(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추천서
- 지원 내용 및 용도
  - 지원자금규모 : 1인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자금용도 : 토지·시설 임차 및 시설(하우스, 농막, 축사 등) 신축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2.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11차 '05.1~12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2	-	8,340	-	이월자금 4,058,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097, 한국 1,054, 스위스 545, 캐나다 502, 노르웨이 351 등
총 계	-	196,600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2)

표 2. 2011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7.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CERF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소계 2,344,912	
국제적십자자연맹	스위스	544,070	인도지원
노르웨이적십자사	노르웨이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Save the Children	덴마크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독일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소계 398,517	
스웨덴 민간구호기구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스웨덴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UNICEF	캐나다	1,003,009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CER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 (12-CEF-003)
		소계 2,228,009	
UNPF	CER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WFP	이월자금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미분류	4,10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민간단체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노르웨이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노르웨이	869,414	긴급식량지원(PRK-12/0002)
	스위스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캐나다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CERF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소계 63,859,556	
WHO	CERF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한국	10,542,715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합 계		83,395,47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2)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7.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CERF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FAO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소계 2,344,912	
조정 및 지원서비스	스웨덴	스웨덴민간 구호기구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노르웨이	노르웨이적 십자사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소계 2,152,660	
식량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노르웨이	WFP	869,414	긴급식량지원(PRK-12/0002)
			소계 1,127,812	
보건	CERF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캐나다	UNICEF	1,003,009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캐나다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노르웨이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민간단체	WFP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한국	WHO	10,542,715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WFP미분류	WFP	4,01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77,135,860		
미분류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위스	국제적십자 연맹	544,070	인도지원
			소계 634,228	
합 계			83,395,47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2)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7.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소계 10,965,527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미분류	WFP	4,10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캐나다	UNICEF	1,003,009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소계 4,909,259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한국	WHO	10,542,715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민간단체	WFP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WFP	869,414	긴급식량지원(PRK-12/0002)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3,509,245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5,454,849	
스웨덴	스웨덴민간구호 기구(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FAO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소계 547,073	
합 계		83,395,472	

주: 지원액은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2)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가. 국제기구

#### WFP "자금부족으로 대북 식량지원 축소"

- 세계식량계획(WFP)이 자금부족으로 2012년 7월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8일 “2012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한에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내 82개 군에서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2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그는 “2011년 가을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작성한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콩 등 단백질 제공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힘.
- 스카우 대변인은 “내년 3월까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이 실시 되는 동안, 북한의 영양 실태를 다시 조사해 좀 더 장기적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FP "자금부족으로 대북 식량지원 축소"", 2012.5.9)

#### WFP "대북 식량 12만톤 지원"

- 세계식량계획(WFP)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북한에 식량 12만톤을 지원하기로 함.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대변인은 22일 “오는 6월 4일부터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북 지원계획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1년 동안 북한에 1억250만 달러 상당의 식량 12만 3천톤을 평양과 자강도를 제외한 8개 도 82개 군에서 239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게 됨.
- 지원 대상은 탁아소와 유치원, 소아병동, 기숙학교, 인민학교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모 등이며, 이밖에 취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도 직접 마을 개발에 참

여하고 식량을 지원하기로 함.

- 세계식량계획은 2011년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8만 3천톤으로 당초 계획의 25%에 지나지 않아 인민학교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이미 몇 달째 배급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FP "대북 식량 12만톤 지원"", 2012.5.23)

#### WFP, "북한에 밀 1만여 톤 지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호주에서 구입한 밀 1만여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곡물 조달국 주프 멘크벨드 씨는 30일 “오는 6월말에 호주 항구도시인 포트캠블리에서 선적 작업을 시작해 7월에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한편, 세계식량계획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에 대한 감시도 심해졌다”며 “곡물을 실은 선박 중 일부는 북한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중국 다롄을 거치는 예도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FP, "북한에 밀 1만여 톤 지원"", 2012.5.31)

#### 국제적십자사, "北 함경도 폭우 피해 지역 지원"

- 국제적십자사는 16일 “영국의 비영리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함경남도화 이밖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에 필요한 지원물품들을 제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본격적인 홍수철을 앞두고 급작스러운 홍수 발생시를 대비해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대책반’도 구성함.
- 북한에서는 6월에 내린 폭우로 함경남도 지역에 주민 850여명이 피해를 입고 주택 40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함경남도에서도 주민 1명이 숨졌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국제적십자사, "北 함경도 폭우 피해 지역 지원"", 2012.7.17)

##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스위스, "3년 동안 1,700만 달러 대북 지원"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1천7백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함.
-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2-2014 북한 중기 지원 계획'을 통해 2012년에 540만 달러, 2013년 600만 달러, 2014년에는 610만 달러 등 모두 1,7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스위스제 분유를 3개년 예산의 55%인 970만 달러를 할당해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 "분유는 북한 내 세계식량계획(WFP)이 운영하는 식품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과 고열량 과자로 가공해 고아원과 유치원, 학교, 탁아소, 소아병동에 분배한다"고 말함.
-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식수, 위생 사업에 3년 동안 220만 달러, 경사지 관리법 전수 사업에는 172만 달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도 161만 달러를 제공해 독립병원을 개보수하고 의료진을 훈련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위스, "3년 동안 1,700만 달러 대북 지원"", 2012.5.10)

### 스웨덴, "북한에 45만 달러 식량 지원"

- 스웨덴이 북한의 식량지원을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45만 달러를 기부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5일 "스웨덴이 4월 말 북한에서 씨감자 증식과 감자 저장고 개선을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에 34만 유로(미화 4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한편,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 25만 8천 달러를 기부해, 함경남도 신흥군과 영광군에서 양어장 사업을 통해 6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도록 함.

- 캐나다도 지난 1월 세계식량계획(WFP)에 미화 390만 달러를 기부해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 식량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고, 3월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해 중증 어린이 영양실조 지원에 나섬.
- 스위스는 2월에 세계식량계획(WFP)에 100만 달러 상당의 유제품과 곡물을 기부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웨덴, "북한에 45만 달러 식량 지원", 2012.5.16)

#### □ 호주, 대북식량 150만 달러 지원

- 호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대북식량에 1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은 2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 2012회계연도에 500만 달러를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돕는 데 사용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호주국제개발청 대변인실의 히더 필란스 대변인은 “유엔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15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함.
- 필란스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350만 달러가 집행됐다”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설명함.
- 호주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한 후 유엔 기구를 통한 제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호주, 대북식량 150만 달러 지원", 2012.5.22)

#### □ 호주 관리, "대북지원 모니터링 반복"

- 호주 정부의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지원한 식량의 분배와 감시 상황을 확인함.
  - 호주국제개발청(AusAID) 히더 필란스 대변인이 23일 “호주 관리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와 감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필란스 대변인은 “방북단이 북한 최대의 항구도시를 방문해 배편으로 보낸 식량의 하역에서 창고 보관까지의 과정을 일일이 살펴봤다”고 말함.
-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식수, 위생 사업에 3년 동안 220만 달러, 경사지 관리법 전수 사업에는 172만 달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도 161만 달러를 제공해 도립병원을 개보수하고 의료진을 훈련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호주 관리, "대북지원 모니터링 방북"", 2012.5.24)

#### □ 중국 "2월 하순부터 대규모 대북 원조시작"

- 코트라는 29일 중국 중화양망과 대련상품교역소 등을 인용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최소 20만 톤의 식량 원조 받기를 희망했다”며 “원조물자에는 식량과 건축자재 등이 모두 인민폐 6억 위안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중국 언론들은 “인민폐 6억 위안을 도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중국 동북쌀은 약 15만 톤이며, 옥수수는 26만 5천 톤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함. 또, “일반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량에 비해 단동 등 중국과 북한 국경 도시의 식량은 품질이 훨씬 떨어지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코트라는 “최근 중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자체 원조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 조직을 이용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북한은 대북 식량 원조 방식은 공개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저가판매와 민간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무상 원조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분석함.
- 대북 중국인 무역상에 따르면 “식량 원조 가운데 북한에서는 밀가루가 가장 인기 있다”며 “이는 밀가루 가격이 쌀보다 훨씬 낮은데다 먹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중국 "2월 하순부터 대규모 대북 원조시작"", 2012.5.30)

### □ **인니, 2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이 1일 보도함.
-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됐지만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기구(WFP),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을 북한에 적절히 전달하는 방법과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를 친선 방문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장을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인니, 2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 계획", 2012.6.1)

### □ **이란, 북한에 분유 등 인도적 지원**

- 이란이 북한에 추가로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Fars)통신이 11일 보도함.
- 이란의 적신월사 총재인 아볼하산 파그히는 중국 등으로부터 분유 등 식품과 각종 의료 관련 물품 등 구호품을 구입해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북한 측에 통보함.
-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서 이란으로부터 담요와 텐트 등 구호물품들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몇 개월 내 강한 폭풍우가 예보돼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이란, 북한에 분유 등 인도적 지원", 2012.6.12)

### □ **중국, 북한에 대규모 원조**

- 중국이 최근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대규모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강도 소식통은 19일 “최근 장마당에서 대부분 중국 쌀이 거래되고 군대와 돌격대, 보위부, 보안부까지 모두 중국산 쌀을 먹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4월 중순까지는 장마당들에서 북한산 쌀을 볼 수 있었으나 4월 말부터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은 북한쌀은 장마당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으며 가격도 1kg에 북한 돈 4천2백 원으로 중국 쌀에 비해 1천2백 원 이상 높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초부터 중국으로부터 강냉이(옥수수) 30만 톤과 입쌀(벼) 20만 톤을 무상으로 받고 있으며, 화학비료 40만 톤과 휘발유 30만 바レル을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단동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식량 등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을 지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중국, 북한에 대규모 원조", 2012.6.20)

#### □ 덴마크 NGO, "북한 어린이 식량 12톤 지원"

- 덴마크의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가 황해남도 해주의 어린이들에게 식량 12톤을 지원한다고 밝힘.
- 덴마크 국제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 킴 하르츠너 사무국장은 26일 “황해남도 해주시 탁아소와 유치원, 고아원에 소속된 어린이 2만 명에게 3개월 동안 제공할 식량 12톤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 하르츠너 사무국장은 “어린이들에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보강하기 콩단백질과 아미노산, 미네랄과 비타민이 첨가된 가루 형태의 영양보조식품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함. 그는 식량 분배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함.
- 미션 이스트는 2011년 5월부터 지금까지 2만7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220톤의 쌀과 강냉이, 영양보조 식품을 전달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덴마크 NGO, "북한 어린이 식량 12톤 지원"", 2012.6.27)

### 3. 북중 교역 동향

####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0	15,636	2,469	900	4,375	78	23,458
11	0	697	21,109	119	4,171	19	26,115
12	0	651	7,417	120	3,927	33	12,148
2011.1-12	1	45,879	55,048	1,535	50,298	13,436	166,197
2012. 1	0	764	326	0	1,850	633	3,573
2	0	117	653	29	1,705	398	2,902
3	102	800	2342	145	7,730	156	11,275
4	0	7,284	2,412	0	6,376	10,217	26,289
5	0	1,276	3,376	3	6,086	680	11,421
6	0	1,250	2,200	0	4,014	395	7,859
2012.1-6	102	11,491	11,309	177	27,761	12,479	63,31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0	41,380	4,707	2,500	10,662	120	59,369
11	0	1,946	29,800	184	10,216	30	42,176
12	0	1,953	12,440	0	9,701	55	24,149
2011.1-12	1	135,751	92,242	3,302	124,963	20,172	376,431
2012. 1	0	2,309	615	0	4,545	910	8,379
2	0	401	1,241	50	4,222	620	6,534
3	200	2,226	4,172	230	19,193	222	26,263
4	0	18,433	4,480	0	15,654	12,411	50,978
5	0	3,613	6,025	6	15,138	1,006	25,788
6	0	3,355	3,995	0	9,829	547	17,726
2012.1-6	200	30,337	20,528	286	68,581	15,716	135,648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상반기의 곡물 수입량은 135,648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9,173톤과 비교할 때 9%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지난해 6,031만 달러에서 금년에는 6,332만 달러로 5% 증가함.
  - 2012년 4월, 51,000여 톤의 곡물을 수입한 이래 수입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5월의 곡물 수입량은 25,788톤으로 4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17,726톤으로 축소됨.
  - 금년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에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등 식량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을 북한의 곡물 작황이 다소 호전된 원인도 있지만 이번 양곡연도에는 중국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증가한 데다 중국의 대북 무상 식량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22%, 쌀 15%, 밀가루 51%, 콩 11%임.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곡종별 수입 비중은 옥수수 38% 쌀 17%, 밀가루 37%, 콩 7%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옥수수와 쌀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밀가루의 콩의 수입 비중은 증가함. 그러나 수입량에 있어서는 밀가루만 증가하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감소하였음.
-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67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4달러와 비교하면 15% 이상 상승함.
  -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수입 단가는 옥수수 379달러, 쌀 551달러, 밀가루 405달러, 콩 794달러였음.
  - 2011년 상반기의 곡종별 톤당 수입단가는 옥수수 304달러, 쌀 538달러, 밀가루 395달러, 콩 661달러였음.
  -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2.5%)과 밀가루(2.5%)의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옥수수(24.4%)와 콩(20.1%) 가격은 크게 상승함.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34	0	0	2	136
11	0	0	6	0	6
12	3	0	0	2	5
2011.1-12	94,188	4	7	1,684	95,883
2012. 1	0	0	0	2,533	2,533
2	0	0	0	246	2,779
3	0	5	0	0	5
4	3,507	5	11	10	3,533
5	15,233	0	62	92	15,387
6	32,198	35	0	3,635	35,868
2012.1-6	50,938	45	73	6,516	57,572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300	0	0	5	305
11	0	0	5	0	5
12	11	0	0	3	14
2011.1-12	350,641	40	7	4,348	355,036
2012. 1	0	0	0	6,089	6,089
2	0	0	0	401	401
3	0	40	0	0	40
4	15,160	40	5	13	15,218
5	69,208	0	56	84	69,348
6	114,838	160	0	7,778	122,776
2012.1-6	199,206	240	61	14,365	213,872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금년 상반기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13,8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0,400톤과 비교할 때 12% 가량 증가하였음.
  - 4월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5월부터 비료 수입을 대폭 늘림.
  - 6월 들어 북한은 122,700여 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함으로써 5월의 69,300톤에 이어 비료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
  -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비료는 요소 28,694톤, 유안 170,506톤으로 두 가지 비료가 전체 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달함.
  - 금년에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전년에 비해 인산과 칼리 비료의 수입량도 다소 증가함.
-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톤당 22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8달러에 비해 18% 상승하였음.
  -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요소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45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6달러와 비교할 때 32% 가량 상승함.
- 이처럼 비료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비료를 수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한편 북한은 5~6월의 긴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뿐만 아니라 가을에 수확할 옥수수의 작황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곡물 생산 안정을 위해서는 비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절실한 과제인데 북한의 자체 비료 생산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비료를 서둘러 수입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흥남화학기업연합소의 주체비료 생산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인 알려져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sup>1)</sup>

김 명 일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함.
-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국토관리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함. 국토관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자면 우선 중앙국토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 중앙국토관리기관은 자기의 임무에 맞게 당의 국토관리정책과 그 구현인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고 그 집행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하게 해야 함.
- 중앙국토관리기관과 함께 지방국토관리기관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
  - 토지, 산림, 도로, 강하천 등 국토관리사업이 시, 군국토관리기관에 의하여 직접 조직되고 집행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시, 군국토관리기관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국토관리사업을 균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함. 또한 모든 단위에 국토관리과제를 명확히 주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국토관리부문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토와 자원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함.
- 산림부문에서는 경제적가치가 크고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

1) 경제연구, 2012년 제2호(누계 155호), 2012.

무를 많이 얻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중심을 두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기술을 빠른 기간 내에 발전된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함.

- 도로와 다리, 강하천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시공형식과 방법, 건설재료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함.
-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주요도시와 산업지구에서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없애며 미광과 폐수, 생활오수와 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바로세워야 함.
- 국토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함. 감독통제를 강화해야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고 위법행위를 제때에 적발하여 해당 대책을 세울 수 있음.
  - 우선 국토관리부문의 법규범과 규정을 현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해야 함.
  - 검열단속기관의 역할을 높여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의 준수집행현황을 정상적으로 검열하며 허가, 등록, 비준제도를 강화하며 위법현상을 미리 막아야 함.

E02-2012-02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2호

찍 은 날	2012. 7	펴낸날	2012. 7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a href="http://www.krei.re.kr">http://www.krei.re.kr</a>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